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865-01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이해



I.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의 특징

-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08
-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의 특징 11
-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의 구성 체계 15

II.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

- 신체발달 18
- 인지발달 27
- 언어발달 37
- 사회·정서 발달 46

III.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운영 및 평가

- 영아를 위한 보육계획의 수립과 운영 56
- 영아를 위한 보육환경의 구성 66
- 탐색 및 놀이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71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과정 평가 87

IV. 영아를 위한 일상생활 운영

- 일상생활 92
- 영양관리 111
- 건강관리 123
- 안전관리 131

V. 영아를 위한 적응기간 운영

- 0세아의 적응 151
- 1세아의 적응 154
- 2세아의 적응 157
- 신입원아, 수시 입소 신입원아 및 재원아의 적응 160

VI.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 가정과의 연계 164
- 지역사회와의 연계 176

부록

- [부록1] 영아 부모를 위한 월령별 발달 정보 요약표 182
- [부록2] 영아반 교사가 알아야 할 Q&A 188
- [부록3]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일별) 201
- [부록4]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월별) 202
- 참고문헌 204
- DVD 가이드 206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이해



0~2세 영아보육 프로그램의 특징

-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의 특징
-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의 구성 체계

I.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의 특징

1.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 표준보육과정의 개발과 최초 고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영유아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수준에 적합한 보육과정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이는 2004년 1월 전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9조 3항)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국가수준의 보육목표와 내용을 개발하고자 한 것이다. 2005년 11월에 완료된 표준보육과정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의 역사에서 입법화된 표준보육과정령과 고시를 마련하고자 한 첫 시도였다.

표준보육과정은 2006년 11월 10일에 여성가족부령 제11호로 ‘표준보육과정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으로 공포되고 2007년 1월 3일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이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07-1호) 되었다. 이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2010년 9월 7일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이 재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1호) 되었다. 표준보육과정으로 인해서 전국 어린이집에서 연령집단별로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하며, 연속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국가수준의 보육목표와 보육내용 체계를 지니게 되었다. 표준보육과정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계획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고 보육내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 제1차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의 최초 개발 및 전국 어린이집에서의 적용

제1차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최초로 개발·보급되어 전국 어린이집 교사들이 활용하게 되었다.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은 표준보육과정의 6개 영역과 내용범주, 내용, 수준별 내용에 적

합하게 연간, 월간, 주간보육계획안을 제시하고 연령 및 발달수준에 적합한 활동들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0~5세까지 각 연령당 1권씩 총 6권의 연령별 보육프로그램과 장애아 보육프로그램 1권도 함께 출간되었다.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이 국가 수준에서 최초로 개발, 보급된 것은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커다란 발전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 제2차 표준보육과정의 개정 연구 및 고시

제1차 표준보육과정이 2005년 11월에 연구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국내외의 시대적 상황과 연구결과들을 반영하고 현장에 적용하면서 요구되는 의견들을 수용하여 2011년 1월까지 제2차 표준보육과정 개정 연구가 완료되었다. 이후 2011년 3월 28일 제2차 표준보육과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 후 내용을 수정하여 고시하려는 중에 동년 5월 2일 ‘5세 공통과정(누리과정)’이 발표됨에 따라 제2차 표준보육과정의 개정 고시는 늦추어지게 되었다.

5세 누리과정이 2011년 9월 5일에 고시되면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6호) 제2차 표준보육과정의 수정이 이루어져 2012년 2월 29일에 0~4세를 위한 제2차 표준보육과정이 고시되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8호).

■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개정 연구 및 고시

5세 누리과정과 제2차 표준보육과정이 적용되려던 시기에 보건복지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2013년 3월부터 3~4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2012년 1월 18일 정부합동 브리핑). 이에 따라 2012년 3월 2일부터 3~4세 누리과정 제정 TF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2012년 7월 9일에 3~4세 누리과정이 최종적으로 고시되었고, 2011년에 고시되었던 5세 누리과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제2차 표준보육과정의 전반적 재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개정 연구를 진행하여 2013년 1월 21일에 고시되었다. 이로써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의 구성체계를 갖춘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개정되었다.

I. 0~2세 영아보육 프로그램의 특징

■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개정에 따른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고시됨에 따라 이에 기초하여 연령별 영아보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3차 고시 내용에 기초하여 새롭게 활용될 교사용 프로그램은 영아보육의 특성이 심도있게 고려되고 현장에서 교사들의 활용도가 높으며 영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활동개발이 요구되었다.

2.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의 특징

이번에 개발된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영아기의 발달에 적합한 우수한 활동 개발

영아기는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발달이 이후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시기로 개별적 영아의 기질 및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영아기의 발달 수준을 세분화하여 이에 적합하되, 개별 영아의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활동을 개발하였다.

■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의 수준별 내용을 균형있게 경험할 활동 개발

새롭게 개정된 제 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내용범주, 내용, 수준별 세부내용을 적절하고 균형 있게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로 개발하였다. 이때 0~1세 보육과정은 4수준, 2세 보육과정은 2수준으로 구별되어 있으므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서 활동의 난이도를 고려하였다.

■ 영아의 요구와 흥미에 맞추어 교사와의 민감한 상호작용을 강조한 개별화된 활동 개발

0~2세 영아는 일상적 양육과 개별화된 활동, 놀이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대소집단활동을 최소화하고 거의 모든 활동이 개별화된 활동으로 개발하였고, 교사가 영아의 민감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하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0~2세 영아의 발달적 연계와 영아 유아간의 연계를 고려한 활동 개발

0~2세 영아의 주제나 소주제, 활동은 서로 연계성있게 개발하였고 2세의 경우 3세와의 연계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0~1세는 6~7개의 발달적 주제를 사용하였고 2세는 계절 등을 포함한 9개 주제로 구성되었다.

I. 0~2세 영아보육 프로그램의 특징

■ 기관, 가족, 사회, 문화가 공감할 수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활동 개발

우리문화에 적합하여 주 양육자인 교사나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문화적 공감대를 느낄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활동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적용 시에 지역사회나 어린이집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상생활의 양육과 프로그램이 균형을 이루고 영아의 친숙한 경험을 우선으로 한 활동 개발

어린이집은 오전, 오후의 긴 하루 일과 운영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아들이 규칙적이고 친숙하면서 편안한 일상 양육환경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과에서 수유, 이유, 간식과 점심, 배변, 낮잠, 옷입고 벗기 등의 일상양육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되 일과에서 활동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개발하였다.

■ 짧은 월령간에도 발달적 차이가 큰 영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0~1세 프로그램은 월령으로 구분하여 활동 제시

0세 프로그램과 1세 프로그램은 월령 간의 큰 발달적 차이를 고려하여 모든 활동들이 월령으로 구분되어 개발되었다. 즉, 0세 프로그램에는 0~12개월에 해당하는 활동이, 1세 프로그램에는 13개월에서 24개월 영아에게 적합한 활동이 개발되어 구성되었다. 그러나 2세의 경우 유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2세반 프로그램으로 하였다. 2세반 프로그램은 25개월에서부터 36개월 영아가 1년간 재원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난이도의 활동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2세의 경우, 활동수가 많아 총 3권의 책으로 묶여졌다.

■ 생애 첫 기관인 어린이집에서의 적응과정을 중요시하고 이를 각 연령에서 강조

영아가 어린이집인 집단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어느 정도의 적응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부모와 교사가 어떻게 상호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이 더 원활히 진행될 수도 있다. 이에 총론인 '운영의 이해'에서 연령별 적응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 영아의 월령 및 연령에 따라 주제 및 소주제, 활동 운영을 달리 기술하여 교사의 반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고려

영아의 개별적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영아의 월령 및 연령에 따라 주제 및 소주제의 내용과 수, 활동 기술 방식을 달리하였다. 한번의 담당 영아들간에 월령차가 클 경우, 교사가 월령이 낮은 영아, 높은 영아에게 적합한 상호작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라는 발바닥 기호를 사용하였다. 이는 영아의 개별적 발달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 영아의 발달특성이나 안전, 영양, 부모와의 협력 등 교사가 영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총론에 제시

총론인 '운영의 이해'에서는 영아반을 운영할 때 교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다양한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어 제시하였다. 즉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교사가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영아의 안전, 영양, 건강 및 부모와의 협력 등에 대한 내용, 영아반의 바람직한 환경구성, 일지작성, Q&A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교사들이 영아반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활동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우수한 삽화와 다수의 사진 제시

교사들이 활동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활동의 목표나 방식이 가장 잘 나타난 모습을 삽화로 제시하였고, 다수의 사진을 추가하여 활동 소개를 하고자 하였다.

I. 0~2세 영아보육 프로그램의 특징

■ 교사의 음원관련 활동 진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DVD로 개발

교사가 영아에게 음악을 들려주거나 간단한 동요나 전래 동요를 부르기 등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한 음원을 DVD로 제공하였다.

3.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의 구성 체계

2013년에 개정고시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개발된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은 총 8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첫권은 총론의 특성을 지닌 ‘운영의 이해’이고 0세가 2권, 1세가 2권, 2세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0~2세 프로그램 중 활동에 사용되는 음원만을 모아서 DVD 1종을 개발하였다. 각 권은 연간, 월간 및 주간보육계획안을 제시하고 활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활동 삽화와 사진을 다수 첨가하여 제시하였다.

■ 프로그램의 개발권수 및 내용과 DVD수

프로그램 종류	개발 권수	내용	DVD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 프로그램	운영의 이해	1권	영아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교사가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여 제시	활동에 제시된 음원 자료를 모아서 제시 1종류
	0세 프로그램	2권	0~12개월 영아를 위한 내용을 6개 주제로 제시	
	1세 프로그램	2권	13~24개월 영아를 위한 내용을 7개 주제로 제시	
	2세 프로그램	3권	25개월 이상 2세반 영아를 위한 내용을 총 9개 주제로 제시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



- 신체발달
- 인지발달
- 언어발달
- 사회·정서 발달

II.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

발달이란 인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적 또는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영아발달은 성장과 성숙, 학습의 세 과정이 끊임없이 함께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신생아기는 출생 후 약 한 달간이며 이후부터 2세까지는 영아기라고 정의한다. 영아기는 발달의 개인차가 매우 크고 개인 내 발달 영역 간 차이가 있으며 신체, 인지, 언어, 사회·정서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져 이후 발달의 광범위한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영아 발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아를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신체발달

1) 주요특성

영아기의 신체적 성장은 '성장 급등기'라고 불릴 만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 특히 출생 후 첫 1년간은 생애에 걸친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두뇌 발달에 결정적인 시기이며 새로운 운동기능과 감각능력이 빠르게 발달한다.

2) 신체적 성장

생후 1년 동안 영아는 빠른 신체적 성장으로 신장과 체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그 외에도 골격과 근육, 중추신경계 등의 신체 내부적 발달도 급속도로 이루어진다.

신체 각 부분의 상대적인 비율도 키와 몸무게의 증가와 함께 달라져 머리 크기는 출생 때에 몸 전체의 1/4이었던 것이, 1세가 되면 1/5로 줄어들게 된다.

3) 운동기능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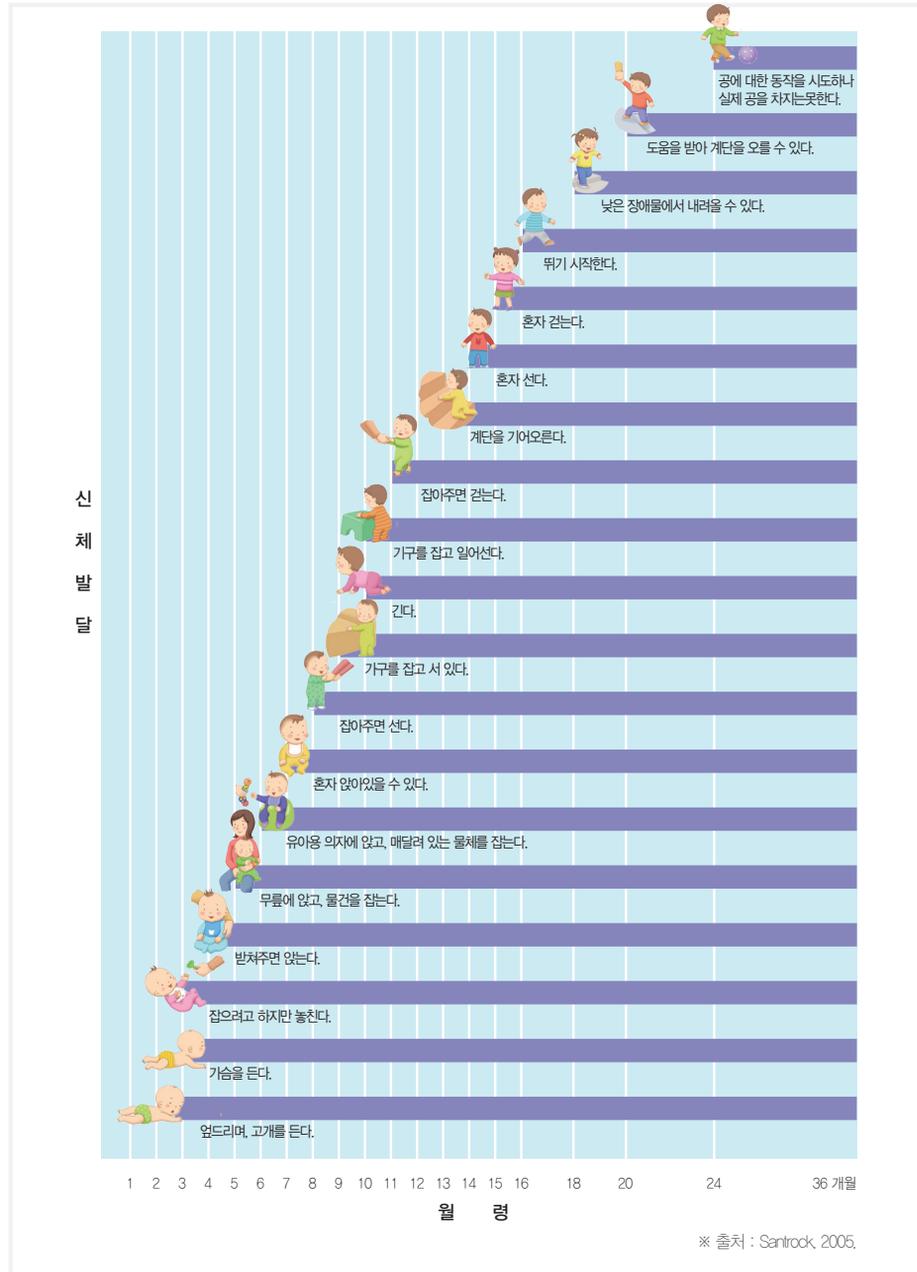
운동기능의 발달은 대부분 운동발달 순서와 시기는 비슷하지만 개인차가 있다. 운동발달 중 기기, 걷기, 뛰기, 달리기와 같은 움직임은 대근육 운동이 요구되는 것이고 손으로 물체를 쥐거나 붙잡고 조작하는 정교한 운동기술은 소근육 운동을 필요로 한다. 또한 운동 능력은 머리에서 다리, 몸통에서 몸의 말단으로, 전체적인 동작에서 세부적인 동작으로 발달한다.

4) 감각과 지각의 발달

영아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감각기관을 토대로 여러 가지 자극에 반응하는 감각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감각활동에 근거하여 지각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영아기는 감각운동발달의 기초가 되는 시기이므로 여러 가지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영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오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II.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

5) 신체발달 단계 총괄표



6) 신체발달 관련 표준보육과정의 세부내용과 교사의 역할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1~6 개월 (0~1세 1수준)	신체 운동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자극을 느낀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자극에 반응한다. 감각기관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손과 발 등을 바라보며 탐색한다.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한 자세를 시도한다. 뒤집기 등 몸을 조절하여 위치를 바꾼다. 보이는 물체에 손을 뻗는다. 배밀이 등 이동운동을 시도한다. 팔 다리 뻗기, 흔들기 등 제자리 운동을 시도한다. 몸을 활발히 움직인다. 규칙적으로 바깥환경을 경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는 적극적으로 자기 몸을 움직여 보려고 시도하므로 영아가 운동발달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배로 눕혀주면 머리, 어깨 등을 들려고 시도할 수 있다. 영아는 새롭게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는 기술을 연습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손이 닿는 곳에 건드릴 때마다 소리가 나거나 움직이고 돌아가는 놀잇감을 준비해준다. 영아는 놀잇감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여 잡는 기술을 발달시킨다. 영아가 접근해서 잡을 수 있도록 여러 크기의 딸랑이를 준비한다. 딸랑이를 줄 때 손에 가까이 주고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 가며 주어본다. 높이도 주어보고 멀리, 가까이에서도 준다. 영아는 반복해서 잡아보면서 손과 눈의 협응을 점점 발달시키게 된다. 새롭게 잡기기술을 연습하면서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증가한다. 아기용 체조 기구, 흔들리는 팔찌, 딸랑이 같은 놀잇감이 특히 영아에게 매력적이므로 제공하도록 한다.
	예술 경험	손발 흔들기와 몸 움직임으로 반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가 좋아하고 흥미를 보인다고 해서 지나친 자극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 영아는 높이 들어 올려 주면 웃고 좋아하지만 긴장이 오래 지속되면 곧 울게 된다. 영아가 즐거워하는 정도의 자극을 주도록 해야 한다. 앉기는 해도 쉽게 피로해지므로 위치를 자주 바꾸어주어야 한다. 마루를 발로 밀고 위아래로 뛰는 것을 좋아하므로 점프하는 의자 등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영아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사물을 두어 영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한다.

II.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7~12 개월 (0~1세 2수준)	신체 운동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자극을 느낀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자극에 반응한다. 감각기관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주요 신체 부분의 움직임을 탐색한다. 붙잡고 서 있기 등의 자세를 취한다. 누웠다가 앉기 등의 몸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활용해본다. 기기, 걷기 등 이동운동을 시도한다. 팔 다리 뻗기, 흔들기 등 제자리 운동을 시도한다. 몸을 활발히 움직인다. 규칙적으로 바깥환경을 경험한다.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시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는 여러 가지 위치에서 영아를 서거나 앉게 한다. 서는 법을 배우면 책상 위에 놓인감을 놓아주고 서서 가지고 놀 수 있게 한다. 이동성과 탐색행동이 보다 확장되는 시기이므로 운동적인 흥얼거림에 맞추어 신체적인 활동을 하거나 탁자 아래 통과하기 등 활발하게 움직일 기회를 준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집기, 뚜껑 맞추어 보기, 두드리 보기 등 주변의 용품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소근육 활동을 한다. 영아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매우 빨리 배우지만 연습하여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영아의 여러 가지 도전적 시도에 대한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손뼉을 치거나 양손에 물건을 잡고 두드리기, 구멍 안으로 집어넣기 등 소근육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충분히 반복할 수 있도록 자료와 환경을 마련해준다. 어떤 영아는 아주 잘 가지지만 다른 영아는 걷기도 하는 등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하지만 걷기 전에 기는 행동이 꼭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교사는 영아의 특정한 기질을 이해하여 적합한 활동을 시도해본다.
	예술 경험	손발 흔들기와 몸 움직임으로 반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도적으로 용기 안에 물건을 떨어뜨리는 놀이에 흥미를 보인다. 때론 식탁의자에 앉아서도 음식이나 놀잇감을 떨어뜨릴 때가 있으므로 이런 행동을 보일 때는 놀이로 전환하여 적절한 자료와 환경을 제공한다. 영아가 스스로 걷기 시작하면서 걷는 것에 열중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몸의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넘어지거나 다치기도 하고 앞에 장애물을 잘 넘지 못하므로 교사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13~18 개월 (0~1세 3수준)	신체 운동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자극을 느낀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자극에 반응한다. 감각기관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주요 신체 부분의 움직임을 탐색한다. 안정되게 서 있기 등의 자세를 시도한다. 누웠다가 앉기 등 몸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활용해본다. 걷기 등 이동운동을 시도한다. 서 있기, 앉기 등 제자리 운동을 시도한다. 몸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시도한다.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활동을 한다.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시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가 걸기를 원할 때 혼자 걷도록 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면 교사가 영아의 손을 잡아준다. 그리고 낮은 오르기 기구를 제공해준다. 영아가 손으로 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임을 한다. 영아가 물건을 던져 넣을 수 있는 통이나 공간 등을 준비해준다. 영아가 안전하게 손을 뻗어 잡거나 들어 올릴 수 있는 또는 움직일 수 있는 장소에 놀잇감이나 물건을 놓는다. 영아가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영아가 혼자 옷을 벗는 시도를 할 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준다.
	예술 경험	손발 흔들기와 몸 움직임으로 반응한다. 간단한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인다. 단순한 모방 행동을 놀이처럼 즐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가 혼자 옷을 벗는 시도를 할 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준다.

II.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19~24 개월 (0~1세 4수준)	신체 운동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자극을 느낀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자극에 반응한다. 감각기관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주요 신체 부분의 움직임을 탐색한다. 안정되게 서 있기 등의 자세를 시도한다. 누웠다 앉기 등 몸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활용해본다. 걷기 등 이동운동을 시도한다. 서 있기, 앉기 등 제자리 운동을 시도한다. 몸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시도한다.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활동을 한다.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시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놀잇감이 없는 영역을 만들고, 혹시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주의를 기울인다. 함께 앞으로, 뒤로, 옆으로 걷는놀이를 한다. 달리다가 멈출 수 있는 평평한 곳으로 달릴 공간을 제공한다. 만약 비탈이 있으면 영아가 달릴 때 가속이 붙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영아가 방안이나 실내에서 끌차나 바퀴 달린 놀잇감을 끌고 다닐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준다. 영아와 함께 물건을 통 안에 넣어보는 게임을 한다. 병 뚜껑을 열거나 놀잇감 나사를 돌리는 것을 보여준다.
	예술 경험	손발 흔들기와 몸 움직임으로 반응한다. 간단한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인다. 단순한 모방 행동을 놀이처럼 즐긴다.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25~30 개월 (2세 1수준)	신체 운동	다양한 감각적 차이에 반응한다. 감각기관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신체 각 부분의 명칭을 안다.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탐색한다. 안정된 자세를 취하려고 시도한다. 팔, 다리, 목, 허리 등 움직임을 조절한다.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조절해본다. 걸기, 계단 오르기 등 이동운동을 한다. 제자리에서 몸을 움직여본다.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본다.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활동을 한다.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어오르는 행동이 많이 나타나므로 안전한 자료를 선정하고 안전한 높이에 놓아주어 기어오를 수 있게 해준다. 넓고 안전한 곳에서 두발 모아 뛰기를 놀이처럼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큰 바구니나 빈 상자곽을 목표점으로 하고 털실공이나 고무공과 같은 것을 던질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준다.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노래를 불러주거나, 칭찬해주고 다시 시도하도록 격려해 준다. 단, 몇 초 동안만 서 있을 수 있다. 양치물과 치약 사용, 옷 입고 벗기, 손 씻기를 도와준다. 고체음식은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게 하고, 영아의 손에 알맞은 손가락과 쉽게 떼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예술 경험	노래나 리듬에 맞춰 몸으로 표현한다. 간단한 도구를 활용하여 몸으로 표현한다.	

0~2세 영아보육
프로그램
표준보육과정

0~2세 영아
보육과정
표준보육과정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운영 및 평가

영아를 위한 일상생활 운영

영아를 위한 적응기간 운영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II.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31~36 개월 (2세 2수준)	신체 운동	<p>다양한 감각적 차이에 반응한다.</p> <p>감각기관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p> <p>신체 각 부분의 명칭을 안다.</p> <p>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탐색한다.</p> <p>안정된 자세를 취하려고 시도한다.</p> <p>팔, 다리, 목, 허리 등 움직임을 조절한다.</p> <p>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조절해본다.</p> <p>걷기, 계단 오르기 등 이동운동을 한다.</p> <p>제자리에서 몸을 움직여본다.</p> <p>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본다.</p> <p>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활동을 한다.</p> <p>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에도 넉넉한 공간을 제공해주고, 달리기에도 적절한 게임이나 공간을 제공해준다. 점프를 격려해 주기 위한 게임을 하거나 노래를 불러준다. 옷을 입고 벗는 시간을 기다려 주고, 옷의 단추를 끼우고 빼는 방법, 지퍼 이용방법을 보여준다.
	예술 경험	<p>노래나 리듬에 맞춰 몸으로 표현한다.</p> <p>간단한 도구를 활용하여 몸으로 표현한다.</p>	

※ 보건복지부(2012. 1. 21).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

2. 인지발달

1) 주요특성

인지는 인간의 정신적 사고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생에서 2세까지 영아의 인지발달은 영아가 언어적인 기술을 획득하는 것처럼 사고와 추론 기술을 발달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인지적 성장은 영아기에 급속도로 이루어지는데 피아제는 인지발달 단계에서 영아기를 감각운동기로 명명하였다.

2) 피아제의 감각운동기

이 시기의 영아는 감각과 운동 간의 관계를 발견하고 이를 조절하는 것을 배운다. 감각운동기는 6개의 하위단계로 나뉜다(정옥분, 2012).

〈 Piaget 감각운동기의 하위 단계 〉

반사적 운동기(출생~약 1개월)
<p>빨기·잡기 등의 반사적 행동 양식을 나타낸다.</p> <p>(예: 입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빨려고 함)</p>



1차 순환 반응기(1~4개월)
<p>시각·청각적 변별 능력을 나타낸다.</p> <p>이전 단계의 반사적 행동에서 초보적 수준이지만 의도성을 띤 조절 행동으로 변화한다.</p> <p>행위 도중 우연히 흥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면 이를 반복하려고 한다.</p> <p>(예: 손가락을 빠는 것이 아주 재미있는 일)</p>



2차 순환 반응기(4~8개월)
<p>의도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시도한다.</p> <p>흥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며 반복하여 행동하기를 즐긴다.</p> <p>수단과 목적과의 관계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을 갖게 된다.</p> <p>(예: 우연히 딸랑이를 흔들어서 소리가 났을 경우, 영아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한 번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딸랑이를 흔드는 행위를 되풀이 하게 됨)</p>

II.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

2차 순환반응의 협응기(8~12개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을 사용한다.
수단과 목표를 구분한 의도적 행위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예: 영아가 자신이 원하는 놀잇감을 얻기 위해 방해물을 치움)



3차 순환 반응기(12~18개월)

새로운 결과를 위해 다양한 탐색 행동을 시도한다. 시행착오가 나타난다.
(예: 영아는 팔이 닿지 않을 경우 원하는 놀잇감을 갖기 위해 막대기를 사용하여 밀어보는 시도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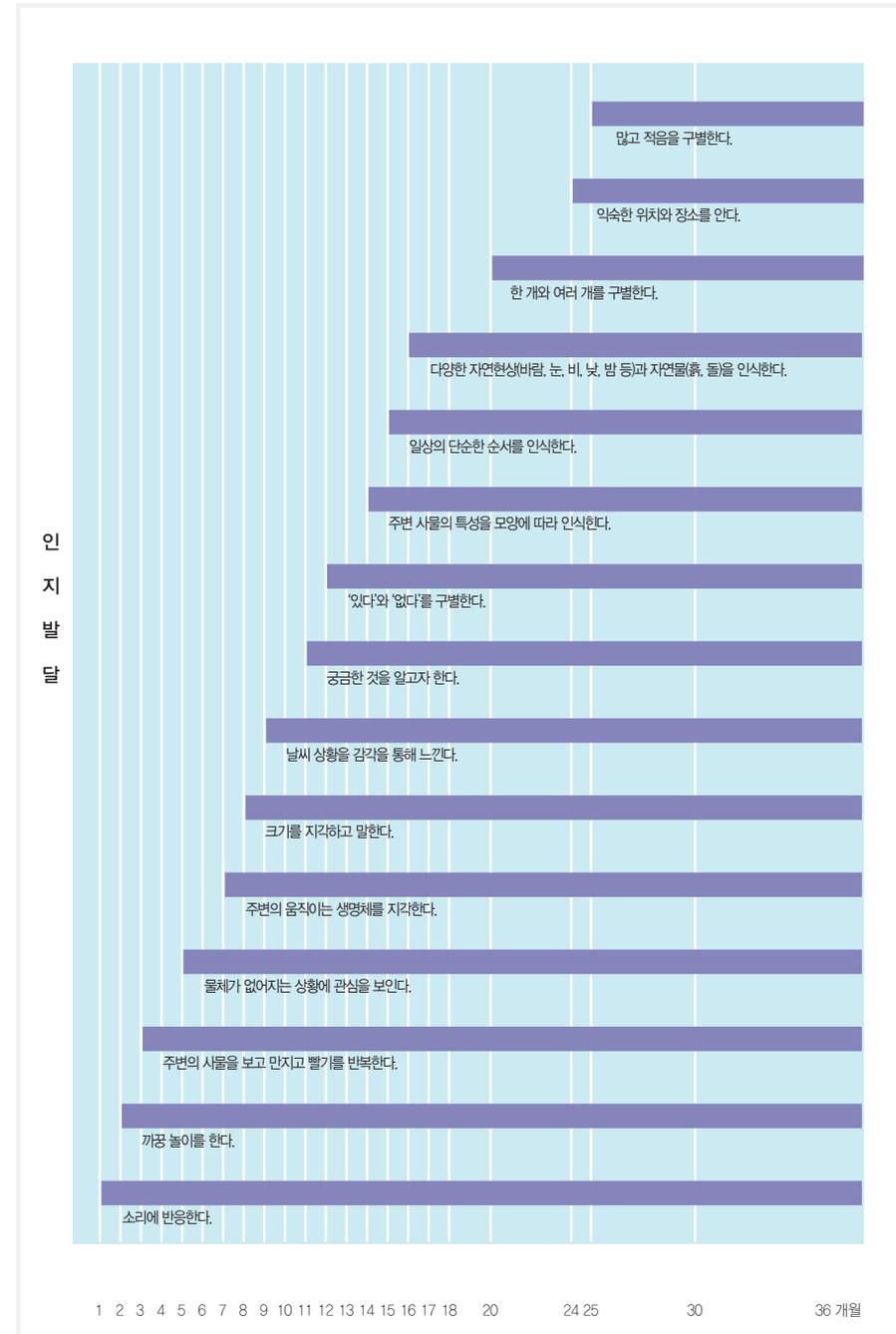
정신적 표상(18~24개월)

시행 착오를 거치지 않고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는 능력이 생긴다.
기초적인 상징 체계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지연 모방이 나타난다.
(예: 아버지가 세차하는 것을 형이 도와드리는 것을 목격한 영아가 그 다음날 걸레를 들고 자기 세발자전거를 닦는 시늉을 함)

3) 대상영속성

감각운동기에 획득하게 되는 중요한 능력중의 하나인 대상영속성은 사람이나 사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첫째, 자아는 주변 세계와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독립된 존재이며 둘째, 주변의 물체는 시야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감각운동기가 끝나는 2세 정도의 영아는 대상영속성 개념을 지니고 있다.

4) 인지발달단계 총괄표



5) 인지발달관련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과 교사의 역할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1~6 개월 (0~1세 1수준)	자연 탐구	나와 주변 사물을 감각으로 탐색한다. 주변 사물의 모양을 지각한다. 일상생활 주변의 몇 가지 친숙한 것들을 양육자와 함께 탐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잇감이나 자료는 영아가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영아가 놀잇감을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 영아의 시각발달을 위해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알맞은 거리에 사물을 두며 영아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것으로 준비한다.
	기본 생활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한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 차량 승하차 시 안전 장구를 착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영아를 자극함으로써 영아와 상호작용해 준다. 영아가 다양한 위치에서 움직이고 볼 수 있도록 여러 위치에서 손뼉을 쳐주는 등 영아가 머리를 들어 소리 위치를 볼 수 있게 한다.
	예술 경험	주변의 소리와 움직임에 호기심을 가진다. 주변의 환경에서 색, 모양에 호기심을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소리와 다른 소리 간의 차이를 구별하도록 소리들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들려준다. • 천정에 달려있는 사물, 게시판 등에 변화를 주어 영아가 새로 보는 것에 자극 받도록 한다. 얼굴, 디자인, 형태, 색 등에 선호를 나타내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환경을 구성해 주고 자주 변화를 준다. • 영아는 행동을 모방하는 광범위한 능력을 나타내므로 이 시기에는 교사가 영아와 마주 앉아 여러 가지 손동작을 해주는 것이 좋다. 초기의 모방은 얼굴 표정이나 말소리, 그리고 의사소통의 다른 측면들이 주로 많으나 6개월 경에는 다른 사람의 손동작도 모방한다. • 영아는 비교적 작고 자세한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동시에 여러 다른 사물로 노는 것을 즐기며 청각과 촉각, 시각 등 다양한 감각이 결합된 사물을 좋아한다. 다른 질감의 공, 누르면 큰 소리를 내는 고무로 된 놀잇감, 종소리가 나는 블록, 열쇠, 손가락 등을 좋아하므로 제공해주도록 한다.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7~12 개월 (0~1세 2수준)	자연 탐구	주변 사물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의 사물에 대해 의도적인 탐색을 시도한다. 있고 없는 상황을 지각한다. 도움을 받아 주변의 공간을 탐색한다. 주변 사물의 모양을 지각한다. 일상생활 주변의 몇 가지 친숙한 것들을 양육자와 함께 탐색한다. 생활 주변의 자연물을 감각으로 느껴본다. 바람, 햇빛, 비 등을 감각으로 느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숨겨진 사물에 대한 영아의 이해는 까꿍 놀이와 같은 게임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까꿍 놀이는 7~8개월 영아가 가장 재미있어하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영아가 눈앞에서 사라진 사물이 아주 가버린 것이 아니라 배우도록 하므로 교사가 함께 놀아 주도록 한다. • 교사는 영아와 사물을 사용하여 앞이나 뒤로 전달하면서 노는 사회적 게임들을 할 수 있다. • 영아는 친숙하지 않은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얼굴표정이나 목소리의 톤에서 변화를 알게 된다. 이 시기에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면 영아는 적어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게 된다. 교사는 영아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 말이나 표정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
	기본 생활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한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 차량 승하차 시 안전 장구를 착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이 있는 것에 보다 지속적으로 몰두하나, 똑같은 자극의 반복에는 싫증을 내게 되므로 다양한 놀잇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영아는 어떤 행동에 대한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하므로 적절하게 반응해준다.
	예술 경험	주변의 소리와 움직임에 호기심을 가진다. 주변의 환경에서 색, 모양에 호기심을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기대로 맞추는 고리끼우기나 포개기, 블록 쌓기 등을 할 수 있다. • 바깥에 자주 데리고 나가 사물을 경험하게 해준다. • 가족 모두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르며 쳐다본다. 사진을 보고 가족을 지적하기도 하므로 어린이집에 가족사진을 이용한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한다.

II.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13~18 개월 (0~1세 3수준)	자연 탐구	주변 사물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의 사물에 대해 의도적인 탐색을 시도한다. '있다'와 '없다'를 구별한다. 도움을 받아 주변의 공간을 탐색한다. 주변 사물의 모양을 지각한다. 주변 사물의 차이를 지각한다. 일상과 놀이에서 간단한 규칙성을 경험한다. 일상생활 주변의 몇 가지 친숙한 것들을 양육자와 함께 탐색한다. 주변 동식물의 모양, 소리, 움직임에 관심을 가진다. 생활 주변의 자연물을 감각으로 느껴본다. 바람, 햇빛, 비 등을 감각으로 느낀본다. 도움을 받아 생활도구를 탐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와 게임놀이를 한다. 영아가 보는 앞에서 물건을 숨기는 놀이를 한다. 담요 아래 다른 곳에 물체를 숨기고 영아에게 물어보고, 영아가 잘 보고 생각한 것에 대하여 칭찬해준다. • 한 가지 용도의 자료나 놀잇감보다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놀잇감을 제공한다. 영아가 이런 놀잇감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해 보도록 하고 질문해본다. • 영아가 시간을 두고 생각하여 조작해볼 수 있는 자료를 준다. 예를 들면 좁은 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도록 한다. 답을 말해주지 않고 영아에게 물어보거나 요청해본다. • 일상생활에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빨기) 등의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제공한다. • 영아들의 조작을 통해서 움직이거나 변화되는 놀잇감을 제공한다. • 영아들도 움직이는 곤충이나 떨어지는 나뭇잎, 열매 등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때 세밀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명체에 관심을 보이고 반응하도록 한다. • 산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줌으로써 바람, 햇빛, 비, 눈 등의 자연현상을 느끼고 즐길 수 있게 한다. • 비 소리, 바람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직접 경험하게 하거나 경험을 한 후에 사진자료를 함께 제시하면서 녹음된 소리를 들려준다.
	기본 생활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한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 차량 승하차 시 안전 장구를 착용한다.	
	예술 경험	주변의 소리와 움직임에 호기심을 가진다. 주변의 환경에서 색, 모양에 호기심을 가진다.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19~24 개월 (0~1세 4수준)	자연 탐구	주변 사물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의 사물에 대해 의도적인 탐색을 시도한다. '한 개'와 '여러 개'를 구별한다. 도움을 받아 주변의 공간을 탐색한다. 주변 사물의 모양을 지각한다. 주변 사물의 차이를 지각한다. 일상과 놀이에서 간단한 규칙성을 경험한다. 일상생활 주변의 몇 가지 친숙한 것들을 양육자와 함께 탐색한다. 주변 동식물의 모양, 소리, 움직임에 관심을 가진다. 생활 주변의 자연물을 감각으로 느껴본다. 바람, 햇빛, 비 등을 감각적으로 느낀다. 도움을 받아 생활도구를 탐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영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도록 돕는다. • 영아에게 물건을 생각해서 찾아보게 하거나 힌트를 듣고 찾아보게 한다. • 영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놀이가 주제에 맞게 유지되도록 도와준다. • 상징놀이나 모방놀이를 할 수 있도록 옷이나 소품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기본 생활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한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 차량 승하차 시 안전 장구를 착용한다.	
	예술 경험	주변의 소리와 움직임에 호기심을 가진다. 주변의 환경에서 색, 모양에 호기심을 가진다.	

II.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25~30 개월 (2세 1수준)	자연 탐구	주변 사물과 자연 세계에 호기심을 가진다. 관심 있는 사물을 반복하여 주도적으로 탐색하기를 즐긴다. 많고 적음을 구별한다. 두 개 가량의 수 이름을 말해본다. 구체물을 일대일로 대응해본다. 나를 중심으로 익숙한 위치, 장소를 인식한다. 주변 사물의 모양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사물의 크기(속성의 차이)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에서 단순하게 반복되는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사물의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친숙한 물체와 물질을 능동적으로 탐색한다. 주변 동식물의 모양, 소리, 움직임에 관심을 가진다. 돌, 물, 모래 등의 자연물을 탐색한다. 날씨를 감각으로 느낀다. 생활 속에서 간단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간단한 도구를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이나 모양이 비슷한 것을 모을 수 있으므로 영아 스스로 분류한다. 단어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므로 다르게 사용된 단어를 잘 듣고 무슨 뜻인지 물어본다. 사물의 명칭 분류를 시작하므로 사물의 분류를 따라 해보고 분명히 해준다. 영아가 붙인 다른 명칭에 사물을 포함시켜 확장시켜준다. '약간, 좀 더 많이, 없다, 크다' 등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물과 함께 크기나 양을 나타내는 단어를 이용한다. 영아가 사용하는 언어에 반응해주고 확장시켜준다. '지금, 곧'등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시간에 관련된 행동을 말로 옮긴다.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25~30 개월 (2세 1수준)	기본 생활	도구를 사용하여 스스로 먹는다. 일과에 따라 규칙적으로 잠을 잔다. 정해진 시간에 알맞게 휴식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정해진 곳에서 배변한다. 질병의 위험을 안다.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한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 교통수단의 위험을 안다.	
	예술 경험	주변 환경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와 움직임을 탐색한다. 주변 환경에서 색, 모양을 탐색한다.	
31~36 개월 (2세 2수준)	자연 탐구	주변 사물과 자연 세계에 호기심을 가진다. 관심 있는 사물을 반복하여 주도적으로 탐색하기를 즐긴다. 많고 적음을 구별한다. 세 개 가량의 구체물을 말하며 세어본다. 구체물을 일대일로 대응해본다. 나를 중심으로 익숙한 위치, 장소를 인식한다. 주변 사물의 모양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사물의 크기(속성의 차이)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에서 단순하게 반복되는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사물의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가 스스로 분류한 체계에 대해 영아의 설명을 들어본다. 영아가 사용한 이름과 성인과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의미를 물어본다. 일상생활에서 양에 관해 경험하도록 한다. 영아가 위치를 바꾸었을 때 공간에 관한 낱말을 사용해준다. 매일의 생활에서 '이것이 저것보다 더 많다'와 같은 비교하는 문장을 사용한다. 매일의 경험 안에서 시간에 관한 낱말을 사용한다. 영아가 사물의 여러 가지 속성을 탐색하고 비교하도록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접하는 사물에 대한 탐색을 허용한다. 탐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지켜봐 주어 탐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II.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31~36 개월 (2세 2수준)	자연 탐구	<p>친숙한 물체와 물질을 능동적으로 탐색한다.</p> <p>주변 동식물의 모양, 소리, 움직임에 관심을 가진다.</p> <p>돌, 물, 모래 등의 자연물을 탐색한다.</p> <p>날씨를 감각으로 느낀다.</p> <p>생활 속에서 간단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p> <p>간단한 도구를 사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반복되는 동작과 리듬을 인식하고 반복적인 규칙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 영아가 흥미를 보이는 그림책에 나타난 주인공의 특정 동작이나 의성어, 의태어를 통해서 간단한 규칙성을 경험하게 한다. 일상의 간단한 순서를 알고 지키도록 격려한다. 여러 가지 놀잇감(구슬 꿰기, 블록, 자연물, 자동차, 인형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수학활동을 하게 한다. 세어 보기, 모양 끼우기, 간단한 모양 맞추기, 점토놀이, 비교해 보기, 비슷한 것끼리 짝짓기 등의 활동을 통해 수학적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한다.
	기본 생활	<p>도구를 사용하여 스스로 먹는다.</p> <p>일과에 따라 규칙적으로 잠을 잔다.</p> <p>정해진 시간에 알맞게 휴식한다.</p> <p>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p> <p>화장실에서 배변한다.</p> <p>질병의 위험을 안다.</p> <p>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한다.</p> <p>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p> <p>교통수단의 위험을 알고 조심한다.</p> <p>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것을 알고 조심한다.</p>	
	예술 경험	<p>주변 환경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와 움직임을 탐색한다.</p> <p>주변 환경에서 색, 모양을 탐색한다.</p>	

3. 언어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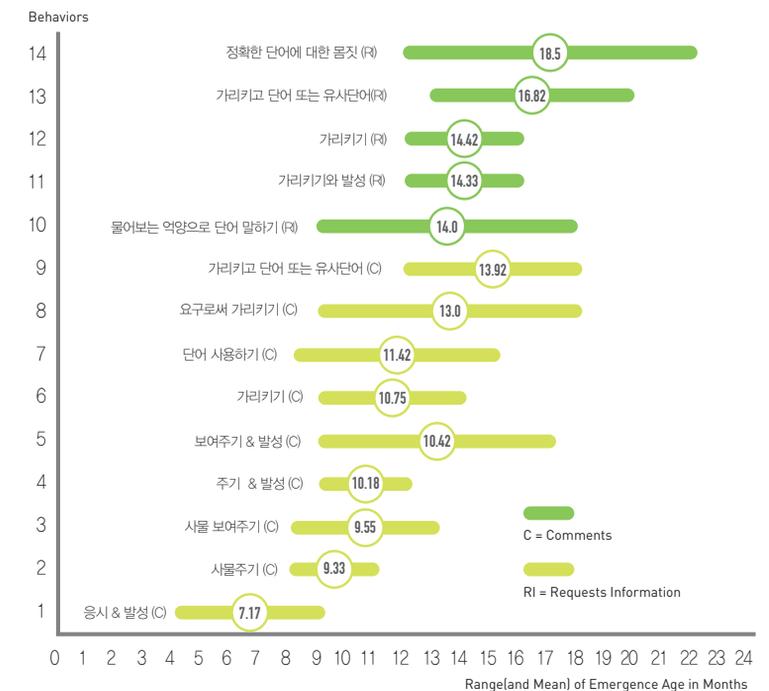
1) 주요 특성

영아가 세상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언어이다. 영아기의 언어발달은 울음소리의 분화로부터 시작되다가 웅얼이 등의 음성과 몸짓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주의집중과 더불어 한 단어, 두 단어, 문장을 구사하는 순서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특히, 영아기의 급속한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몸짓의 출현은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중요하다. 첫 단어가 나타나기 전부터 어휘 폭발이 있기 전까지의 영아기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과 기능은 영아의 어휘력 증진과 관계가 높으며 양육자가 이시기의 영아에게 사용하는 언어적 행동도 어휘력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영아의 비 언어적 의사소통 기능으로 주의환기를 위한 몸짓이 출현하는 시기를 나타낸 표는 다음과 같다.

[주의환기 몸짓의 출현]



* Crais, E., Douglas, D., & Campbell, C. C. (2004). The intersection of the development of gestures and intentionalit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 678-694.

II.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

2) 언어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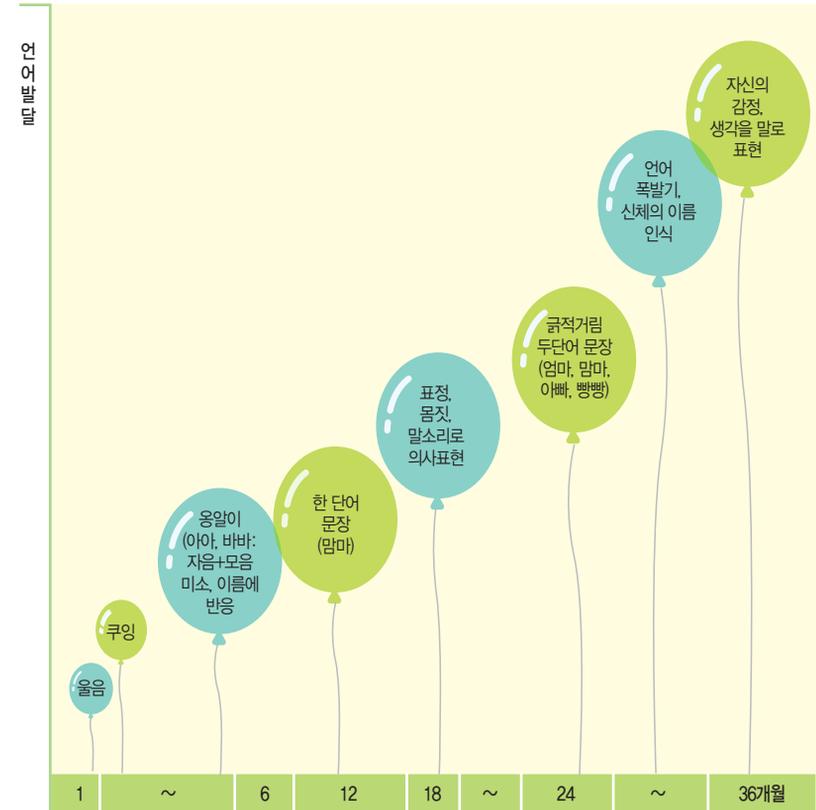
언어발달은 언어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와 규칙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과정으로 말소리, 글, 동작 등의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며 음성체계, 의미체계, 문법체계, 화용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언어발달의 단계

언어발달의 단계는 전 언어기(출생~1세), 한 단어 시기(1세~15개월), 두 단어 시기(18~24개월), 언어 폭발기로 발달된다. 언어발달의 과정은 생리적,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모든 영역의 발달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발달 단계	특징
전 언어기 (출생~1세)	전 언어기 행동에는 울음, 목을 울려 낮게 내는 소리인 쿠잉, '바바바바'와 같이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내는 웅얼이, 얼굴 표정, 그리고 몸짓이 있음.
한 단어 시기 (1세~15개월)	1세경이 되면 영아는 처음으로 유의미한 단어를 말할 수 있으며 단일 음절을 단어로 반복하는 특징을 보임. 이 시기의 단어는 단순히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문장의 기능을 수행하며 얼굴표정이나 몸짓 등의 행동표현을 수반함. 예를 들어 영아가 말하는 '엄마'라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 '엄마 이것봐', '엄마 이리 와' 등의 여러 의미를 포함하게 됨.
두 단어 시기 (18~24개월)	2세경이 되면 단일한 단어의 미분화된 사용이 둘 이상 단어들로 결합되기 시작한다. 또한 어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50~300개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 '엄마 맘마', '아빠 뽕뽕' 같이 두 개의 단어를 결합하여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의미 있게 표현 할 수 있음.

4) 언어발달단계 총괄표



0~2세 영아보육
프로그램
표준
내용

0~2세 영아
보육
내용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내용

영아를 위한 일상생활 운영
내용

영아를 위한 적응기간 운영
내용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II.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

5) 언어발달관련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과 교사의 역할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1~6 개월	의사 소통	<p>여러 가지 소리와 말소리 듣기에 흥미를 보인다.</p> <p>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에 반응한다.</p> <p>눈 앞에 보이는 경험과 관련된 말에 반응한다.</p> <p>운율이 있는 짧은 말소리를 관심 있게 듣는다.</p> <p>말하는 사람의 눈을 마주 바라본다.</p> <p>여러 가지 소리를 내고, 웅얼이를 한다.</p> <p>웅얼이와 말소리에 대해 말로 반응 해주면 모방하여 소리를 낸다.</p> <p>표정과 소리로 의사표현을 한다.</p> <p>말할 순서에 따라 표정, 몸짓, 말소리로 반응한다.</p> <p>다양한 감각 책을 탐색해 본다.</p> <p>읽어주는 짧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는 얼굴 표정이나 신체언어, 행동 등을 통해 영아와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영아가 원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좋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아에게 말을 해준다. 여러 가지 목소리의 크기, 높낮이, 부드럽거나 큰소리, 웃는 소리 등을 사용한다. 놀잇감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반응해 주는 것에 가장 흥미를 보인다. 그러므로 이때 교사가 웅얼이 소리를 모방해주면 영아의 웅얼이도 크기나 강도가 증가한다. 교사는 영아가 부를 때 반응해 줌으로써 영아에게 언어의 사용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 비록 5개월 영아의 말소리 같은 웅얼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아는 자신의 의도대로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 교사를 부르는 방법과 되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발견한다. 보다 다양한 자음을 발성하며 음높이나 음양이 다양해지고 발성 빈도가 많아지며, 기쁨과 실망 등 영아의 정서 상태가 소리로 표현되므로 영아의 표현에 맞게 반응해준다.
(0~1세 1수준)	예술 경험	<p>리듬 있는 소리에 관심을 가진다.</p> <p>리듬과 노래에 소리로 반응한다.</p>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7~12 개월	의사 소통	<p>여러 가지 소리와 말소리 듣기에 흥미를 보인다.</p> <p>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에 반응한다.</p> <p>눈 앞에 보이는 경험과 관련된 말에 반응한다.</p> <p>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듣고 반응한다.</p> <p>운율이 있는 짧은 말소리를 관심 있게 듣는다.</p> <p>말하는 사람의 눈을 마주 바라본다.</p> <p>여러 가지 소리를 내고, 웅얼이를 한다.</p> <p>웅얼이와 말소리에 대해 말로 반응 해주면 모방하여 소리를 낸다.</p> <p>표정, 몸짓, 소리로 의사표현을 한다.</p> <p>말할 순서에 따라 표정, 몸짓, 말소리로 반응한다.</p> <p>다양한 감각 책을 탐색해본다.</p> <p>읽어주는 짧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진다.</p> <p>끼적끼기에 관심을 가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가지 특정한 웅얼이를 발견하면 그것을 며칠 지속하다 또다시 새로운 것을 발음하게 되는데 교사는 영아의 변화에 민감하게 관찰하여 반응해준다. 교사가 말해주는 것을 좋아하므로 언어적 상호작용을 많이 해준다. 가끔씩은 옆에서 말해주기만 해도 1시간이나 그 이상도 혼자 노는데 만족하게 된다. 영아가 자기 이름을 인식하는 능력을 갖는 때이다. 말할 때나 노래를 부를 때 영아의 이름을 많이 넣어주도록 한다.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있는 놀잇감들을 선택하고 가능하면 영아에게 놀잇감의 이름을 말로 해주는 것이 좋다. 책에 대한 선호도가 생기므로 영아가 여러 종류의 책을 접할 수 있게 한다. 한쪽에 한 가지 그림이 있는 것이 새로운 단어를 익히는데 좋으며 그림과 같이 짧은 운율이 있는 것도 좋다. 영아의 표현적 어휘가 생기는 시기이다. 영아가 배우는 첫 단어는 주로 영아에게 친숙한 사람이나 동물의 이름이거나 친숙한 행동과 관련된 단어이다. 영아가 주변 사물에 대한 어휘를 발달시켜가도록 교사는 분명하게 언어적 표현을 해주도록 한다. 이 시기에 영아는 아주 특수한 메시지로 의사소통 할 수 있다. 그러나 늘 같이 있는 부모나 교사가 이러한 변화를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아가 보내는 몸짓이나 표정의 싸인에 민감해야 한다.
(0~1세 2수준)	기본 생활	<p>위험하다는 말에 반응을 보인다.</p>	
	예술 경험	<p>리듬 있는 소리에 관심을 가진다.</p> <p>리듬과 노래에 소리로 반응한다.</p>	

II.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13~18 개월	의사 소통	<p>여러 가지 소리와 말소리 듣기에 흥미를 보인다.</p> <p>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에 반응한다.</p> <p>높낮이와 세기 등 말소리의 차이에 반응한다.</p> <p>눈 앞에 보이는 경험과 관련된 말에 반응한다.</p> <p>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듣고 반응한다.</p> <p>운율이 있는 짧은 말소리를 관심 있게 듣는다.</p> <p>말하는 사람의 표정, 몸짓을 관심 있게 본다.</p> <p>여러 말소리를 즐겁게 내본다.</p> <p>의미 있는 음절을 내본다.</p> <p>교사의 말을 모방하여 발음한다.</p> <p>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표현을 한다.</p> <p>말할 순서에 따라 표정, 몸짓, 말소리로 반응한다.</p> <p>다양한 감각 책을 탐색해본다.</p> <p>사물과 주변의 친숙한 환경인쇄물에 관심을 가진다.</p> <p>읽어주는 짧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진다.</p> <p>끼적이지기에 관심을 가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에게 단어를 반복해주고 때때로 문장으로 확장해준다. • 영아의 말과 행동에 익숙해 져야 한다. 종종 영아가 하는 말을 추측하고 교사가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영아에게 다시 물어본다. • 영아에게 간단한 요청이나 질문들을 자주 사용해본다. 영아는 그러한 요청이나 질문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점차 이해하게 될 것이다. • 영아에게 친숙한 그림이나 사진의 이름을 가리켜 보거나 말해보게 한다. • 그릴 수 있는 재료를 주고 그리게 한다. 영아가 그린 그림에 영아의 이름과 영아의 표현을 써준다.
(0~1세 3수준)	기본 생활	<p>배변 의사를 표현한다.</p> <p>위험하다고 알려주면 주의한다.</p>	
	예술 경험	<p>리듬과 음높이에 맞추어 소리를 낸다.</p> <p>노래를 부분적으로 따라 부른다.</p>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19~24 개월	의사 소통	<p>친숙한 낱말의 발음에 흥미를 보인다.</p> <p>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에 반응한다.</p> <p>높낮이와 세기 등 말소리의 차이에 반응한다.</p> <p>눈 앞에 보이는 경험과 관련된 말에 반응한다.</p> <p>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듣고 반응한다.</p> <p>운율이 있는 짧은 말소리를 관심 있게 듣는다.</p> <p>말하는 사람의 표정, 몸짓을 관심 있게 본다.</p> <p>여러 말소리를 즐겁게 내본다.</p> <p>의미 있는 음절을 내본다.</p> <p>교사의 말을 모방하여 발음한다.</p> <p>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표현을 한다.</p> <p>말할 순서에 따라 표정, 몸짓, 말소리로 반응한다.</p> <p>다양한 감각 책을 탐색해본다.</p> <p>사물과 주변의 친숙한 환경인쇄물에 관심을 가진다.</p> <p>읽어주는 짧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진다.</p> <p>끼적이지기에 관심을 가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주변세계의 행동이나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름을 말하거나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 사물의 이름만을 이야기할 때 문장으로 확장하도록 한다. • 그림을 보여주거나 책을 읽으면서 게임을 한다. • 인사말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돕는다. 교사가 영아에게 “~해줄래?”, “고맙다”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 영아의 끊임없는 질문에 잘 대답해 준다. 이것은 영아가 사물에 대한 것과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 간단한 지시를 해 보고 영아가 적절히 수행했을 때 칭찬해준다. • 영아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운율을 살려 들려준다.
(0~1세 4수준)	기본 생활	<p>배변 의사를 표현한다.</p> <p>위험하다고 알려주면 주의한다.</p>	
	예술 경험	<p>리듬과 음높이에 맞추어 소리를 낸다.</p> <p>노래를 부분적으로 따라 부른다.</p>	

II.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

0~2세 영아보육
프로그램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
영아를 위한
표준화된
교과·운영
및 평가
영아를 위한
표준화된
운영
영아를 위한
적용기간
운영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25~30 개월 (2세 1수준)	의사 소통	<p>친숙한 낱말의 발음에 흥미를 보인다.</p> <p>다양한 말소리의 차이를 구분한다.</p> <p>낱말을 듣고 친숙한 사물과 사람을 찾아본다.</p> <p>친숙한 짧은 문장을 듣고 반응한다.</p> <p>짧은 이야기와 노랫말 등을 즐겁게 듣는다.</p> <p>말하는 사람의 표정, 몸짓, 억양 등을 주의 깊게 보고 듣는다.</p> <p>눈앞에 보이는 친숙한 사물의 이름을 발음해본다.</p> <p>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새로운 낱말에 관심을 가진다.</p> <p>일상생활의 반복적인 일이나 친숙한 상황을 한 두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으로 말해본다.</p> <p>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표현을 한다.</p> <p>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두 낱말로 말해본다.</p> <p>말할 순서에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을 주고 받는다.</p> <p>그림책과 환경인쇄물에 있는 그림과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p> <p>친숙한 그림과 환경인쇄물을 보고 읽는 흥미를 내본다.</p> <p>선호하는 그림책들을 읽어주면 집중하여 듣는다.</p> <p>의도적으로 끼적인다.</p> <p>자기 이름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을 가리키면서 이름을 부른다. • 속성을 사용하여 명칭과 명칭을 조합한다. • 행동어를 사용하므로 영아의 행동을 밝히서 지적해준다. • 반복어를 사용하므로 반복을 의미하는 단어들 사용한다. • 부정어를 사용하므로 행동과 함께 '안돼, ~하지마'라는 말을 사용하고, 이때 그 이유를 설명한다. • 문장으로 말할 수 있으므로 말할 때 억양을 잘 넣어 표현하여 영아가 모방하게 한다. • 주어와 동사, 목적어와 동사 등을 사용하여 완성된 문장을 말하고 문장을 확장시켜준다. • 크레용, 분필, 칠판, 종이와 같은 자료와 공간을 제공하고, 영아와 함께 긁적거리를 한다. 또 영아의 긁적거리에 명칭을 써주고 메모를 해준다.
	예술 경험	<p>신체, 사물, 리듬악기 등을 이용하여 간단한 리듬과 소리를 만든다.</p> <p>친근한 노래를 따라 부른다.</p>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31~36 개월 (2세 2수준)	의사 소통	<p>친숙한 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p> <p>다양한 말소리의 차이를 구분한다.</p> <p>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낱말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p> <p>친숙한 짧은 문장을 듣고 반응한다.</p> <p>짧은 이야기와 노랫말 등을 즐겁게 듣는다.</p> <p>말하는 사람의 표정, 몸짓, 억양 등을 주의 깊게 보고 듣는다.</p> <p>친숙한 낱말을 발음해본다.</p> <p>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새로운 낱말에 관심을 가진다.</p> <p>일상생활의 반복적인 일이나 친숙한 상황을 한 두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으로 말해본다.</p> <p>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표현을 한다.</p> <p>자신이 원하는 것을 낱말이나 짧은 문장으로 말해본다.</p> <p>말할 순서에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을 주고 받는다.</p> <p>그림책과 환경 인쇄물에 있는 그림과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p> <p>친숙한 그림과 환경 인쇄물을 보고 읽는 흥미를 내본다.</p> <p>선호하는 그림책들을 읽어주면 집중하여 듣는다.</p> <p>의도적으로 끼적인다.</p> <p>자기 이름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사물을 보고 느끼고 사용하도록 제시해 주고, 사물과 행동을 한 단어씩 명칭을 붙이고 문장으로 사용해준다. • 적절한 단어 순서를 사용하여 영아의 문장을 반복해준다. • 영아가 사용한 의미에 응답해주고, 그가 사용한 문장과 생각을 확장시켜준다. 또 영아의 의미에 반응을 하고 영아의 생각에 대해 질문한다. • 영아가 실수했을 때 단어의 복수형태와 과거 문장을 올바르게 고쳐주고 다시 말해준다. • 크게 읽어주고, 영아가 읽을 때 잘 들어준다. 성대모사를 해 가면서 재미있게 읽어준다. • 글씨를 써 주거나 사물에 적당한 이름을 붙인다. 때때로 영아가 불러주는 대로 써준다.
	예술 경험	<p>신체, 사물, 리듬악기 등을 이용하여 간단한 리듬과 소리를 만든다.</p> <p>친근한 노래를 따라 부른다.</p>	

4. 사회·정서 발달

1) 주요 특성

영아는 태어나면서 기본적인 정서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아직은 미분화된 상태이며 영아기를 거치면서 점차 분화된 정서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영아는 출생 직후부터 각기 다른 기질적 특성을 보이며 영아와 양육자(주로 어머니) 간에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인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애착은 영아기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발달이다.

2) 정서

갓 태어난 신생아의 정서는 미분화된 흥분 상태이나 생후 2개월이 되면 쾌와 불쾌의 두 갈래로 분화되기 시작하여 5~6개월이 되면 불쾌의 감정은 분노, 슬픔, 공포의 감정으로 나누어지나 쾌의 감정은 1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로 지속된다. 성장하면서 점차 다양한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게 되며 2세경이 되면 아직 미숙하지만 성인이 보이는 거의 모든 정서를 다 나타내게 된다. 이후 타인의 정서 상태를 추론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절하게 정서 표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된다.



3) 기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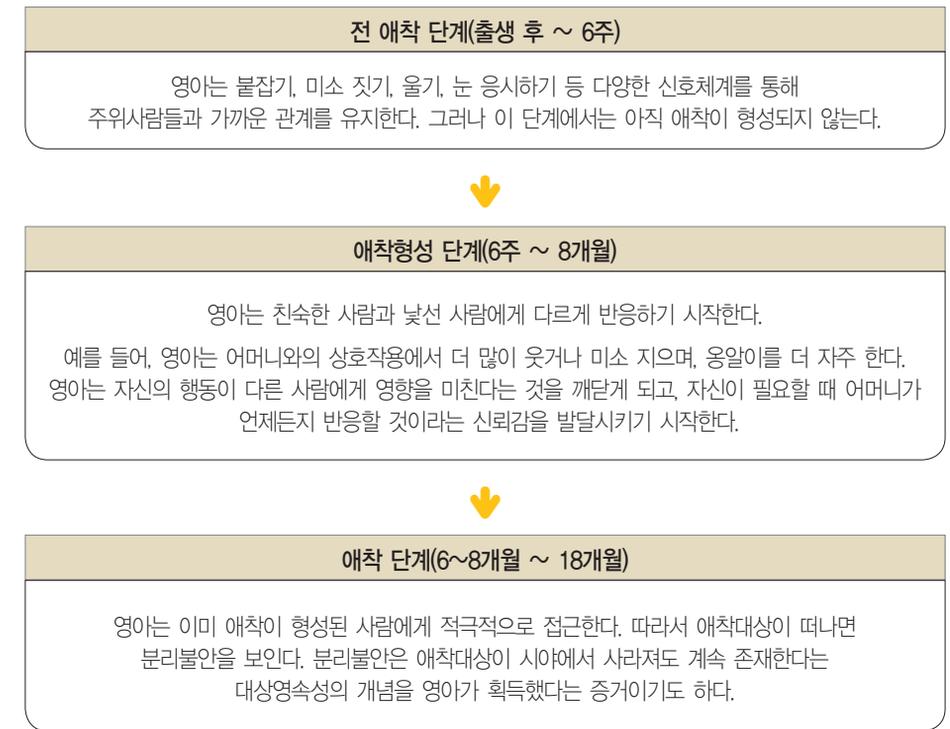
기질이란 한 개인의 행동양식과 정서적 반응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활동수준, 사회성, 과민성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영아는 출생 직후부터 각기 다른 기질적



특성을 보인다. 즉, 어떤 영아는 조용하고 행동이 느린 반면, 어떤 영아는 활기차고 행동이 민첩하다. 기질 연구가들은 영아기의 기질을 형성하는 심리적 특성이 성인기 성격의 토대가 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영아의 이상적 발달을 위해서는 영아의 기질과 조화를 이루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요하다.

4) 애착

영아기에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형태의 사회적 발달이 애착이다. 애착이란 영아와 양육자 간에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으로, 초기에 양육자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였느냐에 따라 안정 애착을 형성하기도 하며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기도 한다. Bowlby(1973)는 영아의 발달단계와 관련하여 애착의 발달을 전 애착 단계, 애착형성 단계, 애착 단계, 상호관계의 형성 단계라는 네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정옥분, 2012).



II.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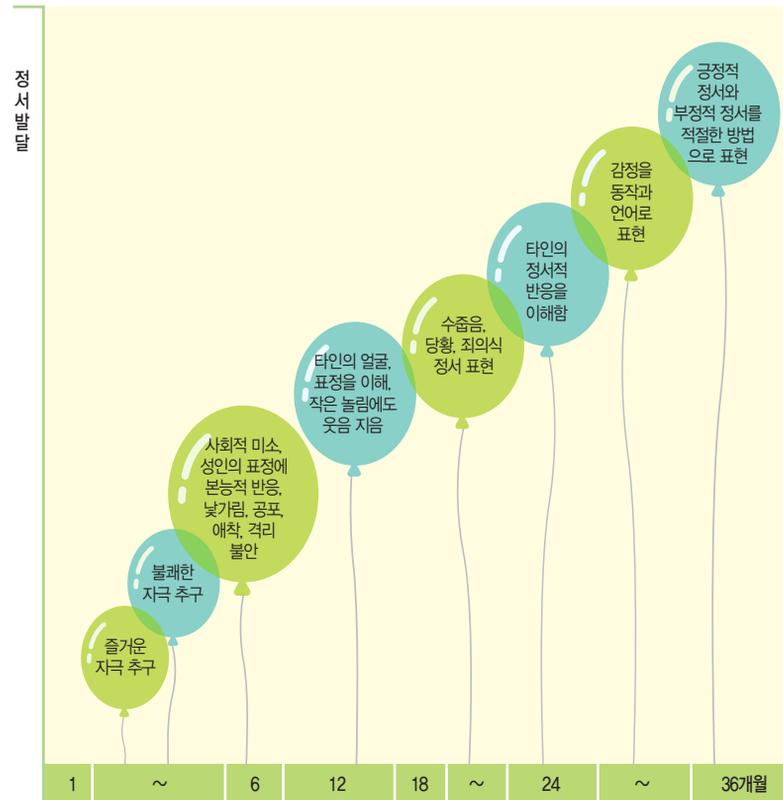
상호관계의 형성 단계(18개월 ~ 2세)

2세 말경이 되면 영아는 정신적 표상과 언어발달로 인해 이미 애착을 형성한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에서 영아는 양육자와 협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의 행동을 수정하고자 한다.

5) 사회적 관계

생애에서 영아가 최초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는 부모이다. 부모는 영아의 사회화 과정을 이끌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영아에게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발달시켜 주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달하도록 한다. 영아는 성장함에 따라 부모 외에 형제나 또래와도 관계를 형성하면서 상호작용하게 된다.

6) 사회·정서 발달단계 총괄표



7) 사회·정서 발달관련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과 교사의 역할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1~6개월 (0~1세 1수준)	사회 관계	거울 속의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한다.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낸다. 다른 사람의 말과 표정, 몸짓에 주의를 기울인다. 양육자와 시선을 맞춘다. 주변의 친숙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인식한다. 다른 영아와 함께 지내는 것을 경험한다. 담임교사를 구별한다. 만나고 헤어지는 인사를 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는 비록 3개월인 영아라도 사회적인 존재로 대해주어야 한다. 관심에 반응하고, 모방놀이에 즐거워하며 적극적으로 발생하는 것 등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요구와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시이다. 이시기에는 서로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웃어주면 영아도 따라서 웅얼이 소리를 내며 웃는다. 친숙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전의 유대감 이상으로 친밀하고 가까워지도록 한다. 영아를 아기의자나 침대에 내려놓을 때에 교사는 웃어주며 눈맞추기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되도록 영아가 편안하고 만족스러울 때 내려놓는 것이 좋다. 이러한 태도에서 영아는 교사의 얼굴 표정을 읽을 수 있고, 침대나 아기의자 안에서도 교사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6개월 영아는 매우 사회적이어서 형제나 다른 영아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므로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7~12개월 (0~1세 2수준)	사회 관계	거울 속의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한다.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낸다. 다른 사람의 말과 표정, 몸짓에 주의를 기울인다. 양육자에게 적극적으로 관심과 욕구를 표현한다. 주변의 친숙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인식한다. 다른 영아와 함께 지내는 것을 경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는 다른 어른들이 노는 모습을 보는 것을 즐거워한다. 영아가 비슷한 연령의 영아는 물론 다른 나이의 아동과도 놀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한다. 주양육자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며,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심을 나타내므로 긴밀한 일대일 상호작용을 통하여 안정감을 준다. 다른 영아에 대하여 매우 반응적이고 놀이활동에 적극적이므로, 다양한 놀이감을 제공하고 또래들이 놀이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승인이나 비난에 민감하며 자아존중감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주 주도록 한다.
	기본 생활	몸이 깨끗해졌을 때 기분이 좋을 줄 안다. 도움을 받아 손을 씻는다. 즐겁게 먹는다. 편안하게 쉰다. 하루 일과에 편안하게 참여한다.	

II.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7~12 개월	사회 관계	담임교사를 구별한다. 만나고 헤어지는 인사를 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옆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놀아주기를 요구한다. 영아가 재미있어 하는 놀이를 개별적으로 시간을 갖고 자주 해주도록 한다.
(0~1세 2수준)	기본 생활	몸이 깨끗해졌을 때 기분이 좋음을 안다. 도움을 받아 손을 씻는다. 도움을 받아 이를 닦는다. 즐겁게 먹는다. 편안하게 쉰다. 하루 일과에 편안하게 참여한다.	
13~18 개월	사회 관계	거울 속의 나를 알아본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한다. 친숙한 자기 물건을 안다.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낸다.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양육자에게 적극적으로 관심 및 욕구를 표현한다. 주변의 친숙한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한다. 다른 영아와 함께 지내는 것을 경험한다. 자기 반에서 지내며 안정감을 가진다. 친숙한 물건의 자리를 안다. 만나고 헤어지는 인사를 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에 관심과 반응을 보이므로 일관된 정서표현을 보여주어야 한다. 영아는 낯선 상황이나 장소에 공포감을 느끼므로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경험을 접할 때는 반드시 소개를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영아 앞에 갑자기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또한 영아도 자신의 느낌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애정적 표현을 받아주면서 교사도 영아에게 애정적 표현을 다시 해준다. 영아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행동할 때에는 가능한 선택을 하도록 분명하게 제시해준다. 만져주고, 인아주고, 쓰다듬어 준다. 영아의 요구에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반응해준다.
(0~1세 3수준)	기본 생활	몸이 깨끗해졌을 때 기분이 좋음을 안다. 도움을 받아 손을 씻는다. 도움을 받아 이를 닦는다. 즐겁게 먹는다. 편안하게 쉰다. 하루 일과에 편안하게 참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 스스로 활동을 시도하도록 격려한다. 영아는 옹고 그름에 대하여 아주 초기단계로 배우기 시작한다. 영아가 주의를 끌기 위해 하는 행동을 알아차려서 이러한 행동을 할 때 빨리 반응해준다.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19~24 개월	사회 관계	거울 속의 나를 알아본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한다. 친숙한 자기 물건을 안다.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낸다.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양육자에게 적극적으로 관심과 욕구를 표현한다. 주변의 친숙한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한다. 다른 영아와 함께 지내는 것을 경험한다. 자기 반에서 지내며 안정감을 가진다. 친숙한 물건의 자리를 안다. 만나고 헤어지는 인사를 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가 다른 친구나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필요할 때 꾸준히 도움을 주어야 한다. 영아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도움을 찾을 때 칭찬해준다. 영아가 교사나 친구들을 쳐다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영아의 행동이 긍정적일 때 영아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인정해준다. 공격적인 행동에 대하여 옆에서 주의를 주고, 기억하도록 한다. 때때로 공격성이 일어났던 상황에서 영아를 분리시키거나 사물일 경우 치워준다. 영아가 수줍어 할 때 그대로 놔둔다. 그리고 영아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관찰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도와준다. 영아 자신이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영아의 반응이 거부적이더라도 교사는 영아에 대해 지속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도록 한다.
(0~1세 4수준)	기본 생활	몸이 깨끗해졌을 때 기분이 좋음을 안다. 도움을 받아 손을 씻는다. 도움을 받아 이를 닦는다. 즐겁게 먹는다. 편안하게 쉰다. 하루 일과에 편안하게 참여한다.	
25~30 (개월)	사회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구별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본다. 좋아하는 놀이나 놀잇감을 선택해 본다. 여러 가지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므로 자신이 만족을 느끼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나 교구를 선택하도록 하고, 도전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독립성을 나타내므로 가능한 많은 과제를 아동 스스로 성취하도록 기다려주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도와준다.
(2세 1수준)			

II.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25~30 (개월) (2세 1수준)	사회 관계	<p>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감정에 반응을 보인다.</p> <p>내 가족에게 애정을 표현한다.</p> <p>또래에게 관심을 보인다.</p> <p>또래의 이름을 안다.</p> <p>자신이 속한 반과 교사를 안다.</p> <p>도움 받아 물건을 정리한다.</p> <p>자기 순서를 안다.</p> <p>바른 태도로 인사한다.</p> <p>간단한 약속을 지킨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므로 영아에게 언어적, 비언어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타인에 대한 감정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영아에게 감정을 보여주고, 각 감정에 적절한 행동을 보여준다. 교사는 영아의 기질을 파악한 후 영아 특징에 적합한 방법을 모색한다. 타인의 정서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영아의 행동을 언어로 표현해 주고 타인의 느낌에 대해 언어로 표현한다. 행동에 적절한 반응을 제공하고, 아동이 타인의 정서를 이해할 때 칭찬한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므로 영아의 소유와 타인의 소유를 확인시켜준다. 현재 사용하고 있을 때는 '나의 것'이다.
	기본 생활	<p>스스로 손과 몸 씻기를 시도한다.</p> <p>스스로 이 닦기를 시도한다.</p>	
	예술 경험	<p>자신과 또래가 표현한 노래, 춤, 미술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즐긴다.</p>	

연령 (수준)	영역	표준보육과정 세부내용	교사의 역할
31~36 (개월) (2세 2수준)	사회 관계	<p>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구별한다.</p> <p>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본다.</p> <p>스스로 선택한 놀이나 놀잇감을 즐긴다.</p> <p>여러 가지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낸다.</p> <p>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감정에 반응을 보인다.</p> <p>내 가족에게 다른 사람과는 구별된 특별한 감정을 갖는다.</p> <p>또래의 모습과 행동을 모방한다.</p> <p>또래가 있는 곳에서 놀이를 한다.</p> <p>자신이 속한 반의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p> <p>스스로 물건을 정리한다.</p> <p>순서를 기다린다.</p> <p>바른 태도로 인사한다.</p> <p>간단한 약속을 지킨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의 반응을 수용해 주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한도 내에서 반응하도록 도와준다. 부정적으로 행동할 때 다른 활동에 흥미를 갖도록 자극하고, 다른 말로 표현해준다. 영아의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강화시켜 주고, 모험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기술을 숙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놀잇감, 도구, 놀이자료들을 제공해준다. 자신의 감정을 발산시키거나 통제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준다. 소유에 매우 민감하므로 모든 영아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놀잇감과 자료를 제공한다. 영아가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통제력을 발휘할 기회를 준다. 협동 할 수 있도록 놀잇감, 자료, 시간을 제공한다. 기다림을 배우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기회를 활용해본다.
	기본 생활	<p>스스로 손과 몸 씻기를 시도한다.</p> <p>스스로 이 닦기를 시도한다.</p>	
	예술 경험	<p>자신과 또래가 표현한 노래, 춤, 미술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즐긴다.</p>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 · 운영 및 평가



- 영아를 위한 보육계획의 수립과 운영
- 영아를 위한 보육환경의 구성
- 탐색 및 놀이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과정 평가

Ⅲ.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운영 및 평가

1. 영아를 위한 보육계획의 수립과 운영

영아를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령별·수준별 보육목표와 내용을 근거로 발달에 적합한 주제와 활동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영아반 교사는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연령별, 또는 반별로 연간 보육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월간 또는 주간보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영아를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보육교사로서 다음의 준비사항을 스스로 점검해본다.

영아반 보육계획 수립 시 사전 점검사항	예	아니오
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령별·수준별 보육목표와 내용을 알고 있다.		
나는 우리 반 영아의 발달특성과 흥미, 관심, 개인차 등을 파악하고 있다.		
나는 내가 맡은 반 영아보다 어린 연령 또는 다음 연령 영아의 보육목표와 내용도 알고 있다.		
나는 영아반 보육계획 수립 시 놀이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적 양육활동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영아반 연간보육계획의 수립 원리

영아반 연간보육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영아반 연간보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1년 동안 해당 영아가 달성해야 할 보육 목표와 내용을 주제로 묶어 제시한다.
- 영아를 위한 연간보육계획의 주제는 영아의 발달 특성과 흥미에 기초하여 선정하되, 표준보육과정의 전 영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주제는 동일 연령 내에서,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아에게 친숙하고 구체적이며 자주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점차 추상적이고 멀어진 환경에 대한 주제가 포함되도록 한다.
- 0세는 월령에 따라 발달적 차이가 크고 일상적 양육활동이 놀이활동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0세를 위한 연간주제는 0세의 발달특성과 발달과업을 중심으로 세상에 대한 호기심, 애착을 보이는 사람과 사물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한다. 이때 1세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한다.
- 1세는 일상적 양육활동과 함께 0세에 비해 놀이활동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1세를 위한 연간주제는 1세의 발달특성과 발달과업, 적응, 계절, 어린이집이나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되, 0세 및 2세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2세는 0~1세에 비해 일상적 양육활동과 함께 놀이활동의 비중이 커진다. 따라서 2세를 위한 연간주제는 2세의 발달특성을 반영하여 어린이집-나-가족-친구로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동시에 계절의 변화, 흥미와 관심 등을 반영하는 주제를 선정한다.
- 혼합연령반은 혼합된 두 연령 모두를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수준 차이는 활동을 계획한다. 이때 혼합된 두 연령 중 영아의 수가 많은 연령을 기준으로 주제를 선정하기보다는 연령이 많은 적든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한다. 예를 들어, 1세보다 2세가 더 많은 1~2세 혼합연령반의 연간주제를 선정할 때 2세가 전체적으로 생일이 늦거나 발달수준이 1세와 유사할 때는 1세 중심의 주제를 선정하되, 주제별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 일부 활동에 대해서는 두 수준을 모두 고려한 수준 차이 나는 활동을 계획한다.
- 주제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연간 행사의 일정과 연계하여 계획하되, 0~1세는 행사와 연계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은 원리에 입각하여 보건복지부(2013)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개발한 영아보육프로그램의 연간 주제와 소주제는 다음과 같다.

- 0세는 6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각 주제별로 5개의 소주제를 선정, 총 30개의 소주제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1개의 주제를 6~8주 정도까지 진행할 수 있

Ⅲ.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운영 및 평가

으며, 영아의 월령과 관심 정도에 따라 동시에 2개의 주제를 진행할 수도 있다. 1개의 소주제는 1~2주간 진행하되, 교사는 한 반으로 구성된 영아의 월령에 따른 발달수준과 반응을 고려하여 진행기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1세는 7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각 주제별로 2~6개의 소주제를 선정, 총 26개의 소주제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1개의 주제를 4주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10주까지도 진행할 수 있다. 1개의 소주제는 영아의 흥미와 관심 정도에 따라 2~3주까지 반복할 수 있다.
- 2세는 9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각 주제별로 5~7개의 소주제를 선정, 총 50개의 소주제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1개의 주제를 5~7주간 진행할 수 있으며, 영아의 흥미와 관심 정도에 따라 소주제 간 통합이나 확장 등을 융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간 주제	연간 주제	
	0세 프로그램	1세 프로그램
낮설어요	새로운 것이 낮설어요	어린이집이 좋아요
느껴보아요	느낄 수 있어요	봄나들이 가요
움직여요	놀이할 수 있어요	나는요
놀이는 재미있어요 I	나는 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여름이에요
놀이는 재미있어요 II	움직이는 것이 재미있어요	나는 가족이 있어요
좋아해요	좋아하는 놀이가 있어요	동물놀이해요
	새로운 것도 좋아요	알록달록 가을이에요
		겨울과 모양을 즐겨요
		나는 친구가 있어요

연간 주제별 소주제					
0세 프로그램		1세 프로그램		2세 프로그램	
주제	소주제	주제	소주제	주제	소주제
낮설어요	엄마와 함께해요 선생님을 만나요 선생님을 만져봐요 선생님과 놀아요 익숙해졌어요	새로운 것이 낮설어요 (8주)	어린이집에 왔어요 만나고 친해져요 우리 반에 무엇이 있을까요? 밖으로 나가 보아요	어린이집이 좋아요 (7주)	나는 ○○반이에요 엄마, 아빠와 헤어질 수 있어요 우리 반 선생님과 친구들과이에요 재미있는 놀이감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놀잇감이예요 편안하게 지내요 안전하게 놀아요
	씻으며 느껴요 입으며 느껴요 먹으며 느껴요 놀며 느껴요 자연을 느껴요		만져보아요 살펴 보아요 들어 보아요 말아 보아요 맛보아요 온몸으로 느껴보아요		봄나들이 가요 (5주)
움직여요	누워서 움직여요 앉아서 움직여요 기어요 서고 걸어요 잡아 보아요	놀이 할 수 있어요 (8주)	놀잇감은 재미있어요 1 놀잇감은 재미있어요 2 물놀이는 재미있어요 까꿍놀이는 재미있어요	나는요 (5주)	나는 ○○○이에요 내 몸을 살펴봐요 나는 느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혼자서도 잘해요
	움직이는 놀잇감 구멍이 있는 놀잇감 굴러가는 놀잇감 까꿍 놀잇감 소리가 나는 놀잇감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재미 있는 여름이에요 (7주)

Ⅲ.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운영 및 평가

연간 주제별 소주제					
0세 프로그램		1세 프로그램		2세 프로그램	
주제	소주제	주제	소주제	주제	소주제
놀이는 재미 있어요 Ⅱ	통·상자놀이 형질·천놀이 공놀이 악기놀이 그릇놀이	움직이는 것이 재미 있어요 (7주)	바깥놀이는 재미있어요 몸을 움직여요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가족이 있어요 (5주)	엄마 아빠가 좋아요 우리 가족을 흉내내요1 우리 가족을 흉내내요2 우리 가족을 소개해요1 우리 가족을 소개해요2
	좋아해요		그림책으로 놀아요 춤추고 놀이해요 흉내 내요 쉬, 응가 놀이가 좋아요		동물 놀이 해요 (6주)
	마주봐요 안아줘요 같이 해봐요 함께 웃어요 사랑해요	새로운 것도 좋아요 (4주)	함께 놀아요 선생님이 좋아요	알록달록 가을이예요 (6주)	가을이예요 가을 나들이 단풍이 물들어요 자연물로 놀이해요 알록달록 색깔나라 재미있는 그리기 나라
				겨울과 모양을 즐겨요 (5주)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모양놀이해요 즐거운 성탄이예요 추워요 따뜻하게 지내요
				나는 친구가 있어요 (6주)	내 친구가 좋아요 친구와 함께 하는 놀이가 있어요 우리는 ○○살(살날) 형·언니가 되었어요 즐거웠던 우리반이예요

2) 영아반 주제별 보육계획안의 활동 구성

연간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한 달을 기점으로 월간보육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다. 영아의 경우에는 유아들에 비해 흥미와 관심의 몰입 정도에 따라 하나의 주제 관련 활동들을 반복하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월별로 계획을 수립하기보다 주제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보건복지부(2013)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개발한 영아보육프로그램에서는 주제별 보육계획안을 제시하기 전에 ‘주제 선정의 이유’를 명시하여 교사와 부모가 해당 주제와 관련한 활동의 목표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 선정의 이유’는 크게 세 단락으로 기술하였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와 배경, 이론적 근거 등을 기술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주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술, 세 번째 단락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진행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위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아반 주제별 보육계획안의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 영아를 위한 주제별 보육계획안의 활동 구성은 영아의 발달특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하여 구성하였다.
- 영아반 주제별 보육계획안의 활동은 등원 및 맞이하기, 기본생활 및 안전, 일상생활, 실내자유놀이, 실외놀이, 귀가 및 가정과의 연계 등으로 구성하되, 연령을 고려하여 용어를 다르게 표현하거나 영역을 점차 세분화하였다.
- 이 중에서 등원 및 맞이하기, 기본생활 및 안전, 실외놀이, 귀가 및 가정과의 연계 등은 0~2세 모두 공통적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일상생활과 실내자유놀이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구성하였다.
- 일상생활은 영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다르게 구성하였다. 0세의 ‘수유 및 이유’는 1세와 2세에서 ‘점심 및 간식’으로 구성하였다. ‘낮잠’은 0~2세에서 공통으로 구성하였다. 0세의 ‘기저귀 같이’는 1세에서 ‘기저귀 같이·배변활동’으로, 2세에서는 ‘배변활동’으로 구성하였다.
- 실내자유놀이 역시 영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영역을 세분화하였다. 0세는 ‘신체, 언어, 감각·탐색’으로, 1세는 ‘신체, 언어, 감

Ⅲ.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운영 및 평가

각·탐색, 역할·쌓기'로, 2세는 '신체, 언어, 감각·탐색, 역할·쌓기, 미술, 음률'로 구성하였다.

영아반 주제별 보육계획안의 구성			
구분	0세 프로그램	1세 프로그램	2세 프로그램
등원 및 맞이하기	등원 및 맞이하기	등원 및 맞이하기	등원 및 맞이하기
기본생활 및 안전	기본생활 및 안전	기본생활 및 안전	기본생활 및 안전
일상생활	수유 및 이유 낮잠 기저귀 같이	점심 및 간식 낮잠 기저귀 같이·배변활동	점심 및 간식 낮잠 배변활동
실내자유놀이	신체 언어 감각·탐색	신체 언어 감각·탐색 역할·쌓기	신체 언어 감각·탐색 역할·쌓기 미술 음률
실외놀이	실외놀이	실외놀이	실외놀이
귀가 및 가정과의 연계	귀가 및 가정과의 연계	귀가 및 가정과의 연계	귀가 및 가정과의 연계

3) 영아반의 하루 일과 운영

영아의 하루 일과는 영아 개개인의 신체 리듬과 개인적 욕구를 토대로 등원에서 귀가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시간배분과 활동내용의 순서를 갖고 진행한다. 이러한 하루 일과는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갖고 진행하여야 한다. 규칙적인 하루 일과를 운영할 때 영아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안정감을 가지고 하루 일과를 지낼 수 있게 된다. 이때 영아 개개인의 기분, 신체 리듬, 흥미, 날씨, 어린이집의 상황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영아반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운영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0세는 수유 및 이유식, 기저귀 같이, 낮잠 등 생리적 욕구를 고려하여 일상적인 양육활동에 대한 계획을 반영한다. 이때 개별 영아에 따라 생리적인 욕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해진 일과 시간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영아의 욕구에 우선하여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0세라 하더라도 일상적인 양육활동 이외에 놀이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 1세는 점심 및 간식, 기저귀 같이·배변활동, 낮잠 등 일상적인 양육활동과 함께 점차 놀이활동 시간이 늘어나도록 계획한다.
- 2세는 일상적인 양육활동에 비해 놀이활동의 비중이 점점 커지도록 하루 일과를 계획한다.
- 영아의 경우, 일상적인 양육활동 이외에도 실내자유놀이 하루 2시간 30분 이상, 실외놀이 하루 30분 이상 충분히 계획하여 진행한다. 다만, 영아의 특성상 개별활동 중심으로 진행하되, 2세 후반이 되면 다음 일과로 넘어가기 전에 5~10분간 잠깐 모여 앉아 전이활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 일과 운영 시간은 어린이집의 특성과 상황, 계절 등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모든 반의 영유아가 오전 같은 시간대에 한꺼번에 실외놀이를 하도록 계획할 경우 실외놀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영아와 유아 간에 시간대를 다르게 하여 실외놀이를 계획할 수 있다. 계절과 날씨를 고려하여 실외놀이를 오전 또는 오후로 변경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 0~2세의 발달특성 등을 고려한 하루 일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Ⅲ.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운영 및 평가

시간	주요 일과		시간	주요 일과 1세	시간	주요 일과 2세
	0~6개월	7~12개월				
07:30 ~ 09:00	등원 및 맞이하기		7:30 ~ 9:00	등원 및 맞이하기	7:30 ~ 9:00	등원 및 통합보육
09:00 ~ 09:30	이유식 기저귀 갈이/ 씻기	오전 간식 (이유식) 기저귀 갈이/ 씻기	9:00 ~ 10:00	오전 실내자유놀이	9:00 ~ 10:20	오전 실내자유놀이
09:30 ~ 10:30	오전 실내 자유놀이		10:00 ~ 10:20	기저귀 갈이 및 손 씻기	10:20 ~ 10:50	화장실 가기 및 오전 간식
10:30 ~ 11:00	오전 수유 및 낮잠 준비		10:20 ~ 10:50	오전 간식	10:50 ~ 11:40	오전 실외놀이 및 손 씻기
11:00 ~ 12:00	오전 낮잠	오전 낮잠 또는 오전 실내 자유놀이	10:50 ~ 11:40	오전 실외놀이 및 손 씻기	11:40 ~ 12:40	점심식사 및 이 닦기
12:00 ~ 13:00	수유 및 이유식 기저귀 갈이/ 씻기/이 닦기		11:40 ~ 12:40	점심식사 및 이 닦기	12:40 ~ 14:20	낮잠 준비 및 낮잠
13:00 ~ 14:30	오후 실내 자유놀이 또는 산책	휴식 또는 오후 낮잠	12:40 ~ 14:40	낮잠 준비 및 낮잠	14:20 ~ 15:00	화장실 가기 및 오후 간식
			14:40 ~ 15:20	기저귀 갈이 및 손 씻기	15:00 ~ 16:20	오후 실내자유놀이

시간	주요 일과		시간	주요 일과 1세	시간	주요 일과 2세
	0~6개월	7~12개월				
14:30 ~ 16:00	오후 수유 및 오후 낮잠	산책 및 실외놀이				
16:00 ~ 16:40	기저귀 갈이/ 손, 발 닦기/ 이유식	기저귀 갈이/ 손, 발 닦기/ 오후 간식 (이유식)	15:20 ~ 16:00	오후 간식	16:20 ~ 16:30	전이활동 (2세후반경)
16:40 ~ 17:20	오후 실내자유놀이		16:00 ~ 17:20	오후 실내자유놀이	16:30 ~ 17:20	오후 실외놀이 및 손 씻기
17:20 ~ 19:30	귀가 및 통합보육		17:20 ~ 19:30	귀가 및 통합보육	17:20 ~ 19:30	귀가 및 통합보육

2. 영아를 위한 보육환경의 구성

1) 영아반 환경구성의 원리

- (1) 일상생활영역과 놀이영역을 함께 구성한다. 0~1세반은 수유, 낮잠, 기저귀 갈이 등 일상생활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도록 일상생활영역과 함께 놀이활동 영역을 구성하고, 2세반은 놀이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2) 영아의 놀이특성을 반영하여 탐색과 놀이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놀이영역을 구성한다. 이때 0세반에서 2세반으로 갈수록 놀이영역의 수를 늘린다. 특히 영아의 특성 상 신체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실내외로 자주 이동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체영역을 보육실 내에 구성한다. 놀이영역은 조용한 놀이와 시끄러운 놀이를 구분하여 배치한다.

구분	영아반 보육환경 구성							
	일상생활영역		놀이영역					
0세반	수유	기저귀 갈이	신체	언어	감각·탐색	-	-	-
1세반	수유	기저귀 갈이	신체	언어	감각·탐색	역할·쌓기	-	-
2세반	-	-	신체	언어	감각·탐색	역할·쌓기	미술	음률

※ 단, 가정어린이집은 각 연령별 영역을 기준으로 하되, 면적이 협소할 경우 어린이집 내에 나누어 배치 가능
※ 0세는 영역을 구분 짓기 보다는 영역에 해당되는 놀잇감을 충분히 배치하여야 함

- (3) 보육실을 포함한 실내외 시설·설비는 영아의 크기에 적절하고 안전하도록 구성한다. 책상과 의자·침대 등은 영아의 신체 크기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특히 책상이나 교구장 등의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도록 하고, 영아가 삼킬 수 있는 직경 3.5cm 이하 작은 크기의 물건이나 놀잇감(예 : 블록이나 구슬, 솜 공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 (4) 영아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조용한 영역에

깔개와 쿠션 등을 마련해주고, 영아 눈높이의 벽면에 영아나 가족, 또래, 친숙한 동물 사진 등을 붙여준다. 영아의 개인 사물함이나 물건에는 이름이나 사진을 붙여주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친숙함을 느끼도록 해준다.

2) 영아를 위한 연령별 놀잇감

영아는 자발적 탐색과 놀이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때 영아반 교사는 영아들의 자발적 탐색과 놀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발달에 적합한 놀잇감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영아를 위한 놀잇감은 탐색을 위한 매개체가 되며 놀이를 확장시켜 준다. 영아들은 놀잇감을 보고, 듣고, 빨고, 잡고,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탐색한다.

영아는 바람이나 자신의 동작에 의해 움직이고 매달려 있는 모빌 같은 물체를 좋아한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부터 영아들은 물체가 움직이거나 소리가 날 때 매우 좋아한다. 그러나 움직임은 느리면서 소리도 너무 크거나 갑작스럽지 않아야 한다. 자신들이 예측할 수 있거나 거기에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즐긴다.

영아에 따라 반복을 즐기는 영아가 있는가 하면 반복을 지루해하는 영아도 있으며, 영아에게 즐거움을 주는 놀잇감이 다른 영아에게는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영아반 교사는 각 영아들의 반응에 대한 실험적인 자세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영아는 다른 영아와 놀잇감을 나누거나 함께 놀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므로 똑같은 모양, 색깔, 크기의 놀잇감을 여러 개 준비한다.

다음에 제시한 표는 영아의 발달특성에 따른 적합한 놀잇감의 예와 놀잇감 제시 방법, 놀잇감에 대한 영아의 반응 등(여성부, 2002)을 정리한 것이다.

〈0세에게 적합한 놀잇감과 제시방법〉

구분	0세에 적합한 놀잇감	놀잇감 제시방법 및 영아의 반응
0~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을 돕는 놀잇감 (흑백 모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는 깨어있고 평온할 때 모빌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 쫓음. 이때 소리 나는 흑백 모빌이 더욱 효과적임. 아직 색상의 구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색의 대비와 형태가 확실한 흑백모빌이 눈의 초점을 맞추고 시각적인 능력을 발달시켜줌

Ⅲ.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운영 및 평가

구분	0세에 적합한 놀잇감	놀잇감 제시방법 및 영아의 반응
0~3개월	• 눈으로 따라갈 수 있는 놀잇감 (딸랑이, 손전등, 인형 등)	• 놀잇감을 좌우로 움직여줄 때마다 영아는 눈으로 따라가며 고개를 돌림 • 영아의 시선 안에서 움직여주면 영아가 눈으로 따라가며 바라보므로 시각 기능이 발달됨
	• 청각을 돕는 놀잇감 (소리 나는 모빌, 딸랑이)	• 빠르게 또는 느리게 흔들어 보이며 영아에게 잡고 흔들어 보게 함 • 특정 놀잇감에 대해 선호하는 반응을 보이므로 영아의 반응을 고려하여 놀잇감을 제시
	• 반복적인 리듬의 악기 (짜짜이, 탬버린, 종 등)	• 악기의 경쾌한 소리에 따라 영아의 시선, 눈빛,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을 관찰
4~6개월	• 소리 나는 놀잇감 (소리 나는 모빌, 딸랑이, 오뎅이 등)	• 오뎅이가 제 위치로 돌아오면서 내는 경쾌한 소리에 흥미 있어 함
	•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모빌이나 끈 달린 놀잇감(모빌)	• 잡기가 가능해지므로 영아가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모빌, 놀잇감 등을 끈으로 낮게 매달아줌
	• 촉감 놀잇감(사람인형, 곰인형 등)	• 사람과 노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놀이를 좋아함 • 상자나 바구니에 영아가 좋아하는 사람인형이나 곰인형, 딸랑이 등을 넣고 꺼내보는 활동을 해봄
7~9개월	• 두드려보거나 끈을 당겨 볼 수 있는 놀잇감(북, 단추를 누르면 튀어나오는 놀잇감)	• 양손에 물건을 하나씩 들고 서로 두드려보는 활동을 즐김 • 힘이나 속도를 조절하면서 끈을 당겨볼 수 있는 놀잇감을 제시
	• 두드리고 던지고 떨어뜨려 볼 수 있는 놀잇감(블록, 소리 나는 뽀뽀이 공, 냄비뚜껑, 탑 쌓기, 형겅 공, 고리 끼우기 등)	• 우유곽이나 과자상자 등에 물건을 넣어 흔들어 보기도 하고, 나무 손가락으로 두드려보기도 함 • 동물인형, 공 굴리기, 탑 쌓기 등에도 흥미를 보이며, 깨물고 씹는 행동을 즐김
	• 촉감 그림책, 거울, 전화기 • 구기거나 찢을 수 있는 종이	• 잡지나 신문지 찢는 놀이를 즐겨함



10~12개월	• 촉감 그림책, 누르면 동물 소리 나는 그림책 • 손인형, 장난감 전화기, 실로폰	• 손인형을 끼고 영아의 이름을 부르거나 노래를 불러주는 것을 좋아함
	• 종이블록, 콩 주머니, 비치볼이나 큰 공	• 쌓거나 던지기를 좋아함

〈1세에게 적합한 놀잇감과 제시방법〉

구분	1세에 적합한 놀잇감	놀잇감 제시방법 및 영아의 반응
13~24개월	• 밀고 당기는 놀잇감 (쇼핑용 손수레, 유모차 등) • 타는 놀잇감(소형 자동차)	• 가상놀이나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놀잇감을 좋아함 • 실제 자동차와 유사한 탈 것을 좋아함
	• 다양한 재질의 그림책 • 동시나 동요 테이프	• CD나 테이프를 이용하여 동시나 동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함
	• 구성 놀잇감 • 조작 놀잇감 (컵 쌓기, 간단한 꼭지 퍼즐) • 옷 입히고, 신발 끈 매고, 끈 꿰는 놀잇감	• 퍼즐의 경우 3.5cm 이하의 작은 크기는 위험함 • 스스로를 돌보고 독립적으로 하는 일에 강한 흥미를 갖기 시작하므로 옷 입히기 인형을 이용한 활동을 해보도록 격려해줄 필요가 있음
	• 다양한 탐색 놀잇감 (짜짓기 게임, 자석 낚시 게임 등) • 미술재료(핑거페인팅, 매직 등)	• 색상 구별을 하기 시작하고, 핑거페인팅과 매직 사용하기를 좋아함
	• 악기류(북, 트라이앵글, 탬버린, 모래블록, 리듬막대 등)	• 한두 가지 멜로디를 기억하고, 한두 소절을 부를 수 있게 됨. 손가락 힘이나 협응력이 점점 향상되어 북이나 트라이앵글 등을 칠 수 있게 됨
	• 가상, 상징, 극놀이를 위한 놀잇감 (복잡하고 실감나게 생긴 인형, 동물 봉제인형, 역할 놀잇감, 거울, 실제와 똑같은 모형 자동차 등)	• 이 시기에 진정한 인형놀이가 시작됨 • 자아정체감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하나, 아직은 자기중심적임 • 7~10cm의 작은 차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며, 30~40cm의 큰 차를 밀고 다니기도 함

〈2세에게 적합한 놀잇감과 제시방법〉

구분	2세에 적합한 놀잇감	놀잇감 제시방법 및 영아의 반응
25~3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르고 내리는 기구 밀고 당기는 놀잇감 (소핑용 손수레, 유모차 등) 다양한 크기의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끄럼틀, 볼풀장, 트램플린 등 신체 움직임이 많은 활동을 좋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가지 그림책(가족, 친숙한 물건, 동물 등의 그림책), 일상 생활에 관한 그림책(먹기, 배변, 손 씻기 등) 카세트플레이어와 카세트 테이프, 이어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을 좋아하는 시기이므로 기본생활습관지도와 관련한 그림책을 포함하여 동물 등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 다양한 그림책을 제공 굽적거리기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탐색 놀잇감(3~5조각 퍼즐, 큰 구슬 꿰기, 동식물 기르기, 돋보기, 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류하고 조각을 맞추어 보는 활동을 좋아함 동식물에도 관심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미술재료와 만들기를 위한 재 활용품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활동보다는 감각·탐색이 주가 되는 조형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다양한 재료들을 탐색 해가는 과정을 격려해줄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 및 동작활동을 위한 자료 (마라카스, 탬버린, 리듬막대, 스퀘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으로 악기를 다루기는 어려우나,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고 탐색해보도록 격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엌놀이, 인형놀이, 옷 입히기 놀이, 운전놀이, 가게놀이 등을 위한 역할 놀잇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과 관련한 극놀이를 선호하므로 학기 초에는 가족놀이나 아기놀이를 위한 놀잇감을 제공 이 시기의 영아는 밀폐된 공간을 좋아하므로 커다란 박스를 이용하여 집을 만들어주거나 커튼을 이용하여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효과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기가 너무 작지 않은 다양한 재질의 블록(나무블록, 종이블록, 우레탄블록, 스펀지블록 등) 동물, 자동차, 사람 등의 소품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의 양을 충분히 제공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주로 울타리 만들기, 집짓기, 성 쌓기, 기차 만들기 등을 좋아함

3. 탐색 및 놀이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1) 영아의 놀이 특성

영아는 본질적으로 주변의 보육실 환경과 활동자료와 같은 물리적 환경과 교사 및 또래에 의한 사회적 환경을 자유롭게 탐색한다. 자유롭게 탐색한 지식과 기술에 기초하여 놀이를 하면서 주변 세계를 내면화하고 확장하게 된다.

이러한 영아의 탐색과 놀이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1) 탐색과 놀이는 영아의 내면적 동기 유발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교육적 효과가 크다.
- (2) 탐색 후에 놀이가 이루어진다. 영아는 새로운 사물이나 상황 속에 들어가면 먼저 탐색을 하고, 탐색을 통해 익숙하게 된 후에 놀이를 한다. 따라서 0~2세 영아에게 새로운 사물이나 놀잇감, 환경 등을 제시하려면 먼저 영아가 자신의 감각에 기초하여 사물을 들여다보고, 빨아보고, 냄새 맡으며, 흔들어보고, 두드려보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영아는 탐색을 하면서 새로운 놀잇감과 환경에 익숙하게 되면 보다 주도적이며 독립적으로 놀이에 몰입한다.
- (3) 영아는 탐색과 놀이를 반복하면서 기존에 습득한 기술과 지식을 재구성하면서 보다 발달된 놀이형태로 연결하게 된다.

2) 탐색 및 놀이에 기초한 교수학습 방법

영아반 교사는 영아의 놀이 특성을 고려, 다양한 놀잇감을 제시하여 흥미를 갖고 탐색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때 영아는 탐색을 충분히 하고 난 후 놀이로 연결하고 점차 놀이를 확장해 나가게 된다. 탐색과 놀이 중심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은 다음의 네 단계를 거친다.

- (1) 제시하기 : 교사는 영아 연령에 적합한 보육실 환경과 놀잇감 등을 영아에게

제시하고, 또래와 어린이집 내의 다양한 구성원 등 주변환경 등에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안내한다. 새로운 놀잇감을 영아가 잘 볼 수 있는 벽면이나 교구장에 제시한 후 교사가 영아의 관심을 유도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게 뭘까?” “○○ 한번 찾아보자.” “○○ 여기 있네.” 하고 영아가 새로운 놀잇감에 관심을 갖게 해본다. 다양한 탐색꺼리를 제시할 때는 영아의 발달 수준과 안전, 흥미 여부 등을 고려한다. 제시한 놀잇감이나 활동에 대한 개별 영아의 반응과 사전 경험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활동자료의 수준이나 내용을 재조정한다.

- (2) 탐색하기 : 교사는 영아에게 놀잇감 등을 제시하고 난 후 보다 적극적인 교수 전략을 사용하여 탐색을 유도하고 격려해본다. 영아가 자유롭게 탐색을 시도하면 교사가 계획한 놀이활동으로 전이되도록 시범 보이기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교사가 마라카스를 제시할 때 흔들면서 소리를 낸 후 영아에게도 흔들어 보도록 할 수 있다. 영아가 다른 방법으로 소리를 내면 “○○가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더 잘 들리네.” 등 보다 적극적인 탐색을 격려해준다.
- (3) 놀이하기 : 영아반 교사는 영아가 탐색한 놀잇감들 중 스스로 선택하여 자유롭게 놀이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유도해 볼 수도 있다. 놀이의 단계에서 교사는 개별 영아가 창의적으로 탐색한 경험을 놀이로 통합하도록 유도하고, 또래와 놀이경험을 공유하도록 격려한다. 이때 교사는 영아의 놀이가 진행되는 초기에는 관찰을 통하여 영아의 놀이행동에 관심을 보이고 놀이를 격려해준다.
- (4) 놀이 확장하기 : 교사는 영아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또래와의 놀이로 확장하거나 다른 영역의 놀잇감을 추가로 제시하여 놀이를 통합, 확장하도록 돕는다. 또는 영아의 이전 놀이경험과 연결시켜 주거나, 또래와 함께 해보도록 격려한다. 예를 들어, “여기 어제 갖고 놀던 강아지 인형이 있네. 강아지한테

도 맛있는 우유를 줘볼까?” 등 이전의 놀이경험과 연결하여 확장하도록 상호작용을 해준다.

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반 교사지침

영아반 교사는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6개 영역 각 내용범주의 보육내용에 관련된 활동들을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교사지침 내용을 알아야 한다. 다음에 제시한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반 교사지침은 『제2차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보건복지부, 2012. 2. 29)을 토대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보건복지부, 2013. 1. 21)의 보육내용을 고려하여 수정한 내용이다.

이 교사지침은 표준보육과정 각 내용범주의 보육내용에 관련된 활동들을 실시할 때 교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각 연령별 영아에 대한 발달적 내용,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법, 인적 및 물리적 환경구성 방법, 지도할 때 유의할 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아반 교사는 보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 교사지침의 내용을 숙지하여 환경구성 및 영아 지도 시 이를 반영하고, 교사와 영아 간에 바람직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Ⅲ.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운영 및 평가

기본생활		
내용 범주	0~1세반 교사지침	2세반 교사지침
건강하게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가 가정에서와 같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여 영아의 심리적 안정성을 증진시킨다. 영아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아의 다양한 표현방식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신뢰감을 형성한다. 영아의 청결, 영양, 배설, 수면 그리고 상호작용 등 기본적인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킨다. 수유, 기저귀 같이 등을 할 때 부드러운 대화로 영아를 격려하면서 진행한다. 영아기는 면역력이 약하고 생리적인 변화가 심하다는 것을 알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영아의 상태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전염병이 있는 영아는 적절히 격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가 식사, 수면, 배설 등에 긍정적인 기본생활습관이 길러지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영아가 스스로 주변을 정돈하고 손 씻기, 이 닦기 등을 수행했을 때 격려하여 기본적인 건강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영아의 발달수준에 맞추어 컵이나 수저를 사용하여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며, 또래와 함께 일정 장소에서 식사하는 법을 익히도록 지도한다. 영아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존감을 높여주고 다른 영아들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간과 놀잇감을 적절히 배치한다. 영아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아플 때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영아의 표현에 따뜻하게 반응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 특히 전염병이 의심될 때 보호자와 협력하여 적절히 격리·조치하고 보고한다. 영아에게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주고, 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점검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육실의 위험요인을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장치를 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놀이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영아를 관찰하고 영아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영아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가족과 관련 기관에 재빨리 연락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점검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내의 시설물과 물품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장치를 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놀이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영아를 관찰하고 놀이의 규칙을 알려주어 영아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영아가 길을 잃거나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고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지도한다. 정기적으로 소방훈련,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의 예방 교육, 악물오남용 예방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영아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와 관련 기관에 재빨리 연락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

신체운동		
내용 범주	0~1세반 교사지침	2세반 교사지침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각운동이 발달의 기초가 되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영아가 여러 가지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의 감각적 자극을 제공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감각적 경험을 충분히 활용한다. 교사와 함께 하는 신체활동에서 애착이 커지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도록 배려한다. 영아가 몸을 움직일 때 신체 부분이나 움직임에 대해 언어로 표현해준다. 공간이 충분한지, 시설물과 자료들이 안전한지 수시로 영아들의 동선과 상태를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과 자연 환경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충분히 활용한다. 영아의 감각적 차이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고 격려한다. 신체를 이용한 놀이나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 부분을 인식하도록 한다. 영아가 몸을 움직일 때 신체의 명칭이나 움직임에 대해 언어적 상호작용을 한다.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환경을 구성한다.
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머리를 가누는 시기나 걷기 위하여 습득해야 할 균형감 등 영아기의 신체조절력과 운동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또한 개인차가 많은 시기임을 고려한다. 영아의 신체 발달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영아의 움직임과 신체 조절 능력을 관찰 후 적절히 상호작용한다. 간단한 신체놀이를 반복함으로써 운동능력과 협응능력이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움직임이 불안정한 영유아들을 위하여 바닥 재료를 적절히 선별하고 가구 모서리를 안전하게 처리한다. 영아가 활동 중 물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환경 준비를 철저히 한다. 높이가 낮은 오르고 내리기 기구, 매트, 스폰지 블록 등 대근육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한다. 물건 잡기, 밀고 당기기 등 손을 이용하는 다양한 활동과 놀잇감을 제공한다. 자신의 움직임과 또래와 어울려 창의적인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벽면에 전신이 보이는 안전 거울을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된 걷기는 가능하나 동작기술이나 조절능력이 미숙한 영아기의 신체발달 특성을 이해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영아의 움직임과 신체 조절 능력을 잘 관찰하고, 개인차를 고려하여 적절히 상호작용한다. 영아용 정글집이나 탈 것 등 대근육 발달이나 신체조절력과 균형 감각을 증진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제공한다. 구슬 꿰기, 실 꿰기 등 간단한 조작교구를 제공함으로써 영아들의 소근육 발달을 돕고 눈과 손의 협응력을 기르도록 돕는다.

Ⅲ.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운영 및 평가

0~2세 영아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운영 및 평가
영아를 위한 일상생활 운영
영아를 위한 적응기간 운영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신체운동		
내용 범주	0~1세반 교사지침	2세반 교사지침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가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제공하고,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교사가 지켜보도록 한다. 영아가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해보도록 격려한다. 잡고 걸을 수 있도록 벽을 따라 설치된 봉, 밀고 끄는 차, 실내용 미니 종합 놀이대, 공수영장, 1~2인용 흔들말, 승용 놀이감, 계단이나 낮은 경사로, 건너뛰거나 통과하는 장애물 등을 제공한다. 영아용 그네(등받이가 있고, 앞 뒤 옆으로 바가 있는 영아용 그네), 기어오를 수 있는 언덕이나 계단이 있는 큰 스펀지블록을 제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가 자유롭게 신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제공한다. 기본적인 신체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영아의 움직임에 적절히 반응함으로써 신체 활동을 격려한다. 실내외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함으로써 영아가 안전하게 실내외에서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위험 요소에 대해서 영아가 인식하도록 안내한다. 신체활동 후에는 간단한 휴식 시간을 마련하여 신체리듬의 조절을 돕는다.

의사소통		
내용 범주	0~1세반 교사지침	2세반 교사지침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세 영아는 소리 자극에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소리와 익숙한 말소리에 반응한다. 영아가 말을 못 알아듣더라도 가능한 말로 반응하여 풍부한 언어적 자극을 제공한다. 자유롭게 만지거나 흔들면 소리가 나는 다양한 놀잇감과 교구들을 제공하고, 영아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손뼉 치기, 두드리기, 콧노래, 노래 등을 들려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의 말소리를 구분하여 듣기부터 짧은 이야기와 노래에 담긴 운율 있는 말을 듣고 즐길 수 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을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여 영아에게 들려준다. 영아가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말한다. 영아에게 보통의 목소리, 큰소리, 작은 소리, 귀에 속삭이는 소리 등으로 변화 있게 말해 줌으로써 영아가 소리 크기에 따른 상황이나 분위기를 파악하게 한다. 교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생각을 영아에게 짧은 이야기로 들려주어 영아가 상황에 맞는 어휘와 표현을 익히도록 한다.

의사소통		
내용 범주	0~1세반 교사지침	2세반 교사지침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소리와 웅얼이를 시도하고, 말소리 내기를 즐기며, 표정, 말소리와 몸짓으로 자기 의사를 교사와 주고받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영아가 쿠잉이나 웅얼이로 소리 낼 때 교사는 주의하여 들어주며, 눈을 맞추고 정다운 목소리로 반응하여 교사의 말을 영아가 모방하여 말해보게 한다. 인형이나 그림, 사진, 그림책 같은 여러 가지 자료를 갖추어 언어적 상호작용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매일 매일 대화를 하여 영아가 새로운 말과 발음을 익히며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하고 싶은 것은 많으나 표현이 잘 안 되는 시기이므로, 교사는 영아가 천천히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열심히 들어준다. 영아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자주 제공해 주고, 말하는 내용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영아의 발음이나 단어의 순서 등을 직접 고쳐주기보다는 적절한 시범으로 보여준다. 가작화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므로 전화(마이크)놀이, 인형놀이 등 놀이를 하게 하여 혼잣말을 하거나 어른의 말투를 흉내 내며 인형과 대화놀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한다.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세 영아는 책과 놀잇감을 구별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주변에 있는 친숙한 그림이나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그림책에 관심을 보이고, 영아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말없이 그림만 쳐다보다가 그림을 지적하거나 그림의 명칭을 이해하게 된다. 작은 그림책 들고 다니기, 그림 보기, 책장 넘기기 등 그림책 자체의 속성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리듬감 있게 읽어주는 말소리를 즐기고,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요구하는 정도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한다. 그림책을 읽어줄 때 그림에 묘사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며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한다. 0~1세 영아는 책과 놀잇감을 구·영아가 반복하여 같은 그림책을 듣고 싶어 하면, 교사는 새로운 책을 번갈아 가며 읽어주기보다는 영아들이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책을 반복하여 각 영아에게 개별적으로 읽어주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에는 그림과 글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교사가 읽어주는 글에 관심을 갖고 그림책을 읽는 흥내를 내는 정도의 활동을 하도록 한다. 이 시기에 들은 많은 이야기들이 중요한 언어적 정보가 된다는 점에서, 교사는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고 일상과 관련된 이야기나 자연의 변화에 대한 감정 표현하기 등 언어적 자극을 제공하도록 한다. 책을 읽어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기고 책장을 넘기는 등 바르게 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림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글을 읽어줌으로써, 영아가 그림과 글을 연결하여 내용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읽기는 글자 모양에 흥미를 갖고 변별하는 데서 시작되므로 '동그라미, 네모, 세모' 등의 기초 모양과 '동물퍼즐', '과일 모양 퍼즐' 등 형태 변별능력이 요구되는 다양한 놀잇감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Ⅲ.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운영 및 평가

0~2세 영아보육 프로그램의 특성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운영 및 평가
영아를 위한 일상생활 운영
영아를 위한 적응기간 운영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의사소통		
내용 범주	0~1세반 교사지침	2세반 교사지침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안하게 책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교실의 조용하고 채광이 좋은 곳에 책보기, 영역을 구성하고 큰 쿠션, 소파, 부드러운 카펫 등을 마련하여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넘기기 쉬운 딱딱한 종이책, 여러 가지 촉감을 느낄 수 있는 형견책, 비닐책, 소리 나는 책 등 다양한 책을 제공한다. 의성어와 의태어가 반복되어 운율과 리듬감이 있는 책, 배변훈련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습관을 다룬 내용이 담긴 책, 한 단어 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책 등을 제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자의 기본 형태로 구성된 조작놀이감, 천으로 된 그림책, 그림과 글자가 함께 있는 광고지, 영아의 사진이 들어있는 가족 앨범 등을 갖추어 놓도록 한다. 보육실 한쪽 영역이나 언어영역 책꽂이에 그림책을 다양하게 제공해준다. 이때 영아들이 그림책 표지의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책을 놓아준다.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한 손동작으로 작동되는 놀이감을 영아의 손이 닿는 곳에 놓아 주고, 영아가 마음대로 흔들거나 누르면서 놀이해보도록 한다. 손의 소근육을 사용하고, 손과 팔을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즐거움과 선을 그을 때 나타나는 흔적을 즐기는 정도의 끼적이기 활동을 하도록 허용한다. 신문지, 한지, 복사지, 휴지 등 다양한 종류의 종이를 제공하여 마음대로 흔들고, 찢고, 구기고, 뭉치며 탐색해보도록 한다. 무독성 크레용이나 색연필 등 쓰기 도구를 제공하여 마음껏 끼적ிட도록 배려하고, 영아가 끼적인 것에 관심을 보인다. 벽면이나 바닥에 커다란 종이를 붙여주거나, 낮은 상을 마련해 끼적거리기를 할 수 있는 종이를 제공해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끼적거리고 놀이하면서 손목의 힘이 길러지고,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며, 글자와 비슷한 모양을 그려내기도 하고, 끼적이면서 영아의 생각을 담은 흔적말을 하거나 영아가 자신의 그림에 대해 명명해보도록 격려하는 등 쓰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영아가 끼적거리던 종이에 어떤 내용인지와 영아의 이름을 적어 교실 벽에 게시하여준다. 커다란 도화지, 신문지, 달력 뒷장, 벽지 등 다양한 질감의 종이류와 영아에게 무해한 크레파스나 두꺼운 펜, 사인펜, 색연필 등 여러 가지 쓰기도구를 제공하도록 한다.

사회관계		
내용 범주	0~1세반 교사지침	2세반 교사지침
나를 알고 존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가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침대, 침구, 서랍장, 기타 개인 소지품에 얼굴 사진을 붙여주고 이름을 적어준다. 영아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거울을 제공한다. 영아에게 신체적 접촉과 언어적 표현을 통해 자주 애정을 표현한다. 영아와 일대일로 얼굴을 마주보며 상호작용을 한다. 간식시간, 기저귀 갈이나 낮잠시간 등의 일상생활 중에서 영아와 대화하면서 함께 하루 일과를 진행한다. 영아가 몸을 움직이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관련 물품(예: 손목에 차는 영아용 팔랑이, 방울 달린 영아용 슬리퍼 등)을 제공한다. 영아가 친근한 대상이나 물건을 선호하고 선택하는 것을 존중해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 자신의 이름, 얼굴사진, 가족사진 등을 곳곳에 붙여준다. 영아가 친근한 물건이나 음식을 선호하고 친근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존중해준다. 영아가 혼자서 편안하게 쉬거나 놀 수 있는 독립적인 여유 공간을 따로 마련해준다. 영아가 하루 일과 내에서 스스로 선택한 놀이 나 놀이감을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음이나 몸 움직임은 영아의 주된 의사소통방법임을 인식한다. 영아는 부정적인 정서표현도 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수용한다. 영아의 기본적인 욕구에 신속하고 민감하게 지속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영아가 보육교사에 대해 신뢰감을 발달시키고 세상이 안전한 곳임을 알게 한다. 영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민감하고 일관성 있게 영아를 대한다. 영아의 기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반응속도와 생물학적 리듬을 파악하여 영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한다. 넉넉한 수의 놀이감을 준비하고 똑같은 놀이감을 여러 개 준비하여, 놀이감 부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분쟁 또는 문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이 훨씬 다양해짐을 이해하고, 영아의 정서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영아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영아의 정서표현을 격려하는 대화를 많이 해준다(예: “기분이 무척 좋구나, 기분이 안 좋니? 화가 많이 나왔구나” 등).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나타낼 경우 영아의 신체적, 심리적 원인을 파악하고 상황을 바꾸어 주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일러준다. 또한 보육교사가 직접 모델을 제시한다.

Ⅲ.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운영 및 평가

0~2세 영아보육 프로그램의 특성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운영 및 평가
영아를 위한 일상생활 운영
영아를 위한 적응기간 운영
기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사회관계		
내용 범주	0~1세반 교사지침	2세반 교사지침
더불어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는 낮가림을 할 수 있고, 낮선 사람보다 친숙한 사람과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영아가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보육교사와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안다. 부모와의 질 높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에게 안정적인 애착 형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영아가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직면했을 때 안정감을 갖고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영아의 신뢰로운 관계에 바탕을 둔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위해서 실내 보육환경을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인락하며 안전하게 구성한다. 부모가 언제든지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따로 제공해준다. 아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거나 간단한 인사를 하도록 한다. 놀이과정에서 영아가 순서 개념을 점차 이해하게 한다. 교구장 등에 사진이나 그림을 붙여 두어 영아가 사용한 놀잇감을 성인의 도움을 받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기는 또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나 아직까지는 사물을 가지고 하는 대물놀이나 병행놀이 단계임을 이해한다. 영아는 좌절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공격적이 되고 다른 영아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전에 대처한다. 넉넉한 수의 놀잇감을 준비하고 똑같은 놀잇감을 여러 개 마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영아가 동일한 놀잇감을 서로 소유하려고 싸울 때 영아가 자신의 충동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안내심을 가지고 도와준다. 놀잇감과 개인용품에 영아의 물건임을 표시해주고 각 영아의 개별 공간을 마련하여 영아가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한다. 식사시간이나 놀이시간에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 함을 인식하게 하고 기다리는 동안 영아가 지루해 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거리를 마련한다.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바른 인사법을 가르쳐 주고 영아가 수행했을 때 격려한다. 영아가 간단한 약속을 이해하고 지키도록 격려한다.

예술경험		
내용 범주	0~1세반 교사지침	2세반 교사지침
아름다움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워서 생활하는 영아에게 모빌이나, 건드리기만 해도 소리가 나는 놀잇감, 딸랑이, 손목에 끼울 수 있는 방울 등을 제공해 주어 영아가 소리, 움직임, 색, 모양 등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흔적 있을 수 있는 영아에게는 영아의 시선이나 영아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누르거나, 때리거나, 흔들어서 소리가 나는 놀잇감을 구비해 두어 영아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손 조작을 할 수 있는 영아에게는 사용하기에 쉽고 안전한 작은 북, 리듬악기나 물건(예: 냄비 뚜껑, 페트병)들을 자유롭게 두드리며 소리나 리듬을 탐색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실내에서 제공되는 환경 이외에 야외(예: 산책 등)에서도 영아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주변 환경물(모빌)이나 소리 나는 놀잇감에 영아의 시선이 맞추어졌을 때, 영아가 소리를 듣거나 사물을 보려고 시도할 때, 교사는 언어, 손 움직임, 얼굴표정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영아가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사는 영아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소리나 움직임을 눈여겨 본 후 이와 유사한 놀잇감이나 물건을 제시하며 상호작용하도록 한다. 교사는 영아에게 안정된 톤의 소리를 자주 들려준다. 이를 통해 영아가 소리의 차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도록 한다. 2세 미만의 영아도 영아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영아와 상호작용해주며 영아의 반응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성어, 의태어, 반복되는 부분이 많은 노래의 일부분이나 리듬 있는 운율을 교사의 음성으로 자주 들려준다. 산토끼 같은 짧은 소설의 노래를 자주 들려주어 친근하게 해준다. 보육실에서 영아가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두드리거나 흔드는 악기류(예: 손목 방울, 허리 방울, 머리띠 방울, 작은 북, 마라카스 등), 카세트테이프, 리본 등을 제공해준다. 짜짜공이나 까꿍 놀이처럼 영아와 간단한 손 놀이를 하고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여 주거나 영아가 놀이를 시도할 때 이를 격려해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의 물건이나 단순한 리듬악기(예: 안전한 탬버린, 작은북)를 이용하여 다양한 소리를 탐색하도록 한다. 여러 가지 색깔이나 모양을 탐색할 수 있는 놀잇감이나 촉감책, 생활용품, 사물을 제공한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자연의 모습(예: 낙엽 떨어짐, 눈 내림, 꽃이 피)이나 사건(예: 크리스마스 장식에서 빛이 반짝거림), 물건 등에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움과 변화를 경험하도록 한다. 다양한 자연의 소리나 움직임, 변화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실외활동을 자주 계획한다.

Ⅲ.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운영 및 평가

0~2세 영아보육 프로그램의 특성
0~2세 영아의 발달적 특성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운영 및 평가
영아를 위한 일상생활 운영
영아를 위한 적응기간 운영
기행 및 자연체험의 연계

예술경험		
내용 범주	0~1세반 교사지침	2세반 교사지침
예술적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세 영아도 영아 개인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영아와 상호작용해주며 영아의 반응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성어, 의태어, 반복되는 부분이 많은 노래의 일부뿐 아니라 리듬 있는 운율을 교사의 음성으로 자주 들려준다. 산토끼 같은 짧은 소설의 노래를 자주 들려주어 친근하게 해준다. 보육실에서 영아가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두드리거나 흔드는 악기류(예: 손목 방울, 허리 방울, 머리띠 방울, 작은 북, 마라카스 등), 카세트테이프, 리본 등을 제공해준다. 짜짜공이나 까꿍 놀이처럼 영아와 간단한 손 놀이를 하고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여 주거나 영아가 놀이를 시도할 때 이를 격려해준다. 다양한 소리, 표정, 몸 움직임 등을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주고 보여준다. 하루 일과에서 영아의 얼굴과 신체 부위의 이름을 자주 말해주며 영아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한다. 종이에 끼적거리기, 얇은 종이 찢기, 스티커 붙이기, 손바닥으로 문지르기 등 소근육을 사용하는 단순한 미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감각경험이 가능한 재료를 제공하여 미술경험을 하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영아와 함께 감각경험을 하며 영아의 행위나 교사의 행위에 대하여 언어로 묘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생활 활동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자기 가작화 행동(예: 거울을 보고 표정을 지음), 모방행동, 상상놀이를 즐기도록 격려해준다. 영아가 자신의 몸 전체를 비쳐볼 수 있는 크기의 안전거울을 제공한다. 모방놀이와 상상놀이에 필요한 물품(예: 구두, 모자, 목걸이, 화장품, 가방, 유모차, 운전대, 자동차 모형 박스, 동물모자, 끈차, 안전거울 등)을 구비해준다. 영아와 익숙하게 상호작용하는 양육자(예: 부, 모, 조부, 조모, 교사 등)의 목소리로 리듬이 반복되는 말, 노래 등을 녹음해 두었다가 들려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기나 사물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예: 치기, 흔들기, 문지르기)으로 자유롭게 소리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친근한 노래(전래동요)를 자주 들려주고, 영아가 노래를 부르려고 시도할 때 교사가 영아의 속도에 맞추어서 함께 불러준다. 영아가 남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움직임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준다. 다양한 질감이나 색깔의 향균, 스킨케어 제품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움직여보도록 한다. 영아가 간단한 도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해준다. 또한 미술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예: 밀가루 반죽, 물감, 걸죽한 물감, 모래, 자연물, 면도크림, 종이, 크레파스 등)와 도구(예: 스탬프, 도장, 풀, 종이테이프, 페인트 붓 등)를 제공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거나(예: 엄마처럼 마루 닦기) 놀이감으로 가작화하는 행동(예: 인형에게 우유먹이기)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일상용품이나 소품(예: 접시, 컵, 모자, 옷, 신발)을 제공해주고 전신거울을 마련해준다. 영아가 시도한 미술표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격려한다. 손쉽게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미술재료(예: 안전한 크레파스, 색연필, 밀가루반죽, 풀)를 향시 제공하고 기본적인 조작 기술(예: 풀칠하고 붙이기)을 습득하도록 지원한다.

예술경험		
내용 범주	0~1세반 교사지침	2세반 교사지침
예술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는 보육실에서 영아의 행위에 대하여 리듬이 반복되는 말로 표현해 주고, 영아의 반응에 대하여 격려한다. 자연에서 나는 소리(예: 새소리, 비소리 등), 동물의 소리에 관심이 많은 영아에게 동물의 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들려주고, 영아가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낼 때 반응해준다. 산책이나 야외놀이 시간을 일과 중에 반복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며, 영아가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 영아가 익숙한 주변 환경에서 친근한 사물의 색과 모양 등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교사가 말로 언급해 준다. 영아가 자신이나 또래가 주무르거나 끼적거리던 표현물, 움직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에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소리(시계 소리, 전화기 소리)를 녹음하여 들려주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종류의 음악을 들려준다(예: 잠 자려고 할 때 조용한 음악, 등원할 때 가볍고 경쾌한 음악을 들려줌). 실외놀이에서 자연환경의 색이나 형태, 움직임이나 변화에 대한 것을 보고 느끼도록 언어적으로 반응한다(예: 나뭇잎이 노랗게, 빨갛게 되어 나무가 예뻐졌네). 예술 경험을 위한 환경구성으로 자연물, 사물에 관련된 사진, 화보, 또는 실제물을 구비해주도록 한다. 영아 자신이나 또래의 노래, 춤, 미술품 등을 게시하거나 전시해 주어서 영아가 친숙한 내용으로 아름다움을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주 제공한다. 이 때 교사는 영아의 표현에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영아들이 작품에 대한 태도를 모델링하도록 한다.

자연탐구		
내용 범주	0~1세반 교사지침	2세반 교사지침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가 주변 사물과 자연 세계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에 함께 주의를 기울이며 관심을 공유한다. 주변의 사물에 대해 반복하여 탐색할 때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다른 탐색활동으로 확장하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주변의 사물과 자연세계에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는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배려하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호기심을 갖고 탐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물과 현상을 탐색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영아가 궁금한 것을 알고자 할 때 영아의 질문을 존중하여 성실하게 상호작용해서 영아들의 호기심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영아가 주도적으로 한 가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탐구행동을 지속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영아가 관심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Ⅲ.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운영 및 평가

자연탐구		
내용 범주	0~1세반 교사지침	2세반 교사지침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분한 놀이감을 제공하고 놀이감을 제시할 때 먼저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난 다음 놀이감의 사용방법을 알려준다. 영아의 탐색 행동에 대해 감각적, 조작적 경험을 공유하고 표정, 몸짓, 언어를 통해 지원하고 격려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가 호기심을 유지하고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영아에게 직접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탐색과정에서의 사고발달에 중점을 두고 지도한다.
수학적 탐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용하고 세밀한 탐색을 주로 하는 영아도 있고, 행동 반경이 크고 강도 높은 탐색을 좋아하는 영아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기질과 성향을 유의하여 지도한다. 주변의 여러 가지 자극에 반응하고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영아의 탐색활동을 격려하기 위하여 자극을 주어야 할 때와 영아가 스스로 탐색에 몰두하고 있을 때 가만히 물러나 지켜보아 주어야 할 때를 잘 구별하도록 한다. 영아가 생활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놀이감이나 사물이 있다가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한다. 영아가 생활하는 공간 내에 익숙한 자리에 있던 물체의 위치를 하나씩 변화시켜 어떠한 물체가 달라졌는지 또는 놀이감이 있던 곳의 위치가 변했는지에 관심을 갖게 한다. 주변 공간에서 자주 접하는 물체의 다양한 모양을 지각하고 만져보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영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고 접하는 다양한 사물의 속성을 감각을 통하여 지각하고 알아가는 탐색활동이 충분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물체나 대상의 양을 세면서 '하나, 둘, 셋'으로 수 이름 말하는 것을 자주 경험하고 고유한 수 어휘를 학습하도록 지원한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둘·셋', '많다·적다', '높다·낮다', '동그라미·네모', '크다·작다' 등의 어휘를 듣는 경험을 자주하게 한다.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수학적 어휘를 적절히 사용해보도록 격려한다. 일상생활에서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적은 지, 늘어난 것, 줄어든 것은 어떤 것인지 등의 질문을 통해 영아가 기초 수학적 사고를 하도록 격려한다. 영아가 자신을 중심으로 물체가 위치해 있던 익숙한 장소에서 물체의 위치를 변화시킬 때 공간을 나타내는 수학적 어휘를 사용하여 상호작용한다. 영아가 생활하는 곳에서 익숙한 위치와 장소를 알도록, 자신을 중심으로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수학적 어휘를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자연탐구		
내용 범주	0~1세반 교사지침	2세반 교사지침
수학적 탐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음을 지각하고, '크다, 작다' 등의 어휘를 듣는 경험을 자주 하게 한다.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접하는 사물을 통해 수학적 어휘(하나, 둘,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여기, 저기)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한다. 영아가 일상에서 까꿍 놀이, 숨기기 놀이, 짹까꿍, 죄악죄악, 도리도리 놀이 등의 소리와 동작, 일과의 규칙성 등 다양하게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가 사물의 여러 가지 속성을 탐색하고 비교하도록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접하는 사물에 대한 탐색을 허용한다. 탐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지켜봐 주어 탐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영아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반복되는 동작과 리듬을 인식하고 반복적인 규칙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 영아가 흥미를 보이는 그림책에 나타난 주인공의 특정 동작이나 의성어, 의태어를 통해서 간단한 규칙성을 경험하게 한다. 일상의 간단한 순서를 알고 지키도록 격려한다. 여러 가지 놀이감(구슬 꿰기, 블록, 자연물, 자동차, 인형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수학활동을 하게 한다. 세어 보기, 모양 끼우기, 간단한 모양 맞추기, 점토놀이, 비교해 보기, 비슷한 것끼리 짝짓기 등의 활동을 통해 수학적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한다.
과학적 탐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에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빨기) 등의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제공한다. 영아들의 조작을 통해서 움직이거나 변화되는 놀이감을 제공한다. 영아들도 움직이는 곤충이나 떨어지는 나뭇잎, 열매 등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때 세밀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명체에 관심을 보이고 반응하도록 한다. 산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줌으로써 바람, 햇빛, 비, 눈 등의 자연현상을 느끼고 즐길 수 있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의지가 형성되는 시기로서 주변의 사물, 사람과 자연에 관해 특별히 흥미가 생기고 집중력이 발달하는 적기임을 고려한다. 물체를 움직이게 하거나 물질을 변화시키는 놀이를 통하여 능동적인 탐색을 북돋운다. 이 때, 영아의 시도를 그대로 따라해 보이며 "○○이가 ~하니 .. 되었구나?", "○○이가 ~해서 .. 만들었니?" 등의 질문을 하여 탐색을 격려한다. 탐색의 반경이 커지고 때때로 위험한 시도를 할 수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한다.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즐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공놀이, 물·모래놀이 등을 통하여 또래와 함께 물체와 물질을 탐색하도록 격려한다. 주변에서 동·식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생명체가 있음을 인식할 뿐 아니라 외적인 특성도 발견하게 유도한다.

Ⅲ.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운영 및 평가

		자연탐구	
내용 범주	0~1세반 교사지침	2세반 교사지침	
과학적 탐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 소리, 바람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직접 경험하게 하거나 경험을 한 후에 사진자료를 함께 제시하면서 녹음된 소리를 들려준다. 영아가 버튼을 누르거나 돌리는 등의 조작을 하면 소리, 움직임, 영상 등이 발생하는 놀이감을 제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햇빛, 날씨, 계절의 변화를 느낄 뿐만 아니라 눈, 비, 바람 등의 관련된 현상을 경험하게 한다. 생활기기, 가구, 조립 놀잇감 등 일상생활에서 도구와 기계에 대한 탐색에 관심이 많아지므로 이를 적극 격려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한다. 	

4.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과정 평가

영아반 교사는 연간, 월간, 주간보육계획이 연령에 적합하게 수립되고 실행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보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육과정 평가는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령별 목표와 내용을 근거로 삼아 실시하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영아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다.

평가 주기는 보육일지를 통한 일일평가, 주간평가, 월간평가, 반기별 평가, 연말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일일평가, 주간평가 시에는 교사 스스로 자신의 교수법, 자료 활용, 영아의 반응 등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다음 날 또는 다음 주 일과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월간평가나 반기별 평가, 연말평가의 경우에는 원장과 다른 연령반 교사가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 부모를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해 볼 수도 있다.

1) 프로그램 평가

- 보육계획에 대한 평가 : 표준보육과정을 근거로 각 연령별로 달성해야 할 보육목표와 내용이 연간, 월간 또는 주간보육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구체적인 보육활동을 계획할 때 영아 주도 활동과 교사 주도 활동의 균형, 개별 활동과 대소집단 활동의 균형, 일상생활 활동과 놀이활동의 균형 등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보육과정 실행에 대한 평가 : 교사가 계획한 월간 또는 주간보육계획에 따라 하루 일과 운영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교사 스스로 하루 일과 운영을 되돌아보는 일일 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교수법, 자료 활용, 영아의 반응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다음 날 일과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운영 및 평가

다음에 제시한 평가 지침은 하루 일과 진행 후 보육일지의 실행 및 평가란에 실행기록과 함께 간단하게 일일평가를 해볼 수 있는 일일평가 지침 예시이다.

번호	일일평가 지침 예시
1	활동과 자료가 영아의 발달과 학습에 적절한 수준이었는가?
2	하루 일과가 영아의 신체리듬,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획, 실행되었는가?
3	진행된 활동 중 영아의 참여 정도와 흥미 정도는 어떠하였는가?
4	실제 진행된 활동, 추가로 진행된 활동, 변경된 활동 및 이유 등을 기록하였는가?
5	활동의 시간 배정은 적절했는가?
6	어떤 점을 더 수정 보완해야 하는가?
7	교사 간 논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교사 회의록 등에 기록하고 있는가? (월 1회 이상)

2) 영아 평가

표준보육과정을 근거로 각 연령별로 달성해야 할 보육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아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영아 평가의 경우 일화관찰기록, 발달체크리스트, 활동결과물 분석, 부모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영아의 특성상 활동결과물 분석이 어려울 경우 활동사진 등을 함께 활용해보는 방법도 있다. 이외에도 활동하는 장면을 간단하게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부모면담 시 활용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영아의 일화관찰 기록을 통한 평가 지침 예시이다.

번호	영아 일화기록을 통한 평가 지침 예시
1	관찰 대상이 골고루, 정기적으로 관찰되고 있는가?
2	관찰 내용이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서술되고 있는가?
3	관찰 장소, 관찰 시간 등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가?
4	우유 먹기, 기저귀 갈기, 이유식 먹기, 잠자기(수면시간 중 영아의 얼굴 위치, 수면 시 움직임 등) 등 일상 양육에 대한 내용과 특별한 행동 등을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5	다양한 흥미영역에서의 놀이, 행동 특성, 또래 간 상호작용 등을 고루 포함하고 있는가?
6	실내, 실외, 견학이나 행사 등 일과의 모든 장소와 시간 중 영아가 나타내는 반응이나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가?
7	발달체크리스트(출처 명시)를 활용할 경우, 발달 체크와 함께 적절히 해석 또는 평가기록을 하고 있는가?

한편, 발달체크리스트를 통해 영아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때는 표준화된 발달체크리스트를 선정하여 활용한다. 표준보육과정의 연령별·수준별 세부내용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이해**



영아를 위한 일상생활 운영

- 일상생활
- 영양관리
- 건강관리
- 안전관리

IV. 영아를 위한 일상생활 운영

1. 일상생활

영아는 일상생활을 통하여 일평생 갖게 될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의 영아는 가소성이 풍부하여 일상생활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발달시키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좋은 습관 형성은 영아의 행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지적이면서 긍정적인 정서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은 영아의 개별적 욕구와 발달 특성에 맞게 경험하여야 하며,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활동이 하루 일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시범을 보여주고 행동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습관은 행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며, 습관을 구성하는 기술적 요소는 사고, 관찰, 숙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아가 교사의 일상적인 행동을 보고 생각하고 행동을 따라하게 한다.

둘째,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자칫 고정된 행동, 틀에 박힌 행동 양식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상생활에서 영아가 스스로 주어진 상황을 의식하면서 행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일관성 있게 지도한다.

셋째, 영아의 흥미가 충분히 고려되어 동기유발 되어야 한다. 기본생활 형성을 위한 지도는 영아의 흥미가 충분히 고려되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 한다. 교사는 영아의 적극적인 행동에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동기부여를 한다.

넷째, 영아의 개별적인 욕구와 행동 특성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개인차를 충분히 고려해주어야 한다. 영아는 개별적인 능력이나 발달정도가 각각 다르므로 영아가 나타내는 관심 정도나 수행 기술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영아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손 씻기, 이 닦기, 목욕하기, 낮잠, 기저귀 갈기, 배변훈련, 옷 입기 등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기본생활습관 지도는 일상생활에서 영아의 개별적인 욕구와 행동 특성을 수시로 관찰하고 개인차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1) 손 씻기

사람의 몸은 세균에 숫자를 줄여 주기만 하더라도 감염성 질환의 약 70%는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감염성 질환은 공기를 통해 코나 입으로 병원균이 직접 침입하기보다는 바이러스가 묻은 손을 눈이나 코, 입에 갖다 댄으로써 감염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영아와 보육교사는 자주 손을 청결하게 씻어야 한다.

〈 손을 씻는 시기 〉

영아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실 이용 후 간식, 점심 전 미술활동, 탐구활동을 한 후 실외놀이 후 요리하기 전 후 코를 풀거나 상처부위를 만진 후 애완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준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을 다루거나 먹고 마시기 전/후 영아에게 음식을 먹이기 전/후 수유 전/후 영아의 기저귀를 갈기 전/후 투약(특히 안약 등) 전/후 요리활동 전/후 어린이집 출근 후 변기사용 및 영아의 변기사용을 도와준 후 피, 토사물, 코 흘린 것 등 신체의 분비물을 만진 후 쓰레기통 사용 후 실외활동 후 애완동물을 만진 후 익히지 않은 육류와 가금류(닭고기, 달걀 등) 만진 후 손에 긴 일회용 장갑이나 고무장갑을 벗은 후 손이 더러워진 경우
조리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 시작 전 전화를 받거나 화장실을 이용한 후 식품검수, 육류, 어류, 난각 등 미생물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과 접촉 후 쓰레기나 청소도구를 취급한 후 귀, 입, 코머리 등 신체 일부를 만졌을 때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0~2세의 손 씻기 지도〉

0세	1세	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항상 손을 청결하게 한다. - 교사가 직접 씻겨 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항상 손을 청결하게 한다. - 교사가 영아의 손을 씻겨주면서 올바르게 씻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항상 손을 청결하게 한다. - 교사가 올바르게 씻는 방법을 행동으로 보여 주며 안내한다. - 혼자서 스스로 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지도한다.

2) 이 닦기

영아는 치아가 완전히 나지 않기 때문에 자칫 구강 위생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영아의 구강 위생을 청결히 하지 않으면 각종 호흡기 질환과 소화기 질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수유 후와 음식을 먹인 후에는 반드시 구강 위생을 청결하게 해주어야 한다.

〈0~2세의 이 닦기 지도〉

0세	1세	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가 나기 전의 영아는 수유 또는 이유 후에 가제 손수건을 꿰었다가 식힌 물에 살짝 적셔 손가락에 말아서 잇몸, 볼 안쪽, 입천장, 혀바닥을 부드럽게 닦아 우유 찌꺼기를 제거해 준다. (영아용 구강티슈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용 칫솔과 월령에 맞는 치약으로 치아의 앞·뒤 면을 5회 정도 닦아 준다. - 아직 이가 나오지 않은 부분은 가제수건을 꿰었다가 식힌 물에 살짝 적셔 잇몸 등을 닦아 준다. (영아용 구강티슈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용 칫솔과 연령에 맞는 치약을 사용하여 식사 후에는 반드시 이를 닦도록 지도한다. 가정과도 연계하여 이를 닦도록 지도한다. (1일 3회) - 영아에게 이 닦는 방법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이 닦기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스스로 이 닦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칫솔관리 방법

- 칫솔은 소독기 등을 사용하여 청결하게 관리한다. 소독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깨끗이 씻어서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시킨다.



- 칫솔의 교환 시기는 보통 3개월마다 교환해야 하며 칫솔모가 누워서 원래보다 넓어지거나 솔이 닳았을 때는 즉시 교환해주어야 한다.

3) 목욕하기

영아를 목욕시키는 것은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아에게 애정을 전해주고 신체를 관찰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목욕은 피부를 청결히 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발육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비누와 물로 매일 몸을 씻어주면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목욕을 통해 영아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 목욕 방법

- 목욕할 때 씻는 순서는 발가락 → 다리 → 손 → 팔 → 등 → 배 → 목 순으로 한다.
- 목욕 후 3분 이내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적당량 발라 준다.

■ 목욕 시 고려할 점

- 목욕을 오래 시키면 영아가 지칠 수 있으므로 적당한 목욕 시간은 샤워 5분 이내, 입욕은 10분 이내이다.
- 식전이나 식사 직후에는 목욕을 삼가는 것이 좋고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가 가장 적절하다.
- 목욕을 시키면서 이야기를 해주거나 노래를 불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목욕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한다.
- 교사는 영아를 목욕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영아의 신체를 손상시킬 수 있는 긴 손톱은 짧게 하고 반지나 시계, 귀걸이, 목걸이 등을 풀어둔다.
- 실내온도는 23~27℃ 정도가 적당하며, 목욕물의 온도는 38~39℃가 적당하다.
- 물이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온도계를 사용하든지 팔꿈치나 팔목을 목욕물에 넣었을 때 기분이 좋을 정도로 따뜻하면 적당하다.
- 목욕하는 동안 물이 차가워질 수 있으므로 뜨거운 물을 보충하여 물의 온도를 수시로 조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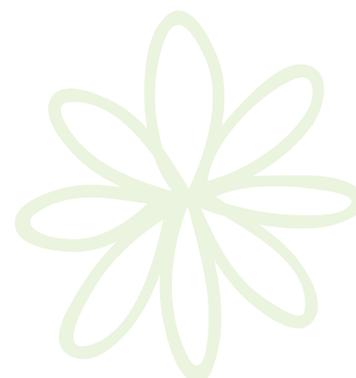
4) 낮잠

낮잠은 성장속도가 빠르고 활동량이 많은 영아에게 에너지를 재충전하여 건강한 생활 리듬을 갖게 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영아가 낮잠을 충분히 잘 잠으로써 적절한 휴식을 취하여 신체적 피로회복은 물론 정서적 안정을 갖고 오후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영아는 어릴수록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수면 습관이 다르므로 교사는 영아가 잠드는 습관과 자고 나서 깬 때의 행동을 잘 관찰하여 반영해야 한다.

〈0~2세의 발달 단계별 낮잠의 형태와 특성〉

월령	낮잠 형태 및 특성
1~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4~5회 걸쳐 20시간 정도 잔다. -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었을 때 눈을 뜨고 운다. - 2~3개월로 가면서 점차 수면시간이 줄어 든다. - 자기 전에 우는 경우에 자장가를 부르거나 요람을 가볍게 흔들어 주면 울음을 멈추고 잔다.
4~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자고 있을 때와 깨어 있을 때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 - 하루에 세 차례정도 낮잠을 잔다. - 밤에는 수유한 다음 바로자고 12시간 정도 계속 잠을 잔다.
7~8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보다 쉽게 잠들고, 깬 다음에 혼자서 기분 좋게 놀기도 한다. - 배가 고프면 자다가도 눈을 뜬다. - 오전에 자는 낮잠이 오후에 자는 낮잠시간보다 길다.
9~10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에는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방 안에서 밤을 잘 잔다. 잠들게 되면 머리를 옆으로 돌리거나 엄지손가락을 빨거나 몸을 비틀거나 발로 이불을 걷어차곤 한다. 이따금 뭔가 중얼거리기도 한다. 오전 중에 낮잠 자는 시간이 길고 이전보다 더 규칙적으로 자게 된다. 오후에 자는 낮잠은 깊이 들지 않고 불안정하기 쉽다.
11~1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의 일과표에 따라 다르다. 일정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가정이나 기관에서 자라는 경우 하루에 한번이 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낮잠을 자는 아기가 많다. 하지만 잠자고 싶어 하는 욕구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 자는 시간과의 관계를 잘 생각 하지 않으면 안 된다.
1년~1년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전에 잠자리 속에서 재잘거리거나 놀잇감을 갖고 놀거나 이리저리 움직이곤 한다. 낮잠은 2~3시간 정도 잔다. 일반적으로 점심 후에 낮잠을 자는 예가 많다. 낮잠을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잔다.



1년6개월~1년9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잠 자는 시간이 짧아져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된다. 잠자리에 들면 곧 꿈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 동안 실외에서 자주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기 전에 놀잇감을 갖고 한 차례 노는 일도 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놀잇감이나 이부자리를 붙잡고 있거나 품고 있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손가락을 빠는 일도 많은데, 걱정할 필요는 없다.
1년9개월~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잠을 자기 위해 잠자리에 들면 한참 동안 혼자서 놀이를 하는데 적당히 이불을 덮어 주면 잠이 든다.
2년~2년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잠을 자는 날과 자지 않는 날이 있다. 낮잠을 재우려 해도 안자는 날도 많다. 낮잠을 자지 않고 노는 영아와 반드시 낮잠을 자는 영아가 있는 것은 수면에 대한 개인차라고 생각해도 좋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 낮잠을 자다가 혼자 깨어나면 꾸물거리면서 좀처럼 일어나려 하지 않는다. 또 더 잘 것처럼 이부자리 속에 있는 경우도 있다.
2년6개월~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서 낮잠을 자는 영아도 있다. 그런 경우라도 잠자리 안에서 조금 놀고 난 뒤에 잠이 든다. 대부분은 한 시간 정도 낮잠을 잔다. 낮잠에서 깨어나면 기분이 좋지 않아 우는 경우도 많다. 늦게 잠이 들어 오후 10시경에야 일어나는 때도 있다. 낮잠은 그날의 활동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 출처 : 김혜경 외(2002). 효과적인 영아보육을 위한 지침서 제2권 영아반 운영의 실제. 서울 : 다음세대.

■ 낮잠시간 운영 시 유의할 점

- 낮잠시간을 일과에 포함시켜 계획하고 실시한다.
- 영아가 잠자기 전에 긴장을 풀고 편안한 시간을 갖도록 한다.
- 낮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 낮잠 잘 때 바른 수면자세를 갖도록 신경을 쓴다.
- 교사는 영아가 모두 잠이 들었어도 자리를 뜨지 않는다.
- 잠자는 습관이 영아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인 보살핌을 하도록 한다.
- 낮잠 시간의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낮잠을 준비하는 사전 활동을 충분히 한다.
- 영아에게 편안한 장소가 되도록 하고 개별 침구를 사용한다.
- 영아가 편안하게 잠을 깬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잠이 깬 후 개별적인 활동을 해주면서 영아가 기분 좋게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준다.

◆ 영아돌연사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 SIDS)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자는 동안에 갑자기 사망하는 현상으로, 사망 당시의 상황 및 현장조사, 또는 임상적 병력 분석, 사체부검 등 철저한 사후 검사에서도 불구하고 사망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영아돌연사(SUID : Sudden Unexpected Infant Death) 발생현황

최근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평균 6~7건 정도 영아돌연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영아가 수면을 취할 때 세심한 예방관리가 중요하다(2010년 6건 발생 접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집계, 우리나라 2009년에 84명- 사망원인 통계).

■ 영아돌연사(SUID)예방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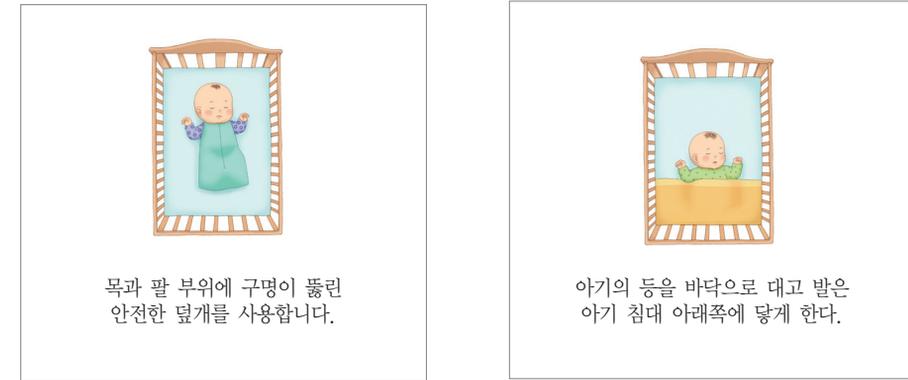
① 아기를 재울 때는 등을 바닥으로 하여 바로 눕힌다.



② 아기의 요나 침구 바닥은 단단한 것을 사용한다(폭신한 이불이나 쿠션, 쇼파 위 등은 위험함).



③ 아기를 재울 때는 이불로 머리와 얼굴은 덮지 않는다.



④ 아기가 자고 있는 주변에서 부드러운 물건, 놀잇감, 느슨한 이불 등을 치웁니다.



⑤ 아기가 자고 있는 동안 실내가 너무 덥지 않게 한다(실내온도 22~23℃ 권장).

⑥ 아기 주변에서는 흡연을 금합니다.

※ 밖에서 피우는 담배연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함

⑦ 성인과 같은 침대를 사용하거나 바로 옆에서 자는 것을 금합니다.



⑧ 침대 사용 시 다음과 같은 안정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 침대의 매트리스는 꼭 맞는 것으로 해서 아기가 침대와 매트리스 사이에 끼지 않도록 합니다.
 - 아기의 머리와 목이 구조물 틈새에 끼지 않도록 나사못, 돌출구조 등이 없어야 합니다.
 - 침대 창살의 간격으로 아기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며, 헐겁거나 부서져 있지 않도록 합니다.
- ⑨ 낮잠을 잘 때의 방은 어둡지 않게 하여, 아이의 얼굴 표정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 주 보육자의 위치에 맞추어서 천정에 거울을 달거나, 칸막이 문에 투명 강화 유리(투명 아크릴 등)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커튼 등은 수면 시 사용할 수 있지만, 아이가 잠들면 얼굴 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2011). 안전·급식위생 및 아동학대에방교육.

5) 기저귀 갈이

기저귀 가는 시간은 영아와 교사가 개별적으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교사는 기저귀를 가는 동안 부드럽게 이야기해주고, 청결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영아가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저귀를 갈 때는 절차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 기저귀 갈이의 원칙

- 기저귀를 갈 때에는 기저귀 갈이만 이루어져야 한다.
- 영아를 즉시 씻길 수 있도록 물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
- 기저귀 갈이대의 표면은 깨끗하고 방수가 되어야 하며 흠이나 틈이 없어야 한다.
- 기저귀 갈이 할 때에는 잠시라도 영아를 혼자두지 말아야 한다.

■ 기저귀 가는 순서

- ① 필요한 물품이 모두 있는지 체크한다. 먼저 두루마리 화장지나 종이 타월을 바닥에 깐다.
- ② 영아를 바닥에 깐 종이 타월 위에 두고 손으로 영아를 붙잡는다.
- ③ 더러운 기저귀/옷을 벗긴다. 기저귀를 플라스틱 봉지에 넣고, 옷은 집에 가져가도록 다른 플라스틱 봉지에 넣는다.
- ④ 영아의 사타구니를 미리 적신 종이 타월로 깨끗이 닦는다. 종이 타월은 플라스틱 봉지나 플라스틱이 둘러진 통에 넣는다. 바닥에 깐 종이 타월도 똑같이 처리한다.
- ⑤ 손을 씻은 종이 타월로 닦는다. 닦은 종이 타월도 플라스틱 봉지나 플라스틱이 둘러진 통에 넣는다.
- ⑥ 기저귀를 채우고 옷을 입힌다.
- ⑦ 영아의 손을 물비누와 흐르는 물로 씻기고 일회용 종이 타월로 닦아 돌려보낸다. 물휴지(물티슈)는 적절하지 않다.
- ⑧ 기저귀 간 곳과 손 댄 물품을 깨끗이 닦고 소독한다. 어린이집 교사도 손에 물비누와 흐르는 물로 씻고 일회용 종이 타월이나 건조기에서 말린다.

■ 기저귀 갈 때 고려할 점

- 설사하거나 영아의 옷에 대변, 소변, 피, 구토물이 있어 기저귀를 갈다가 손에 묻으면 즉각 멈추고 먼저 물에 적신 휴지로 손을 닦아 오염을 막는다.
- 상업용 물휴지를 사용하여도 되지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아마다 각각 물휴지통을 달리하고 이름을 명기하여야 한다.
- 손을 씻는 싱크대는 물을 먹거나, 우유병을 씻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수업 활

동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가급적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고, 장갑을 사용할 경우 기저귀를 간 후 바로 벗어버려야 하며, 그 장갑을 끼고 다른 영아 기저귀를 채우거나 다른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절대 장갑을 재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기저귀 가는 곳은 싱크대가 옆에 있어야 하며, 물을 흘려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물비누, 일회용 종이 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기저귀 탁자는 재질이 강하고, 표면이 미끈하고, 방수 처리가 되어야 한다. 표면이 금이 가거나 벗겨져서는 안 된다.
- 플라스틱 백으로 감싼 두 개의 휴지통이 있어야 하며, 영아의 이름을 명기한다. 한 개는 더러운 기저귀를 담고, 한 개는 더러운 옷을 담아서 집으로 보내져야 한다. 더러운 기저귀나 옷을 음식이나 병, 칫솔, 깨끗한 옷과 같이 담아서는 안 된다.
- 영아가 대변을 보았을 때 특히 여아는 앞에서 뒤로 닦아야 한다. 반대로 닦으면 요도에 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출처 : 보건복지부(2011). 어린이집 건강관리 매뉴얼.

■ 기저귀 발진 예방

- 소변은 산성이라서 영아의 약한 피부를 자극하여 피부 문제를 발생 시키거나 더 악화시키므로 기저귀를 갈아야 할 시기를 잘 맞추어 갈아준다.
- 기저귀를 갈 때 영아의 피부에 남아 있는 소변과 대변의 성분을 말끔히 제거하고 적당히 건조시킨 다음에는 적절한 보습제를 발라주어야 한다.
- 영아의 둔부와 외음부의 피부가 항상 청결하고 건조하며 적당한 유분이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
- 기저귀 발진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진부위를 깨끗이 씻겨 건조시키고 처방된 연고제를 발라준다.
- 기저귀 발진 원인균은 효모균으로 습하고 유기물이 많고 따뜻한 조건에서 잘 번식하므로 자주 통기시킨다. 이 때 파우더는 사용하지 않는다.

6) 배변훈련

배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로써 영아의 바람직한 배변습관은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아는 자신의 배설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여 자주 실수를 하게 된다. 이때 교사는 영아를 긴장하게 하거나 억압적인 분위기를 만들면 영아가 배변에 대하여 부정적인 자세를 갖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영아의 배설기관 조절 능력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므로 적절한 배변훈련의 시기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영아는 배변을 조절하는 괄약근은 영아의 신체 근육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므로 배변훈련이 부모나 교사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이고 좋은 습관을 갖게 하려면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으로 교사는 영아의 배설 양과 횟수, 배설습관의 변화를 주시하고 신체적, 생리적 건강상태를 관찰하여 건강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해야 한다.

■ 배변훈련의 적절한 시기

- 영아는 동일한 단계를 밟아서 배변을 가릴 수 있게 되지만 그 시기는 영아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 배변훈련은 생리적으로 방광과 대장을 조절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생리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시작하기 어렵다.
- 배변훈련은 영아 혼자서 설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기 위해 한 두 마디 말을 하거나 내적 요구를 알려 줄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때야 가능하므로 그 때까지 그냥 두는 것이 좋다. 배변훈련시기는 영아가 방광과 항문의 괄약근을 통제할 수 있는 생리적인 능력이 생길 때 쯤 대략 18~24개월 사이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IV. 영아를 위한
일상생활 운영

〈영아의 배설기관 조절 능력 발달〉

장 조절(배변조절)		방광 조절(배뇨조절)	
6개월	장 움직임의 조절 시작	15~16개월	방광조절시작
18개월	장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지각	18~24개월	소변을 보고자 하는 신호를 보임
18~24개월	움직임이 다가온다는 신호를 보임	2년~2년 6개월	소변을 보고자 혼자 변기로 감. 흥분, 피로, 병 또는 어떤 활동에 몰두한 탓으로 실수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낮 동안 배뇨통제 능력이 생김
2년	흥분, 피로, 병으로 인해 실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절 능력이 생김		
2년~2년 6개월	대변을 보고자 혼자 변기로 감	3년~3년 6개월	이따금 실수하지만 밤에도 통제력이 생김

※ 출처 : 김혜경 외(2002), 효과적인 영아보육을 위한 지침서 : 제2권 영아반 운영의 실제, 서울 : 다음세대.

〈발달단계에 따른 배변행동과 교사의 역할〉

월령	배변행동 특징	교사의 역할
15개월 이전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저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기이다. - 영아는 자신의 대변이나 소변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하므로 배변훈련을 할 수 없다. - 대개 15개월이 가까워지면서 배변횟수가 줄어들고 배변시간도 일정해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각 영아의 배변행동 리듬을 미리 파악하여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 기저귀를 갈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 배변행동의 횟수나 양·상태 등은 영아의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영아의 배변상태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관찰은 영아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고, 이후의 배변훈련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연결되게 한다.
15개월 ~ 24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변훈련이 가능해지는 시기이지만 영아마다 개인차가 크고 기관이라는 상황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갖게 한다. 또 영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를 하는 것은 영아에게 반항할 기회를 주게 될 수도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일괄적으로 특정 월령을 정해 배변훈련을 지도해서는 안 된다. 가급적이면 비슷한 월령의 다른 친구의 대소변 가리기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게 하면서 영아 스스로 변기에 앉으려는 의도를 보일 때 실시한다.

15개월 ~ 24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친구들이 화장실이나 영아용 변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기저귀 대신 변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영아가 배우는 과정에 있는 새로운 기술일 뿐이다. 평범하게 강요 없이 배변훈련을 한 영아는 몇 주일 정도면 으레 변기를 사용하게 된다. - 대변에 대한 변의를 느끼기 시작할 무렵 영아는 소변을 보고 싶다는 감각도 느끼지만 소변의 경우는 보고 싶다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싸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소변 가리기를 가르칠 시기는 나오려는 오줌을 잠시라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개 대변은 15개월, 소변은 20개월 정도가 되어야 가릴 수 있게 된다. 기저귀를 채우지 않는 상태에서 주의 깊게 살피거나 일정 시간에 누이고, 특히 잠자기 전과 후에는 반드시 누게 한다. - 18개월이 지나면서 교사는 관찰을 통해 영아의 배변 의사를 파악하고, '쉬할래?', '응가했구나' 등의 말로 표현해준다. - 대변의 경우는 일정한 시간에 변의를 느끼며 실제 변을 보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조금만 도와주면 변기에 앉힐 수 있다. 그러나 싫다고 할 때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 - 변을 본 후에는 그저 평범하게 잘 했다고 말해 주는 것이 좋다. 잘 하면 착하고 잘 못하면 나쁜 것이라는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 배변훈련의 시작 시기는 배변 후 그 사실을 표현하거나 2시간 이상 기저귀를 적시지 않고 배변이 규칙적인 경우, 또 변이 묻은 기저귀를 싫어하여 변기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 등의 행동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
	24개월 ~ 29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는 24개월 전후를 기점으로 대소변을 가리게 된다. - 기저귀를 차지 않을 경우 자주 실수를 하는 시기이므로 지도교사의 민감한 관찰과 너그러운 태도가 요구된다. - 영아는 놀이에 몰두하다가 대소변 신호를 놓치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IV. 영아를 위한
일상생활 운영

30개월
~
36개월

- 배설 전에 '쉬' '응가'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소변을 보다가 멈출 수 있을 만큼 방광의 조절 능력이 발달하고 70%정도가 낮에는 소변을 통제할 수 있다.

- 영아는 배변을 개인적 상황으로 생각하여 화장실 문을 닫고 혼자서 용변보기를 원한다. 이때 교사는 혼자 있으려는 영아의 욕구를 존중해주고 뒤처리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영아는 일시적으로 실수할 수 있으므로 놀리거나 야단을 치지 않고 너그럽게 대해주어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영아가 실수하는 경우는 지나치게 피곤하거나 흥분하였을 때, 긴장하거나 놀이에 열중하였을 때, 가정이나 기관에 환경 변화가 있을 때, 혼자서 옷을 입고 벗기가 어려울 경우, 벨트나 멜빵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출처 : 김혜경 외(2002). 효과적인 영아보육을 위한 지침서 : 제2권 영아반 운영의 실제. 서울 : 다음세대.

■ 배변훈련 준비와 방법

① 영아에게 적합한 변기를 사용한다.

- 영아가 앉았을 때 편안하고, 또 앉은 상태에서 움직여도 쉽게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고 씻어내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남아 변기는 소변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막이 달린 것이 필요하다.

② 변기가 무엇인가를 우선 가르친다.

- 영아에게 아기용 변기를 보여주고 그 용도를 설명해준다. 배변영역을 보육실의 한 영역에 둘 수도 있다. 다만 놀이감이 아니라 분명하게 설명해준다. 영아는 장난감 인형을 그 위에 앉혀 보기도 하고, 스스로 의자에 앉는 것처럼 걸터앉아 보기도 한다. 이 때 기저귀를 벗기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앉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③ 기저귀를 빼고 앉히는 시기를 판단한다.

- 영아가 대소변을 보기 전에 변의를 느끼고 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를 관찰한다. 특히 대변을 보기 직전에는 몸이 굳어지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등 금방 알 수가 있다. 이 때 영아가 교사를 쳐다보거나 말로 표현할 경우 변기에 앉혀 볼 수 있다.



④ 대변은 소변보다 가리기가 훨씬 쉽다.

- 우선 하루에 한두 번밖에 보지 않고, 지나치게 압박을 가하지 않는 한 거의 일정 시간에 보게 되기 때문이다. 영아가 변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면 변기가 느껴질 때 영아에게 변기에 앉아보라고 권해본다.

⑤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지 않는다.

- 용변가리기는 영아가 원할 때만 가능하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금방이라도 변을 볼 것 같아도 싫다고 하면 야단을 쳐가면서까지 변기에 앉히려 해서는 안 된다. 교사가 신경을 쓰며 시키려고 할수록 영아는 변기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수도 있다.

⑥ 지나친 반응은 금물이다.

- 변기에 변을 보아도 평범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 지나친 반응은 영아에게 스트레스로 남을 수 있다. 또 영아가 기저귀에 싸 버려도 야단을 치지 않는다. 변기 사용은 이제 영아가 배우는 과정에 있는 새로운 기술일 뿐이다.

⑦ 영아 스스로 하도록 도와준다.

- 배변훈련 중인 영아는 혼자서 옷 입고 벗기를 좋아한다. 옷 입고 벗기 등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영아는 변기 사용에 더욱 적극성을 보이게 된다.

⑧ 일정한 시간에 배변훈련을 해 본다.

-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영아의 배변 시간이 규칙적이 된다.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서, 낮잠 전후, 식사 전후, 밤에 잠자기 전에 소변을 보게 되므로 그 시간을 활용해 본다.

⑨ 화장실 사용 순서를 익히게 한다.

- 영아가 화장실에서 어떻게 옷을 입고 벗으며 용변을 볼 것인지 그림으로 붙여 주어 익숙하게 해 준다.

■ 배변훈련 시 고려할 점

- 배변훈련을 강제로 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변기에 앉아 5분이 지나도 변이 나오지 않으면 영아를 변기에서 내려주고 내리는 순간 배변해 버려도 꾸짖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배변에 성공했을 때는 반드시 아낌없이 칭찬해 주어야 한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유아가 변기에 앉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변기에 억지로 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수했을 경우는 꾸짖지 말고 요령 있게 부추겨 주고 영아가 일어나려고 할 때는 앉아 있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영아들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의지로 대소변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변기에 대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장소라는 친밀감을 느끼게 될 때까지는 대변이나 소변에 관한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영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노는 동안 아랫도리를 벗겨 놓도록 한다. 영아 변기를 가까운 곳에 두고 혼자서 해보라고 이야기 한다. 영아가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는 한 두 시간 마다 상기시키며 혼자 해 보도록 한다.
- 배변을 본 후 변기의 물은 영유아가 화장실에서 나간 뒤 내리는 것이 좋다. 영유아에 대한 배려이며 자칫하면 영유아가 자존심을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영아용 변기는 사용한 뒤 깨끗이 소독하는 것이 좋고, 처음에는 방수 팬티를 입히는 것이 편리하다. 어떤 영아는 의자 밑에 구멍이 뚫리고 밑에 용기가 붙어 있는 변기를 더 좋아하기도 한다.
- 가끔 기저귀나 마룻바닥, 변기에 있는 자기 대변을 보면서 대변 냄새를 맡는 영아가 있다. 이 시기 영아는 자신의 대변에 소유감을 느끼며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한다. 무엇이든 통에 주워 담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변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신호이다.
- 배변훈련에 영아가 싫증을 내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또는 실수를 하거나 했을 때는 다시 기저귀를 채운다. 보통 21개월이 되면 대변의 느낌을 미리 알리고 24개월이 되면 소변이 마려운 것까지 미리 알릴 수 있다.
- 배변훈련은 부모와 상호협약하여 가정에서도 연계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 옷 입기

영아는 신진대사 활동이 왕성하여 땀을 많이 나고, 외부의 기온이나 신체적·생리적 변화에 민감하므로 영아에게 적합한 옷을 입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아에게 적합한 옷은 신생아 시기에는 입히고 벗기기가 쉬워야 하고 땀을 잘 흡수하고 보온성 등이 좋아야하고, 신체적 성장에 따라 영아의 요구와 흥미에 맞아 좋아하는 옷이어야 한다. 부모에게 영아가 등원 시에 불편해 하거나 거추장스러운 옷(멜빵바지 등)을 입고 오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옷 입기 발달단계에 따른 행동특성〉

월령	옷 입기 발달 단계에 따른 행동 특성
9개월	모자 쓰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손으로 벗겨 낸다. 그런 행동을 몇 번씩 되풀이하기도 한다.
11개월	옷을 입힐 때 시키지 않아도 소매에 팔을 끼우려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손쉽게 입힐 수 있다. 그런 동작에서 상대방에게 협력하려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팬티를 입힐 때에도 자기가 알아서 발을 집어넣고 스스로 팬티를 벗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자주성이 시작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옷에 달려 있는 단추에 호기심을 품고 그것을 이리저리 비틀어 보며 갖고 논다. 모자를 쓰면 외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 스스로도 모자 벗는 것을 재미있어 하기도 한다. 신발이나 신발 끈을 갖고 노는 데에 흥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외출할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영아의 흥미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좋다.
1년 ~ 1년 6개월	옷을 갈아입힐 때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다. '앞을 똑바로 봐야지'라고 해도 놀잇감을 만지작거리거나 다른 데 관심을 갖느라 옷을 갈아입히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시기의 특징이다. 옷이나 모자, 팬티, 신발 등에 흥미를 갖고 그것들을 잡아당겨 질질 끌거나 손에 쥘 채 걸어 다니기도 한다.
1년 6개월 ~ 2년	병어리장갑이나 신발~모자 등을 혼자서 벗을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해지면 옷 갈아입기를 즐기게 된다. 차츰 옷, 특히 간단한 티셔츠 등을 혼자서 벗을 수 있다. 가정에서는 옷을 벗고서 알몸으로 뛰어다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지하는데 어려울 때가 있으며 쫓아가면 더 멀리 도망가며 즐거워한다.

※ 출처 : 여성부(2002). 영아보육 모형.

2. 영양관리

영아기의 영양섭취나 식습관 형성이 일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연령과 발달에 맞게 균형 있는 영양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영아에게 제공되는 수유, 이유식, 급식 및 간식 등은 영아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는 계획적인 식단이 작성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수유, 이유식, 일반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 조리과정, 배식관리가 청결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아에게 수유를 할 때는 편안하게 안아서 우유(모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하는 영아는 고형식에 점차 적응하도록 기호에 맞추어 제공하며, 일반식을 하는 영아는 식사에 즐겁게 참여하여 스스로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공하는 음식은 영아의 기호를 충족하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식재료 구입하여 새로운 음식에 대한 적응력도 키워 가야한다.

따라서, 영양관리는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와 열량을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수유, 이유, 급식 및 간식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영양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영아의 수유, 이유식, 급식, 간식은 영아에게 필요한 영양이 균형 있게 계획되고 영아의 개별적 욕구와 식습관을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영아에게 제공되는 식단은 전문 영양사에 의해 작성되어 영양적 균형을 이루고 영아의 발달 단계에 적절하고 다양한 형태로 조리되어 제공하여야 한다.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식약청 등 제공 식단)
- 부모님들이 영아들에게 제공되는 식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교사는 특별한 개별적 요구가 있는 영아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모유 수유, 이유식, 간식, 급식 시에 배려하고 지도한다.

- 제철과일, 견과류, 오이, 감자, 고구마 등의 자연식품을 영아에게 자주 제공하도록 준비한다.
-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도한다. 교사도 영아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의 식습관 등을 관찰하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면서 기분 좋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안정되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어린이집에서는 영아를 위한 급식 및 간식이 단순히 영양적인 필요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조리하고 배식하여 바람직하게 먹는 과정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1) 모유 수유

모유는 영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와 면역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어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식품으로 가능한 가정에서 착유하여 어린이집에 보내 수유하는 방법은 매우 바람직하다.

■ 모유 보관

모유의 보관은 손이나 유축기로 짜낸 신선한 모유는 상온(25℃)에서 6~8시간 정도 보관이 가능하나 실내온도나 계절적 변화를 고려하여 냉장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냉장보관은 4℃에서 3~5일 동안 가능하며, 그 이상 보관하려면 냉동보관하도록 한다. 냉동 보관 영하 15℃에서 2주간 가능하며 감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 모유 수유 방법

냉장 보관한 모유 수유 방법은 24시간 이내에 중탕 후 수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냉동된 모유는 냉장고에서 12시간 해동 후 중탕하여 수유하고, 한번 해동한 모유는 다시 냉동하지 않으며, 금방 짜낸 젖과 혼합하여 수유하지 않는다. 냉동 보관 모유는 전자레인지 사용하지 않는다.

2) 조제유 수유

조제유는 유지방이 있어 개봉한 후 산소와 접촉하게 되면 갈변 및 지방산 산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사용해야 한다.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개봉한 후에 색 또는 냄새가 변질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조제유는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선선한 곳에 보관한다.

■ 수유준비

- 우유병 3~4개, 분유 계량 숟가락, 긴 숟가락, 소독기 주전자, 보온 주전자, 분유통 등을 준비한다.
- 각 우유병에는 영아의 이름을 표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다.
- 분유를 준비하는 사람은 손에 상처가 없어야 하며 준비 전에 손을 잘 씻는다.
- 사용하는 모든 기구 또한 깨끗하게 세척하며 매일 한 번씩 열탕소독을 실시하고 개인 젓병이나 젓꼭지가 섞이거나 바뀌지 않도록 유의한다.

〈월령별 수유횟수 및 1회 수유량〉

월령	수유횟수(1일)	수유량(1회)	비고
1주~1개월전	3시간 간격	120~140ml	
1~3개월	5~6회	140~180ml	
4~5개월	이유식 시작 후 4~5회	180~210ml	이때부터 취침 전 수유하지 않아도 됨
6~8개월	3~4회	210~240ml	
9~12개월	2~3회	210~240ml	

※ 출처 : 식약청(2012)어린이 급식관리 지침서.

■ 트림시키기

- 모유를 먹일 때와 같은 자세로 편안하게 안아서 안정된 분위기에서 먹인다.
- 분유를 조제할 때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량대로 물에 탄다.
- 수유 시간은 보통 15분 정도가 적당하다.
- 조제하여 수유한 후 남은 우유는 바로 버려야 한다.

• 수유가 끝나면 영아를 안고 트림을 시켜주는 방법은 다음 같이 3가지가 있다.

① 영아를 곧추 안고 등을 가볍게 쓸어 준다.



② 영아를 수유자 무릎에 바로 앉히고 가볍게 쓸어준다.



③ 영아를 무릎에 엮드리게 하고 등을 쓸어 준다.



■ 수유 시 유의할 점

- 수유 시 젓병을 물리고 잠을 재우지 않는다.
- 젓병 없이 자는 것을 낯설어하는 아기라면 보리차나 생수 등을 젓병에 넣어 주어서 익숙해지도록 유도한다.

IV. 영아를 위한 일상생활 운영

- 젖병을 뺀 채로 자는 것을 습관화하지 않는다. (심할 경우 젖니가 완전히 올라오기도 전에 치아가 썩어서 자랄 수 있음)
- 수유 후에는 보리차를 마시게 하거나, 거즈에 물을 묻혀 잇몸과 혀바닥을 닦아 준다.
- 손가락을 너무 깊숙이 넣으면 아기가 구토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주의한다.

3) 이유식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나 보통 영아가 생후 4~6개월이 지나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영아는 3개월 이전에는 전분을 소화시키지 못하며 입자가 큰 단백질을 그대로 흡수하여 알러지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너무 늦어지면 영아가 늦도록 엄마 젖이나 우유병에 매달리게 되고 성장발육이 늦어지며 생후 6개월 정도가 되면 체내에 저장해 두었던 철분을 다 사용하게 되므로 빈혈이나 신경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조제유를 먹이는 영아의 경우 하루 동안 섭취하는 우유가 1,000cc를 넘고 이전에 비하여 쉽게 배고픔을 가질 때를 이유식을 공급해야 하는 시기로 잡는다.

〈월령별 이유식 단계〉

단계	월령	진행내용
이유 준비기	3~4개월	- 수유시간을 4시간 간격으로 조절하고, 횟수는 5~6회로 한다. - 처음에는 사과즙, 당근즙, 맑은 죽(감자, 곡류 등) 등을 한 두 스푼에서 점차 양을 늘려간다. - 먹인 후에는 배변 등을 관찰하고, 설사, 구토, 피부반응 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유 초기	5~6개월	- 이유식을 주는 횟수는 1~2회 정도로 이유식을 먼저 먹이고 우유를 준다. - 입자가 고운 죽, 곱게 간 과일, 으갠 감자, 흰살 생선, 달걀노른자 등 액체 상태의 음식이나 입자가 고운 죽 등을 먹인다.
이유 초기	5~6개월	- 이유식을 주는 횟수는 1~2회 정도로 이유식을 먼저 먹이고 우유를 준다. - 입자가 고운 죽, 곱게 간 과일, 으갠 감자, 흰살 생선, 달걀노른자 등 액체 상태의 음식이나 입자가 고운 죽 등을 먹인다.

단계	월령	진행내용
이유 중기	7~8개월	- 수유와 이유식의 양이 거의 같아지는 시기이므로 이유식은 2~3회로 늘리고 이유식을 먼저 먹이고 우유를 준다. - 모든 종류의 곡류, 채소류, 감자류, 과일류, 달걀, 콩, 육류, 생선류 등이 가능하다.
이유 후기	9~11개월	- 이유식의 횟수는 3~4회 정도이고, 먹는 시간은 성인의 식사시간과 비슷하게 한다. - 모든 종류의 곡류, 채소류, 감자류, 과일류, 달걀, 콩, 육류, 생선류 등이 가능하다.
이유 완료기	12개월	- 이시기에 줄 수 있는 식품은 성인과 거의 비슷하나 소화되기 쉽고 자극적이지 않은 맛과 향을 주는 조리법으로 제공해준다.

〈이유식의 기본진행방법〉

진행방법		시기	초기	중기	후기
월령			4~6개월	7~8개월	9~12개월
횟수	이유식+모유(분유)		1회	2회	3회
	모유나 분유		4회	3회	2회
조리형태			겉쪽한 상태	혀로 으갠 수 있는 상태	잇몸으로 으갠 수 있는 상태
식품 1회	I	곡류	으갠죽 5~10g (1~2스푼)	으갠 죽 - 죽 30~70g (이유식 그릇 1/3~2/3)	죽-진밥 80~100g (이유식 그릇 2/3~1)
	II	달걀	노른자 1/4개	노른자 - 통째 1/2~1 1/2개	통째 2/3~1개
		고기	5~10g (2~4스푼)	10~20g (4~8스푼)	20~30g (8~12스푼)
III	야채	5~10g (1~3스푼)	10~30g (3~10스푼)	30~40g (10~13스푼)	

4) 급식 및 간식

급식은 영아가 많은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므로 영아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급·간식 식단을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계획적인 급·간식은 영아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은 물론 다양한 식단으로 식욕을 돋우며, 편식을 방지하고 즐거운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간식은 활동량이 많은 영아에게 성장에 필요한 열량의 보충과 균형적인 영양소 공급을 위하여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간식은 식사와 달리 제철 과일이나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하여 맛볼 수 있게 하고, 비타민, 무기질 등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제공하여 영양을 보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위한 식단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급식을 위한 식단 구성 시 고려할 사항

- 급식은 영아의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 100인 미만 어린이집은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거나 식약청 등에서 제공하는 식단을 활용할 수 있다.
- 급식은 간식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종류와 조리방법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식단표에는 점심, 간식 2회(오전, 오후)가 계획되어야 한다.
- 급식은 탄수화물(쌀, 감자, 식빵, 국수 등), 단백질(육류, 어류, 계란, 콩 류 등), 유제품(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 비타민 및 무기질(과일, 채소류 등) 등이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계획한다.
- 영아의 식사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의 형태, 크기, 맛, 조리방법 등을 적절하게 하여 편식을 방지한다.
- 음식은 당일 조리하여 배식하고 남은 음식은 다시 배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계획된 급식을 제공한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식단이 변경되어 제공된 경우에는 식단표에 수정하여 기록한다.

■ 간식을 위한 식단 구성 시 고려할 사항

- 간식은 급식과 함께 영아의 발달에 필요한 열량과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 간식은 영아의 요구와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회를 제



공한다.

- 계획된 식단표에 따라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등의 간식을 제공한다.
- 신선한 과일(예: 사과, 배, 귤, 감, 밤 등)
- 채소(예: 감자, 고구마, 옥수수, 오이, 토마토, 딸기, 참외, 수박 등)
- 유제품(예: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
- 간식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가 바람직하며,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여 영아의 기호에 맞게 제공한다.
- 식품 첨가물(예: 유화제, 발색제, 보존제 등)이 함유된 인스턴트식품, 탄산음료, 냉동식품, 과자류는 가능한 간식으로 제공되는 것을 피한다.

5) 급식 위생

급식 및 간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가 집단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의 급식 및 간식의 위생관리는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조리실은 매일 식사와 간식이 준비되는 곳으로 조리공간과 설비, 식기, 비품 등은 매일 청소와 소독을 하며, 자주 환기를 하는 등 쾌적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식재료 관리, 조리 및 배식과정이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집단 급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어러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실 공간 및 설비, 비품 등의 청결과 위생을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 조리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리실(바닥, 벽, 천 정 등)은 매일 청소하고 소독을 하며 자주 환기를 시킨다.
- 냉장고, 조리대, 식기건조대, 조리 도구, 식기 등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 냉장고의 내부는 항상 정리정돈하며, 음식물 등이 묻어 있지 않도록 하고 소독하여 자주 건조한다.
-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도 매일 청결하게 하고, 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 등

IV. 영아를 위한 일상생활 운영

에 찌든 때가 없도록 매일 청결하게 한다.

- 칼, 도마, 행주, 식자재 바구니 등은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의 높이에 보관한다.
- 도마, 행주, 고무장갑, 수세미 등은 소독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소독하여 보관한다.
- 영유아용 물컵은 먼지와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청결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 영아용 개별 컵을 준비하거나, 청결한 컵을 여러 개 비치하고 사용 전 과 사용 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수유에 사용하는 젓병과 젓꼭지는 항상 소독하여 청결한 상태에서 사용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식자재, 조리 과정에서 청결과 위생을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 모든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식자재 검수 시 수량, 신선도, 품질,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한다.
- 각 식재료별 보관방법을 확인 한 후 적합하게 냉장, 냉동, 실온 보관하며, 선입 선출을 지킨다.
- 우유 등과 같이 쉽게 변질 할 수 있는 식품이 장시간 상온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음식 조리는 영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의 형태나 크기, 맛, 조리방법 등을 결정한다.
- 조리하여 먹고 남은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는 반드시 폐기한다.
- 유통기한이 없는 식품(예: 떡 등)은 당일 소비한다.
- 보존식은 채취일자와 폐기일자를 기록하여 72시간 동안 냉동 보관(-18℃)한다.
- 취사부는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음용수의 경우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한다. 특히, 정수기의 경우 꼭지와 필터는 정기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모유나 우유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고 분유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먹다 남은 우유는 즉시 버리도록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배식 과정에 다음과 같이 청결과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 조리된 음식은 적절한 온도로 보관(찬 음식은 10℃ 이하, 더운 음식은 57℃ 이상)하고 세척, 소독된 용기에 담아 덮개를 덮어 2차 오염을 방지한다.
- 위생적인 배식을 위해 식탁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교사와 영아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 교사는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배식용 앞치마를 착용한다.
- 뜨거운 찌개나 국물은 적절한 온도로 식혀서 운반하고 영아가 만지지않도록 주의하여 배식한다.
- 각각의 음식마다 집게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여 위생적으로 배식한다.

6) 식생활 습관지도

어린이집에서는 영아의 발달 단계와 영양적 필요를 고려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아들이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아를 위한 식생활 지도는 연령에 따른 식습관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영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조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반복해서 지도해야 한다.

〈영아의 식습관 발달에 따른 행동 특성〉

연령	영아의 행동 특성
6개월	6개월경에는 하루 3~4회의 우유를 먹는데, 한 차례에 8~10분 정도 소요되며 차차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이외에도 반 유동식이나 단단한 음식을 조금씩 먹게 된다. 손가락이 보이면 입 모양을 바꾸고 입술로 손가락을 덮는다. 또 어른의 손을 쥐기도 하여 음식을 자주 얹지르게 된다.
9개월	9개월경에는 하루 세 차례의 이유식과 낮잠 뒤에 두 차례의 우유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유를 빠는 힘이 세지고 쪽쪽 들이키기 때문에 먹는 속도도 빨라져서 3~4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고형식도 잘 씹어 먹고 손가락을 내밀면 입을 벌리고 아랫입술을 끌어당겨 음식을 받아들인다. 그릇에 입을 대고 물 같은 것을 마시게 하면 계속해서 한두 모금 마시지만 그릇을 떼면 입 밖으로 흘려버리는 데 흘린 음식을 손가락으로 집어먹기도 한다.
11개월	식사가 손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때가 생기는데, 그것은 식사를 하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 놀잇감을 갖고 놀기 때문이다. 우유 먹는 횟수는 영아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한 차례가 적당하다. 컵에 손을 대고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마시기 위해 머리를 젓기 시작한다. 하지만 제대로 마시지 못해 흘리는 일이 잦아지는데 이 때 야단을 쳐서는 안 된다. 영아는 실패의 체험을 통해 기술이 진보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가리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도 이 무렵이다.

IV. 영아를 위한 일상생활 운영

1년 ~ 1년 6개월	우유병을 이용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컵을 입에 대고 마신다. 하지만 우유병으로 마시고 싶어 하는 영아도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낮잠 자기 전후에 개별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기도 한다. 그릇에 담겨 있는 음식을 보면 손가락을 사용하려 하는데 음식물 속에 손가락을 넣지만 떨어리는 동작은 어렵다. 그래서 손으로 집어 입 속에 넣고 한다. 물이나 국 등은 서툴지만 혼자서 양손에 쥐고 마실 수 있게 된다. 이때의 두드러진 특징은 서툰 상태에서도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먹으려 한다는 것이다.
1년 6개월 ~ 1년 9개월	먹는 방법이 능숙해 지는데 턱과 혀를 사용해서 음식을 잘게 씹을 수 있다. 또 얼굴을 움직여 입 속의 음식을 먹기 쉽게 조절하여 삼킬 수 없는 것은 입에서 뱉을 수도 있다. 즉, 혼자서 식사하는 기능의 발달을 확인할 수 있다. 손가락을 한 손에 쥐고 다른 손으로 음식을 손가락 위에 올려놓거나, 팔꿈치를 사용하여 입으로 가져가는 등 손가락 사용법이 점차 능숙해진다. 양손으로 컵을 사용하지만 접시는 자주 놓친다. 먹으면서 흘리는 것도 이 무렵의 특징이다. 그것이 싫어서 어른들이 먹여 주면 자주성의 발달은 더욱 늦어지게 되므로 혼자서 먹을 수 있을 때 칭찬을 해주는 일이 중요하다. 이 시기는 식사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식사 중의 변화에 민감하여 이동이 잦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서도 키 높은 식탁의자에 앉히는 방법을 고려해본다.
1년 9개월 ~ 2년	식욕이 왕성해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탐하기 시작하며 음식에 대해 좋고 싫음을 분명히 밝히게 된다. 또 맛이나 혀의 감촉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음식의 형태에 대해서 좋고 싫음도 나타나게 된다. 식탁 앞에서의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것도 이때인데 항상 사용하는 손가락이나 컵 등을 요구하는 일이 생긴다. 식사 중 음식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놀고 장난하는 일도 많이 생기지만 그대로 혼자 먹도록 유도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촉진하는 결과가 된다.

※ 출처 : 여성부(2002), 영아보육모형.

〈영아의 식생활 지도내용〉

구분	내용
음식을 먹기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손을 씻는다. - 식탁과 의자를 바르게 놓고 깨끗이 한다. - 식탁 준비를 돕는다. -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음식을 먹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자세로 먹는다.(돌아다니지 않는다) - 그릇과 수저, 포크를 바르게 사용한다. - 꼭꼭 씹어 먹는다. - 흘리지 않고 먹는다. - 밥과 반찬을 골고루 먹는다.

구분	내용
음식을 먹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가에 묻은 음식은 화장지로 깨끗이 닦는다. - 입속에 음식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다. - 입속에 음식을 넣고 말하지 않는다. - 적당한 시간 안에 즐겁게 먹는다.
음식을 먹은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가에 묻은 음식은 화장지로 닦는다. -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 먹은 그릇을 정리한다. - 자신이 사용한 식기는 정해진 장소에 갖다 놓는다. - 식사 후에는 이를 닦는다.

■ 식습관 지도 시 유의할 점

- 1세~ 18개월 사이에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준다.
- 이 시기의 교사는 영아들의 서툰 기술에 수용적이어야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
- 식습관 지도는 편안하게 음식을 먹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식사시간은 즐거운 분위기가 되도록 조성한다.
- 간식 시간은 15분 정도, 식사시간은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 주어진 시간 내에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아의 특성, 식성, 정서적 신체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지도한다.
- 교사는 바람직한 식생활 모델이 되도록 한다.
- 가정과의 연계를 가지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도한다.
- 영아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 먹는 것과 식사 예절은 지나치게 연관시키지 않는다.
- 음식을 그만 먹겠다고 할 때 인정해준다
- 음식은 상이나 벌, 선물로 연계하여 지도하지 않는다.

3. 건강관리

영아는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하고 집단 활동에 참여하고 서로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 전염성 질환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질병 예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집에서 질병 예방관리는 보육교직원과 영아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예방접종,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영아의 관리, 아픈 영아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 투약 의뢰서에 따른 투약관리 등이 포함된다.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휴원이나 격리를 요하는 전염성 질환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부모들에게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격리를 요하는 전염성 질환은 아니지만 많이 아픈 영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도 또한 중요하다.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아의 건강관리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아가 생활하는 공간, 조리실, 음용수, 침구류, 놀잇감 등의 청결 및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청결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실내공간을 청결히 유지한다. 특히 보육실은 영아가 하루종일 생활하기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가습기나 제습기,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등을 활용하여 실내가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며, 가습기나 에어컨의 필터는 자주 관리하여 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화장실과 세면장을 청결히 한다. 항상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을 하며, 바닥은 물기가 없어야 하고 마른 수건과 휴지가 늘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조리실과 조리공간 등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조리실은 매일 청소와 소독을 해야 하고 냉장고와 식기 조리대 및 조리도구, 식기 등은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음용수는 항상 끓인 물을 식혀서 제공하고 영아가 청결하게 개인 컵을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해주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영아가 사용하는 이불과 요, 베개는 땀이나 침, 배변 등으로 더러워지므로 정

기적으로 세탁하거나 가정에 보내어 부모가 세탁하도록 하고, 세탁된 침구류는 잘 보관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침구류는 영아 각자가 개별적인 침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 놀잇감은 종류에 따라 매일 세척하거나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청결하게 관리한다.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관리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사는 영아기에 자주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예: 수두, 볼거리, 홍역, 수족구, 독감, 뇌염 등)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부모에게 알리고 영아들에게 이러한 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보육시설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격리하는 등 사전에 미리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따른다.
- 교사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영아의 개인위생을 청결하게 하고, 식재료 보관, 조리과정, 배식과정 등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전염성 질환이 아니지만 아픈 영아가 있으면 양호실이나 조용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부모에게 연락한다. 보육시설에서 다쳤을 경우 사용할 비상 약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비상약품은 영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유통기한을 관리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해열제나 소화제 등을 영아에게 투약할 경우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교직원 교육지침을 만들고 이를 숙지하도록 한다.
- 다치거나 아픈 영아를 위한 격리 보호 여부, 귀가 조치 여부, 부모와의 연락 절차, 병원에 가는 절차, 처방약의 복용에 대한 부모의 서면 의뢰(투약 의뢰서) 등이 구체적으로 문서에 명시되어 있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교사가 당황하지 않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영아와 교사에 대한 건강진단 카드가 있어야 하고 영아가 다쳤을 때 이를 부모에게 알릴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모든 교사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항상 붙여놓는다.

1)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영아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와 질병 예방을 위해 매우

IV. 영아를 위한 일상생활 운영

중요하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하고 있는 모든 영아와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비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영아는 신체 계측 결과와 소아과의 정기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확인서를 비치할 수 있다. 또한 영아의 검진주기에 따라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 이외에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아의 부모에게 해당 월령별 영아 건강검진 항목(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준 참고)을 안내하여 영아의 발달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준하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
-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면역력이 약하고 장시간 집단 생활하는 영아에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필수사항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예방접종 분류〉

국가 필수 예방접종	기타 예방접종
- BCG(피내용)	- BCG(경피용)
- B형간염	- 일본뇌염(생백신)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Td)	- A형 간염
- 폴리오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뇌수막염(Hib)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 폐구균 (PCV(단백결합), PCV(다당질))
-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 로타바이러스(Rotavirus(로타릭스), Rotavirus(로타텍))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 인유두종바이러스(HPV(가다실), HPV(서바릭스))
- 일본뇌염(사백신)	
- 수두	
- 인플루엔자(고위험군 대상)	
- 장티푸스(고위험군 대상)	
- 신증후군출혈열(고위험군 대상)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cdc.go.kr/>

■ 예방접종 주의사항

〈접종 전 주의사항〉

- 아이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데리고 방문한다.
- 집에서 아이의 체온을 측정하고 열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방문한다.
- 모자보건수첩 또는 아기수첩 지참하여 방문한다.
- 접종 전날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혀서 방문한다.
- 가능하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아이는 함께 방문하지 않는다.

〈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아이의 상태를 관찰.
-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한다.
- 접종당일과 다음날은 과격한 운동은 삼가한다.
- 접종당일은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 접종부위의 청결을 유지한다.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 경련이 있을 때에는 곧 의사진찰 받도록 한다.
- 아이는 반드시 바로 눕혀 재울 수 있도록 한다.

3) 전염병 예방

교사는 영아기에 자주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안내문을 수시로 부모에게 보내고 휴원을 요하는 전염병에 걸렸을 경우 등 전염성 질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영아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

- 아픈 영아가 발생하면 즉시 다른 영아들과 격리한다.
- 아픈 영아의 증상을 잘 관찰하여 건강기록지에 기록한다.
- 다음의 증상을 유의하여 본다.(평소와 다른 행동, 기침, 발열, 식욕저하, 충혈, 설사, 잠만 자려고 함, 발진, 구토)
- 장기적 격리가 필요하면 집에서 영아를 돌보도록 한다.

IV. 영아를 위한 일상생활 운영

- 만약 영아가 법정 감염병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로 보고하며 보건소 또는 협력 소아청소년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 휴원을 요하는 전염병 〉

병명	증상	잠복기간	휴원 기간
홍역	발열, 재채기, 결막염, 발진	9일 ~13일	발진이 없어질 때까지 → 발진 후 약 5일간
수두	발열, 발진, 물집이 생김	10일 ~21일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 발진 후 약 7일간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발열, 귀밑이 부어오름	7일 ~21일	귀밑 부기가 다 빠질 때까지 → 발진 후 약 5일간
풍진	가벼운 감기 같은 증세, 발열, 발진	10일 ~21일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 대개 발진 후 5일간
백일해	열은 없고 밤에 기침이 심함	7일 ~14일	특유의 기침이 없어질 때까지 → 발병 약 3~4주
유행성 감기	발열, 기침, 목이 아픔, 뼈마디 아픔	1일 ~3일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유행성 결막염	눈이 붓고 흰자위가 충혈, 눈곱이 많음	7일	급성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농가진	얼굴이나 수족에 쌀알 크기부터 대두 크기의 발진, 수포가 생김	2일 ~5일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수족구병	38도 정도의 고열, 1~2일 간 입속, 손바닥, 발바닥에 수포가 생김	3일 ~6일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전염성 설사증	설사의 횟수가 많고 변이 물 같고 열이 나며 감기 증상을 동반함	2일 ~4일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감염(A형)	식욕부진, 두통, 열, 황달, 관절통	10일 ~15일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디프테리아	미열, 인후염, 기침, 두통, 신 목소리, 편도선 비대, 회색반점	2일 ~4일	배양검사가 2회 이상 음성이 나올 때까지
뇌막염	고열, 두통, 구토, 전신에 보라색 반점, 의식의 혼동이 옴	14일 ~21일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장티푸스	두통, 헛소리, 허의 백태, 혈변, 장출혈이 발생	1주 ~3주	완치될 때까지

병명	증상	잠복기간	휴원 기간
콜레라	열, 구토, 물설사, 탈수 증세	6시간 ~5일	완치될 때까지
전염성 장염	설사의 횟수가 많고, 변이 물 같고, 열과 감기 증상을 동반함		주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전염성 홍반	열은 별로 없으나 때로는 37℃의 열이 남, 얼굴과 뺨에 발진이 생김	7일 ~14일	급성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4) 식중독 예방

식중독이란 오염된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감염되거나 독소가 발생하는 질환(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을 말한다. 영아의 개인위생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식재료 보관, 조리과정, 배식과 정 등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식중독 예방 지침

- 손 씻기를 자주한다. 음식을 조리하거나 만지기 전 반드시 손은 비누를 사용하여 손가락 사이사이, 손등까지 골고루 흐르는 물로 20초 이상 씻는다. 설사나 구토 등의 증세가 있는 사람은 조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 먹는다. 음식물은 중심부 온도가 74℃, 1분 이상 조리하여 속까지 충분히 익혀서 먹는다. 특히 물은 끓여서 마신다.
-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보관 시에 온도에 유의한다. 신선하고 위생적인식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고 음식을 보관할 때에는 보관 온도에 유의한다.

5) 아픈 영아 보호

영아가 아픈 경우에는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우선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한다. 아픈 영아가 혼자 있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아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열이 높을 때, 구토나 설사를 되풀이할 때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부모에게 알리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IV. 영아를 위한 일상생활 운영

■ 서둘러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 증상

- 경련을 일으킬 때
- 열이 높을 때
- 구토나 설사를 되풀이 할 때
- 갑자기 심하게 울 때
- 갑자기 창백해지고 몸이 처질 때
- 혈변이 있을 때 등

■ 아픈 영아의 일반적인 특징

- 음식을 잘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 고열, 발진, 설사, 탈수현상을 보인다.
- 입술이 마르고 대천문이 함몰되어 있다.
-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
-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보챈다.
- 이유 없이 울고 짜증을 많이 낸다.
- 숨 쉬기가 고르지 않다.
- 몸의 일부분(머리, 귀, 배 등)이 아프다고 한다.

6) 투약

아무리 사소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영아에게 투약을 하면 대단히 위험하므로 교사가 임의로 투약을 하여서는 절대 안 되며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이나 부모가 작성한 투약의뢰서에 따라 약을 먹이도록 해야 한다.

투약 시 간호사나 담임교사는 정확한 복용량을 투약한 후, 날짜와 시간, 부대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투약일지에 기록한다. 이러한 기록은 투약이 끝난 직후에 개인 서류철에 정리·보관했다가 귀가 시 부모에게 확인시킨다.

■ 어린이집에서 투약 시 주의할 점

- 의뢰받은 약은 별도로 냉장고에 보관하고, 영아의 이름을 정확히 기입하여 다

른 영아의 약과 섞이지 않도록 한다.

- 영아에게 투약하기 전에 반드시 처방전과 투약 방법을 읽는다.
- 지시된 시간에 정확한 용량을 측정하여 투여한다. 특히 시럽인 경우 용량을 초과하여 먹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똑바로 눕혀서 투약하면 기도로 들어갈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하게 앉혀서 투약한다.
- 액체 약은 흔들어서 투약하고, 정제 약은 녹이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설탕물에 타서 먹인다. 그러나 주스나 우유와는 섞어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 연고를 바를 때에는 작은 주걱을 사용하여 바른다.
- 사용 안 한 약은 쓰레기통에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부모에게 되돌려 준다.
- 투약 후에 알레르기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부모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7) 정신 건강

영아의 경우에는 정서 상태의 변화와 기복이 심하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가 나타났을 때 교사는 다음과 같이 대처한다.

- 영아의 정서를 우선 그대로 수용하고 차분한 자세로 영아에게 말로 표현하도록 부드럽게 말을 건다.
- 영아가 제대로 말을 표현하지 못할 경우 교사가 왜 유아가 화가 났는가를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해 주어서 영아가 자신의 행동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남을 방해하는 행동을 많이 보이는 영아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놀이를 찾아서 소개해 주고 부정적인 정서를 풀 수 있는 물놀이나 점토 놀이 등을 자주 경험시킨다.

4. 안전관리

안전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정신적·신체적 상해의 위험성이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이며, 모든 위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을 고쳐서 사고를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아는 발달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적절히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불완전하여 많은 부분을 교사에게 의존하면서도 독립적으로 행동하려는 욕구가 강하므로 교사가 우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실내의 시설의 안전점검, 영아의 놀잇감 안전, 차량 안전 등을 관리하여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해 주어야 한다. 또한 영아와 보육교직원, 그리고 부모를 포함하는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비상대피 훈련 등을 실시하여 영아도 위험 상황을 알게 하고, 보육교직원의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영아는 월령이 낮을수록 위험 상황을 인식하기 어렵고, 신체적 조절능력이나 이동능력이 부족하여 작은 위험에도 큰 부상이나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항상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영아의 상태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에는 비상 상황 대비 체계 등을 갖추어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0~2세 영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파악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영아가 걷기 시작하면서 주변을 탐색하게 되므로 교사의 특별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

0~1세의 영아를 위한 안전관련 보육내용은 영아의 안전교육 보다는 우선 영아의 발달 특성에 따라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영아가 자유롭게 탐색하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영아는 처음 만지는 사물을 입으로 가져가 자주 빨거나 먹어 보고 호기심을 충족하기 때문에 청결하고 안전한 놀잇감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영아는 주변 환경의 위험함을 알지 못하므로 자주 위험을 알려 주고 주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야 한다.

2세 영아는 신체적으로 대·소근육의 발달과 신체 이동 능력이 활발해지면서 주변 환경에 호기심이 많고 위험함을 인지하지 못하며, 무조건 모방하면서 혼자서 하려고 애쓰다가 다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영아들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은 놀이 장소가 되고, 기구들은 모두 놀잇감이 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위험 상태를 알려 주고 조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가. 안전한 환경 구성

영아를 위한 안전한 환경 구성은 실내외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교사는 실내외의 설비와 모든 비품, 교재교구, 놀잇감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은 실내외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을 정리한 것이다. 또한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상사 안전점검을 생활화하여 영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1) 0세를 위한 안전한 환경

다음은 0세를 위한 보육실과 놀잇감의 위생관리 및 실내외 환경을 안전하게 구성하기 위해 교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을 정리한 것이다.

- 영아들이 몸을 뒤집고 기기 시작하면 영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주어야 한다. 바닥에 작은 물건 등이 널려 있거나 가구 모서리, 녹슨 부분 튀어나온 부분, 뽀족한 놀잇감 등이 있으면 다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어 다니기에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리해주어야 한다. 또한 영아들에 의해 늘어놓은 물건들을 즉시 치우도록 한다.
- 영아 돌연사를 방지하기 위해 수유한 후에는 꼭 트림을 시키고 재울 때는 너무 폭신한 쿠션이나 이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 주시해야 한다.
- 화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는 뜨거운 물이나 배식 시 뜨거운 국 관리에 주의한다. 영아가 있는 곳에 뜨거운 물체나 음식물이 가까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되며, 식사 시 뜨거운 국은 영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었다가 조금 식었을 때 영아에게 주도록 한다.

- 걷기 시작하더라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하고, 물을 쏟은 경우에는 즉시 걸레로 닦고, 바닥에 늘어놓은 물건들은 즉시 치우도록 한다.
- 물감이나 페인트 등 유독성 제품은 영아들의 손이 닿거나 보이는 곳에 보관하지 않는다. 모든 독극물과 약은 별도의 상자나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한다. 약물이나 세제는 사용한 후 즉시 치우도록 한다.
- 놀잇감이나 사진기, 시계, 계산기 등에 들어 있는 원판형 수은이나 리튬 전지를 영아가 삼키면 매우 위험하므로 전지를 교환할 때는 못 쓰게 된 전지를 즉시 버린다.
- 영아가 삼킬 수 있는 놀잇감(3.5cm이하)은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딸랑이나 장신구 등을 영아의 목에 걸어주지 않으며, 음식을 입에 넣은 상태로 웃거나 울거나 달리지 않도록 한다. 또한 스카프나 긴 끈 등은 영아의 관리 하에 조심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비닐봉지, 커튼 등은 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지고 놀지 않도록 한다.
- 놀잇감의 수가 너무 적을 때 놀잇감으로 인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영아가 놀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놀잇감을 준비한다.
- 영아는 교실의 밀도가 너무 높으면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기 쉬우므로, 이런 경우 공간 배치를 달리하거나 영아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준다.

2) 1세를 위한 안전한 환경

- 1세는 대·소근육을 활용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이므로 영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주어야 한다. 바닥에 작은 물건 등이 널려있거나 가수 모서리, 녹슨 부분, 튀어나온 부분, 뽀쪽한 놀잇감 등이 있으면 다칠 수 있다. 따라서 움직이기에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리해주어야 한다. 또한 영아들에 의해 널려있는 물건들은 즉시 정리하도록 한다.
- 1세 영아의 걷기, 달리기, 뛰기, 점프하기, 계단오르내리기 등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위해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하고, 물을 쏟은 경우에는 즉시 걸레로

닦고, 바닥에 어질러져 있는 물건들은 즉시 정리한다.

- 1세 영아기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왕성한 호기심을 실험하는 시기이므로 실내 외에 있는 위험한 물건들은 모두 치운다. 물감이나 페인트 등 유독성 제품은 영아들의 손이 닿거나 보이는 곳에 보관하지 않는다. 모든 독극물과 약은 별도의 상자나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한다. 약물이나 세제는 사용한 후 즉시 치우도록 한다.
- 화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가 사용하는 코팅기 등 뜨거운 기계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코팅기나 글루건을 켜놓은 후에 자리를 뜨지 않아야 한다. 또한 뜨거운 국을 배식할 때 영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조금 식혀서 배식해야 한다.
- 놀잇감이나 사진기, 시계, 계산기 등에 들어 있는 원판형 수은이나 리튬 전지를 영아가 삼키면 매우 위험하므로 전지를 교환할 때는 못 쓰게 된 전지를 즉시 버린다.
- 영아가 삼킬 수 있는 놀잇감(3.5cm이하)은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걸이나 장신구 등을 영아의 목에 걸어주지 않으며, 음식을 입에 넣은 상태로 웃거나 울거나 달리지 않도록 한다. 또한 스카프나 긴 끈 등은 영아의 관리 하에 조심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비닐봉지, 커튼 등은 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지고 놀지 않도록 한다.
- 놀잇감의 수가 너무 적을 때 놀잇감으로 인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영아가 놀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놀잇감을 준비한다.
- 영아는 교실의 밀도가 너무 높으면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기 쉬우므로, 이런 경우 공간 배치를 달리하거나 영아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준다.
-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제한이나 규칙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반복하여 지도한다.
-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에 의해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를 자세히 기록하여 주의하고 사고 예방에 활용한다.

3) 2세를 위한 안전한 환경

- 영아에게 적합한 비품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놀잇감을 제공하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영아들이 삼킬 수 있는 작은 조각이나 놀잇감(3.5cm 이하)을 즉시 치운다. 또한 스카프나 긴 끈, 비닐봉지, 커튼, 커튼 줄 등도 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지고 놀지 않게 한다.
- 보육실의 모든 영아들을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도록 영역을 배치한다. 교사가 관찰할 수 없는 공간이 있을 때는 영아가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모를 수 있으므로 흥미 영역 구성을 할 때 유의 한다.
- 보육실의 책상, 의자, 교구장 등은 영아의 신체 크기에 적합해야 하며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으로 준비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고무나 모서리에 안전 커버를 부착한다.
-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영아가 밀었을 때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무게가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한다.
- 보육실에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고 무거운 물건을 너무 많이 쌓아놓지 않는다.
- 보육실 게시판이나 벽에 게시물, 모빌 등을 부착하기 위해 압정을 사용하지 않으며 테이프나 자석을 이용한다.
-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영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한다. 전기콘센트는 안전 마개를 이용하고 코드는 영아가 함부로 뽑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키며 지속적으로 주의 지도한다.
- 교사 책상 주변에 칼, 스테플러, 펀치, 가위, 본드 등은 영아들에게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화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가 사용하는 코팅기 등 뜨거운 기계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코팅기나 글루건을 켜놓은 후에 자리를 뜨지 않아야 한다. 또한 뜨거운 국을 배식할 때 영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조금 식혀서 배식해야 한다.
- 놀잇감이나 사진기, 시계, 계산기 등에 들어 있는 원판형 수은이나 리튬 전지를 영아가 삼키면 매우 위험하므로 전지를 교환할 때는 못 쓰게 된 전지를



즉각 버린다.

-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걸이나 장신구 등을 영아의 목에 걸어주지 않으며, 음식을 입에 넣은 상태로 웃거나 울거나 달리지 않도록 한다. 또한 스카프나 긴 끈 등은 영아의 관리 하에 조심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비닐봉지, 커튼줄 등은 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지고 놀지 않도록 한다.
- 놀잇감의 수가 너무 적을 때 놀잇감으로 인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영아가 놀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놀잇감을 준비한다.
- 영아는 교실의 밀도가 너무 높으면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기 쉬우므로, 이런 경우 공간 배치를 달리하거나 영아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준다.

나. 발달 특성에 따른 사고와 예방

교사는 영아의 발달 특성을 잘 이해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이 시기의 교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아가 항상 교사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펴보는 것이다. 영아기에 성인의 부주의는 곧 추락, 질식, 독극물 중독 등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교사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연령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이해하고, 영아의 발달적 특징에 따른 위험요소와 예방조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연령에 따른 안전사고

■ 0~1세의 안전사고 유형

- 자주 넘어져 다친다. 신체 발달에 있어서 다리와 팔보다 머리와 몸통이 먼저 발달하므로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 자주 넘어지게 된다.
- 추락하여 다친다. 침대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칠 위험이 매우 높다.
- 이 물질도 입에 넣는다. 영아는 가까이 있는 물체나 손에 잡히는 것으로 가저가 탐색하게 되므로 입에 넣거나 삼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 2~3세의 안전사고 유형

-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진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 가운데 부딪히고

IV. 영아를 위한 일상생활 운영

넘어 지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 칼이나 가위 등 위험한 도구에 상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아직 소근육 발달이 늦어 도구를 다루기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교사의 지도 없이 사용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
- 화상, 교통사고, 충돌, 추락 등 다양한 사고에 노출되고 자주 발생한다. 끊임 없는 호기심과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이므로 사고 발생이 많은 연령이다.

2) 영아의 발달특징에 따른 위험요소와 예방

다음은 영아의 발달적 특징에 따른 위험요소와 예방조치를 나타낸 표이다.

〈영아의 발달특징에 따른 위험요소와 예방조치〉

월령	발달적 특징	위험요소	예방 조치
3개월	운동능력에서 발달 차이가 크므로 언제 뒤집기를 할 지 모른다.	기저귀 갈이대	뒤집기 행동을 보이지 않는 영아라도 높이가 있는 기저귀 갈이대에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
6개월경	움직이기 시작한다.	계단, 현관	계단, 현관, 창고와 연결되는 문을 안전하게 단단히 고정한다. 계단, 현관에 문을 단다. 방충망을 잠그거나 고정한다.
		일상생활 공간	전기 플러그, 날카로운 모서리, 수납장의 문이 잠기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화학약품	모든 유독성 물질, 세제, 약 등은 손이 닿지 않게 치워야 한다.
7~12개월	이동능력이 생긴다.	계단	계단을 기어 올라가기 시작하므로 계단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 문을 설치해야 한다.
		일상생활 공간	전기코드, 화분, 날카로운 모서리 등 영아가 탐색하고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주의해야 한다. 작은 사물을 집는 능력이 발달하므로 영아가 삼킬 수 있는 작은 조각들은 치워둔다.

7~12개월	이동능력이 생긴다.	화학약품	모든 약, 독성제품, 화장품, 가정용품, 특히 부식제는 모두 상자 속에 보관하고 영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한다. 금속 캔에 들어 있는 등유와 가솔린도 영아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낙상	이동성과 탐색 행동이 확장되므로 항상 성인이 가까이에서 지켜보아야 한다. 책상 위 등 바닥에서 높은 곳에 영아를 혼자 두지 않는다. 책상 아래로 늘어진 덮개나 뒤뚱거리기 쉬운 교구, 전기 코드 같은 것을 잡고 일어 서지 않도록 주의한다.
1세 ~ 2세	좋아한다. 탐색하고 기어오르고 문과 서랍을 연다. 물건을 따로 떼어내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	현관문, 창문, 방문.	계단, 현관, 창고와 연결되는 문을 안전하게 단단히 고정한다. 계단, 현관에 문을 단다. 방충망을 잠그거나 고정한다.
		놀이공간	놀이 공간에 울타리를 한다. 작은 부품이 없고 부서지지 않는 재료로 된 단단한 놀잇감을 준다. 영아가 있는 곳 근처에는 커피포트, 토스터, 다리미, 라디오 등의 전선 등이 없도록 한다.
		물	절대 어린이 혼자 욕조, 수영장 또는 개방된 공간에 있거나 차가운 물가에 있지 않는다.
		화학약품	모든 약, 독성제품, 화장품, 가정용품, 특히 부식제는 모두 상자 속에 보관하고 영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한다. 금속 캔에 들어 있는 등유와 가솔린도 영아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화상	벽난로, 난방기, 난로 주위의 감독을 철저히 한다. 영아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밀착된 감독이 필요하다. 절대 영아만 혼자 두지 않도록 한다.

IV. 영아를 위한 일상생활 운영

0~2세 영아보육 프로그램 운영
0~2세 영아 보육프로그램 운영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 운영 및 평가
영아를 위한 일상생활 운영
영아를 위한 적응기간 운영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월령	발달적 특징	위험요소	예방 조치
2세 ~ 3세	- 호기심이 많고 위험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특히 불에 호기심을 갖는다. - 분주하게 계속 움직이며 혼자 하려고 애쓴다. -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조건 모방한다. - 잘 달린다. - 구속을 못참는다	교통	영아를 엄격한 규율과 튼튼한 팔목 끈으로 차도에 가지 않도록 지킨다.
		물	얕은 냇가라도 어른의 세심한 감독이 없으면 안전하지 않다.
		놀잇감	큰 놀잇감은 모서리가 둥글고 튼튼하면서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옮기기 쉬워야 안전하다
		화상	성냥이나 담배라이터는 영아들이 닿지 않는곳에 보관한다. 불의 위험을 가르친다. 영아를 절대 집에 혼자 두지 않는다.
		위험한 물건	약, 가정용품, 저원용 독성제품, 위험한 도구, 총기류, 정원 장비 등은 상자에 넣고 잠근다. 적당한 공구와 부엌용품들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가르친다.
		놀이 친구	놀이친구들의 나이가 더 많을 때 사고도 더 자주 일어난다. 2세 유아는 딱딱한 공, 자전거, 거친 놀이, 나이 많은 친구한테 맞는 것 등으로 쉽게 다칠 수 있다.

* 출처 : 여성가족부(2008). 0세, 1세, 2세 보육프로그램.

3) 영아의 안전을 위한 교사의 역할

0~1세 미만 영아를 위해 교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안전점검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육실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장치를 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 놀이 중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영아를 관찰하고 영아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한다.
- 영아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가족과 응급기관에 재빨리 연락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세 영아를 위해 교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안전점검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육실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장치를 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 놀이 중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영아를 관찰하고 영아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한다.
- 영아가 길을 잃거나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고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지도한다.
- 정기적으로 소방훈련,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의 예방교육,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한다.
- 영아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가족과 응급기관에 재빨리 연락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안전생활 지도

영아는 신체 운동 능력이 발달하면서 주변 환경을 보다 활발하게 탐색하지만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여 자주 다친다. 특히 모방행동을 하거나 혼자서 하려고 애쓰다가 부딪히거나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영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안전교육을 하루 일과에서 상황에 맞게 제시하여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안전 수칙을 만들어 지도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상시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영아의 안전 생활습관 지도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안전 수칙

영아들이 어린이집 실내, 실외에서 놀이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본수칙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아가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다룰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세분화하여 가르친다. 블록 놀이 할 때, 물놀이 할 때, 미끄럼 탈 때, 모래놀이 할 때 등 특히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놀이에 안전 수칙을

만들어 안내하고 영아가 함께 항상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안전 수칙 예시〉

- 차례를 기다린다.
- 앞사람이 올라간 다음 올라간다.
- 올라갈 때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는다.
- 경사로를 내려가기 전에 아래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다.
- 먼저 발을 모으고 앉는다.
- 내려올 때 발이 먼저 내려오도록 한다.
- 내려온 다음 뒷사람을 위해 빨리 비켜준다.

2) 안전교육

안전 교육은 영아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를 중심으로 실천적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또한 어린이집은 소방훈련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 교육, 재난대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 교육은 특별히 일회성 행사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과 활동에서 항상 반영하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안전한 생활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구분	교통안전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약물오남용 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주기 (총시간)	2개월 1회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3개월 1회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 1회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 1회이상 (연간 6시간 이상)	6개월 1회이상 (연간 6시간 이상)
교육 내용	①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 ② 교통관련법규 준수정신 ③ 안전장구 착용의 생활화 ④ 기타교통안전 관련 내용	① 아동실종 발생 현황 ② 장소·상황별 실종·유괴 예방지침 ③ 유괴·유인 시 대처 방법 ④ 유괴·유인 목격시, 신고요령 및 절차	① 약물의 종류·중독성 및 오남용의 폐해 ② 법적 처벌 기준 ③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① 화재·붕괴·폭발·화생방사고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 요령 ② 위험물 취급 요령 ③ 재난시 안전 행동 및 대피 요령	①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발생현황 ② 성폭력 예방지침 ③ 성폭력 예방실습 ④ 성폭력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⑤ 법적처벌 및취업 제한규정 ⑥ 성폭력범죄의 신고요령 및 절차
교육 방법	①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② 시청각 교육 ③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④ 수업 (프로그램) 내용에 반영 ⑤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①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②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③ 시청각 교육 ④ 실종사례 분석	①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② 시청각 교육 ③ 현장방문·학습	①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② 시청각 또는 실습 교육 ③ 사고사례 분석 ④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①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② 시청각 교육 ③ 사고사례 분석

IV. 영아를 위한 일상생활 운영

2세는 다음의 주제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영아 연간 안전교육계획(예시)

월	안전영역						안전교육내용
	교통	실종유괴	약물	재난	성폭력	생활	
3	●						• 선생님과 자전거 타기 • 화장실에서 조심해서 걷기
4		●	●				• 선생님이 주는 약만 먹기 • 선생님과 손을 잡고 다녀요
5	●				●		• 안전한 길을 찾아 주세요 • 속옷을 입어요
6		●				●	• 위험하다고 알려주면 조심해요 •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다녀요
7	●					●	• 선생님이 밀어주는 자동차를 타요 • 비오는 날에는 앞을 잘 보고 걷기
8			●	●			• 홍수·태풍 시 안전행동 및 대피요령 (그대로 숙여라) • 함부로 먹지 않아요(위험물)
9	●	●					• 자동차 안전벨트를 해요 • 길을 잃었을 때는 제자리에서 기다려요
10			●			●	• 계단에서 뛰지 않고 걷기 •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어요
11	●					●	• 안전하게 길을 건너요 • 조심조심 단어요
12		●			●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위험해요
1				●			• 지진시 안전행동 및 대피요령 (땅이 흔들흔들) • 움직이는 것들이 있을 때는 조심해요
2	●		●			●	• 선생님과 가족이 주는 약만 먹어요 • 뜨거운 것 조심하기

※ 출처 : 보건복지부(2013). 0-2세 어린이집프로그램 (활동자료-예).

■ 영유아 안전교육 지침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영아의 연령과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또는 소집단으로 한다.
- 일상적인 경험과 교사의 행동을 모방함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 어떤 사례나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자연스러운 학습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 안전교육은 관련 주제 내에서 계획된 활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영아는 위험 상황을 잘 모르므로 교사가 자주 반복하여 이해시키고 사실대로 알려준다.
- 영아가 위험 상황을 알고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 소방대피훈련

- 어린이집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훈련결과를 기록해둔다.

○ 영아 연간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계획(예시)

안전교육내용			
3월	• 소방대피훈련(수유실 화재발생 상황)	9월	• 소방대피훈련(수유실 화재발생 상황)
4월	• 소방대피훈련 (생일잔치 중 화재발생 상황)	10월	• 불시 소방대피훈련 (생일잔치 중 화재발생 상황)
5월	• 소방대피훈련(식당 화재발생 상황)	11월	• 소방대피훈련(식당 화재발생 상황)
6월	• 불시 소방대피훈련 (1층 복도 화재발생 상황)	12월	• 소방대피훈련(1층 복도 화재발생 상황)
7월	• 소방대피훈련(현관 화재발생 상황)	1월	• 소방대피훈련(식당 화재발생 상황)
8월	• 소방대피훈련(식당 화재발생 상황)	2월	• 불시 소방대피훈련 (전열기구 화재발생 상황)

※ 출처 : 중앙보육정보센터(2012). 2012 어린이집 운영서식 및 문서 자료집.

3) 안전점검

안전점검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모두가 항상 안전에 민감한 태도를 갖고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안전점검은 사전에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제거해 줌으로써 영아의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부록에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와 월별로 실행할 수 있는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가 제시되어 있다.

[부록3]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일별)

[부록4]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월별)



영아를 위한 적응기간 운영



- 0세아의 적응
- 1세아의 적응
- 2세아의 적응
- 신입원아, 수시 입소 신입원아 및 재원아의 적응

V. 영아를 위한 적응기간 운영

영아반의 학기 초 적응의 목표는 어린이집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영아가 익숙해짐으로써, 점차 어린이집을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영아에게 있어서 어린이집에 등원한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낯선 환경에서 주양육자와 하루 종일 떨어져 지내는 것이므로 영아에게 매우 힘든 일이다. 이런 경우 영아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므로, 울거나 몸부림치고, 주양육자를 쫓아다니는 등의 행동으로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며, 먹고, 자고, 노는 등의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일반적으로 영아의 경우 안정적인 어린이집 적응이란 울지 않고 주양육자와 헤어지며, 급·간식과 배변, 낮잠 등의 일상적 양육과 보육활동에 무리 없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학기 초 적응 프로그램은 부모로 대표되는 주양육자와의 분리와 어린이집 적응의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영아의 기질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아의 적응 프로그램은 최소 1주일에서 1~2달까지 여유를 두고 실행하며, 연령이 어릴수록 더욱 여유가 있는 적응기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영아 적응과정의 예〉

기간	내용	적응정도에 따른 보육시간	
1~2주	짧게 방문하기 보호자와 함께 놀이하기 오전 간식 먹기	적응 시	10:00~12:00
		부적응 시	10:00~11:00
	오전 놀이와 점심식사	적응 시	10:00~식사 후 13:00
		부적응 시	10:00~12:00 이전
	보호자와 잘 헤어지기 선생님과 놀이하기	적응 시	10:00~식사 후 13:00
		부적응 시	10:00~12:00 이전
	보호자와 웃으며 안녕하기 낮잠 자 보기	적응 시	9:30~낮잠 잔 후 15:30
		부적응 시	9:30~식사 후 13:00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기 편안한 마음으로 낮잠 자기	적응 시	9:30~낮잠 잔 후 17:00
		부적응 시	9:30~식사 후 14:00
	하루종일 지내기	적응 시	9:30~낮잠 잔 후 18:00
		부적응 시	보호자와 상담 후 귀가시간 조정

영아의 연령별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의 특성과 적응기간 동안의 행동 모형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0세	1세	2세
환경	교사와의 애착을 통한 환경 탐색	움직임을 통한 환경 탐색	이해를 통한 환경 탐색
일과	자기중심적인 일과	신체적 익숙함에 의거한 일과	일과의 순서에 대한 이해
교사	애착을 형성하는 대상으로서 자신과 동일시	자율적인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 교사에게 의지하며 동시에 독립하려는 태도	애착을 형성하는 대상이면서 교실의 규칙과 질서를 대변
또래	정서를 공유하는 존재	병행놀이, 소유물 다툼 존재	애착 대상이면서 집단생활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존재
놀이	교사와의 놀이	혼자놀이, 병행놀이	병행놀이, 초기 연합놀이

※ 출처 : 박찬욱·구수연·이옥임(2010),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정민사.

〈적응기간 동안의 진행과정〉

구분	부모	영아의 예상 반응	교사
1일	[짧게 방문하기] 영아와 함께 인사하기	부모의 영역에서 보육실 탐색 약 1시간 방문	[거리감 두기] 눈인사 영아 관찰 [부모에게 적응 역할 소개하기] 부모와 이야기하기
2일	교사, 영아와 함께 놀이하 기(교사와 영아가 친해지도록 협조) [파트너십 형성하기] 교사와 영아에 대해 이야기하기	놀잇감을 통한 주변인과의 접촉 약 2~3시간	[간접적 접촉 시도] [실마리 읽기] 영아와 인사 놀잇감 소개 함께 놀이하기 [파트너십 형성하기]

V. 영아를 위한 적응기간 운영

구분	부모	영아의 예상 반응	교사
3~4일	[잘 헤어지기] 영아와 인사하기 [영아와 특별한 시간 갖기]	울기 익숙한 놀잇감으로 안정하기 교사와 접촉하기 오전 프로그램에 참여 후 귀가	[직접적 접촉 시도] [영아 이해 및 표현] 안기·달래기 엄마와 인사시키기 안아주며 이야기 나누기
5~6일	영아와 인사하기 교사와 지속적인 관계 형성하기	울기 교사와 의사소통하기 일과에 적응하기 점심 식사하고 귀가	[스킨십으로 접근하기] 잡은 스킨십 제공하기 영아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주기 [짧게 방문하기] 교실과 원 소개하기
7~8일	[적응 행동 격려하기]	일과에 적응하기 친구와 사귀기 낮잠 후 귀가	일과에 적응시키기 친구와 놀잇감 소개하기 영아의 적응 행동 칭찬하기
9~10일	영아의 적응 상태를 보아 시간을 조절함	일과에 적응하기 친구와 사귀기	[적응 행동 격려] 영아의 적응 행동 칭찬하기 일과 진행
적응 후	[지속적인 애정 표현하기]	일과에 적응하기 친구와 사귀기	[영아가 또래와 사귀도록 돕기] 관찰을 통해 영아의 상태 체크

* 출처 : 김혜경 외(2002). 효과적인 영아 보육을 위한 지침서. 서울 : 다음세대.

1. 0세아의 적응

0세아는 전적으로 교사에 의존하여 어린이집 생활을 한다. 먹고, 자고, 배설하는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교사이며, 교사와의 신뢰감은 어린이집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된다. 그러나 초기 적응과정에서는 교사 역시 탐색하고 적응해야 할 대상이 되므로 먼저 교사와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후에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1) 0세아의 적응과정

적응과정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 탐색	적절한 거리 두고 접근하기	보육교사와 안정애착 형성하기	보호자와 안정적인 분리

0세 영아들이 교실에서 접하는 가장 낯선 환경은 교사이다. 주양육자를 대신하는 교사는 7~12개월 사이 낯선 이에 대한 불안이 극대화되는 시기의 영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무엇보다 영아가 교사와 친밀감을 형성하여 교실에서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0세아의 적응은 보호자와 함께 등원하여 어린이집을 탐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때 교사는 영아에게 성급히 다가가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0세아가 교사와 안정애착을 형성할 때까지는 보호자와 함께 등원하고, 점차 시간을 줄여 안정적인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적응기간은 보호자와의 분리과정만 최소 5일 이상 걸리고 교실 적응의 과정은 영아의 적응도에 따라 그 이상의 시간(일반적으로 이후 6주까지)이 소요되기도 한다. 영아의 적응과정 중 적응의 중요 기준은 보호자와 분리되어도 '울지 않는 것'이다. 충분한 적응기간을 거쳐야만 영아는 '어린이집'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고 어린이집을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로 여기게 된다.

V. 영아를 위한 적응기간 운영

2) 적응을 돕는 교사의 역할 및 상호작용

영아는 교사의 얼굴과 친숙해지며 얼굴과 결합된 교사의 목소리, 냄새, 손길 등을 감각적으로 느낀다. 교사는 일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영아와 얼굴을 가까이 마주보고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익숙한 목소리와 일관된 반응양식을 가짐으로써 영아에게 교사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친근감을 통해 보육실 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교사와의 활동	상호작용
교사와 마주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렇게 마주보니깐 선생님 얼굴이 잘 보이니? • ○○의 동그란 눈이 선생님을 쳐다보네. 눈이 깜빡!
교사의 얼굴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 얼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코! 뺨! • ○○가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만지네.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 발은 어디 있을까요? • ○○의 손은 어디 있을까요? 예쁜 손~
선생님과 함께 하는 감각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형을 누르면 꾸욱 꾸욱 소리가 나네~ • 딸랑이를 흔들면 딸랑 딸랑 소리 • 이것을 만져 보자. 울퉁불퉁, 미끈미끈
보육실 환경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 탐색(영아를 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에는 무엇이 있을까? - 거울 속에 누가 있지? - 우리 ○○ 예쁜 얼굴~ • 보육실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가 어딜까? 여기 꽃 그림이 있네. - 저쪽엔 무엇이 있을까? 가서 만져볼까?



또래 인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반에 누가 있을까? - ○○가 지금 우유를 먹어요. - □□가 지금 기저귀를 갈아요. - ○○가 지금 들어오고 있네, 친구 안녕! • 또래 정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 □□가 방긋 웃고 있네. - ○○가 울고 있네, '친구야 울지마' 해주자.

3) 적응을 위한 환경구성

0세아는 분리불안이 극대화되는 시기이므로 분리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고, 감각을 자극하는 환경으로 구성한다. 0세아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육실의 냄새나 온도 등을 통해서도 보육실이 다른 환경이라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낯선 환경은 영아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영아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교사는 적극적으로 영아의 요구에 반응하여, 영아가 그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신뢰할 만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영아의 담요나 폭신한 인형, 베개 등으로 가정과 유사한 안락한 공간 마련
- 영아에게 친근한 물건이나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놀잇감 배치
- 영아의 가족사진 전시
- 일상생활을 위한 시설과 설비



0~2세 영아보육
프로그램
0~2세 영아
보육실
영아를 위한 표준보육
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
프로그램
영아를 위한 적응기간 운영
기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2. 1세아의 적응

1세아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움직임은 신체발달을 통한 유능함의 획득과 스트레스의 해소, 기질에 따라 에너지의 발산과 축적, 공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의 탐색적이고 활동적인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영아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1세아는 자신에게 안전기반을 제공하고 자신이 일상생활과 놀이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성인을 필요로 하므로 보육교사가 이와 관련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1세 초기, 중기에는 또래를 보육교사의 관심과 애정을 다투는 존재로 인식함에 따라 또래에 대한 신체적 공격성의 빈도가 높다. 이후 1세 후반에는 또래와 병행놀이를 나타내면서 또래를 인식하고 또래 행동을 모방하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1) 1세아의 적응과정

적응과정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 탐색	보육교사와 안정애착 형성하기	보호자와의 분리	보육교사의 도움으로 일상생활 및 놀이하기	보육교사와 안정적으로 일상생활 및 놀이하기	보호자와 안정적으로 헤어지기

모두 동일하지는 않지만 1세아는 비교적 비슷한 일련의 적응 과정을 밟아나간다. 보호자와 함께 보육실 공간을 둘러보며 보호자를 안전기반으로 낯선 보육실 공간을 탐색하고 익숙해진다. 보호자와 분리한 후에는 보육교사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편안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즐겁게 놀이하면서 이후 보호자와 안정적으로 헤어질 수 있게 된다.

2) 적응을 돕는 교사의 역할 및 상호작용

1세아는 감각적인 활동과 움직임의 욕구 실현을 도울 수 있는 환경구성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영아가 감각을 이용하여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사물을 비치하고 다양한 지각적 체험을 제공하여 교사와의 유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다. 1세아는 반복되는 일과를 통해 하루 일과와 할 일을 몸으로 체득한다. 반복적인 일과는 영아들에게 다음에 일어날 일이나 활동을 이해하게 해주고 예측할 수 있게 해주어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적응 초기에는 변화보다 일관성 있는 일과를 통해 영아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교사와의 활동	상호작용
어린이집 환경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실로 들어오는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서오세요. ○○야, 보육실로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지 들어가 볼까? 여기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보자. • 봉봉카 타고 어린이집 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봉봉카 타고 가요, 어린이집을 돌아볼까? - 선생님이 밀어줄까? 자, 다시 보육실로 왔어요.
감각적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 밀가루 점토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릇 안에 무엇이 있지? 빨간색, 노란색 밀가루 점토가 있구나. 한 번 만져 볼까? - ○○는 밀가루를 손으로 꼭 눌렀구나. 주먹으로 쿵쿵 치면 어떻게 될까? • 마카로니 쏟고 담기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구니에 무엇이 들었지? 손으로 만져 보자. - ○○가 컵에 담았다가 쏟았네. 와~ 다 쏟아졌다. - 다시 그릇에 담아볼까? 가득 담겼네.
선생님과 관계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소꿉놀이 하고 있었구나. 어떤 음식을 차렸어? 한번 먹어볼까? - ○○도 먹어볼래? 정말 맛있지. • 스티커 붙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 스티커를 떼서 어디에 붙일까? - ○○는 선생님 얼굴에 스티커를 붙였네. - 이마에도 붙여보자. ○○이마에 스티커가 붙었네.

V. 영아를 위한 적응기간 운영

신체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바닥 쳐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바닥을 쳐보자. 짹짹. - ○○가 손바닥을 잘 치네.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해볼까? • 매트 위에서 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위에서 쿵쿵 뛰어볼까? - ○○가 아주 높이 뛰어올랐네. 선생님이 잡아줄게.
------	--

3) 적응을 위한 환경구성

1세아는 신체·움직임을 통해 환경을 탐색하며 신체·움직임적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 발달적 특징을 보인다. 그러므로 1세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신체 활동을 해 볼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된다.

- 쿠션, 담요, 인형 등으로 안락하고 쉴 수 있는 공간 마련
- 넓은 보육실 공간
- 교구장을 벽쪽에 배치하고 신체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
- 충분한 수의 놀잇감 배치
- 영아들의 수준차를 고려한 놀잇감 배치를 통해 영아가 유능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 구성

3. 2세아의 적응

2세 이후 분리불안이 극복되는데, 이 시기의 영아들은 보호자가 특정한 일이 나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2세 이후 영아들의 적응은 부모와의 분리가 우선적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교사와의 애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보육실 적응 대상은 교사, 또래, 놀이 등 다양하며 이러한 요소들과 순차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한다.

1) 2세아의 적응과정

적응과정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 탐색	보호자와의 점진적 분리	교사와 관계맺기	또래와 관계맺기	놀이 즐기기	하루 일과 적응하기 (급·간식, 낮잠, 배변 등)

0세, 1세와 마찬가지로 2세아도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을 탐색하는 것에서 적응을 시작한다. 2세아는 자신과 환경을 연결하는 매개물로 교사를 이용하고, 교사는 영아를 교실 세계로 안내하여 물리적인 환경을 흥미있게 만들어 보여주며 불안감을 감소시켜 준다. 그러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아가 또래와 놀이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어 적응에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영아들 중 일부는 또래와 애착을 형성하는데, 이들은 보호자와의 애착 정도가 높지 않고, 보육실을 자유롭게 탐색하며,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진다. 또한 일부 영아들은 보육실에서 놀잇감에 흥미를 가지고 몰두하며 상대적으로 또래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적게 하는 특성을 보인다.

2세아는 0세, 1세와 달리 보육실을 구성하는 교사, 또래, 놀이 등 다양한 요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어린이집에 적응한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의 개별적인 적응 특성과 적응과정을 이해하고 영아가 개별적인 적응방식에 따라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V. 영아를 위한 적응기간 운영

2) 적응을 돕는 교사의 역할 및 상호작용

2세아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적응과정을 거치므로, 교사는 영아가 또래, 놀이감에 개별적인 적응과정과 속도, 방식에 맞춰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는 영아에게 보육실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활동과 놀이감,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영아가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적응할 수 있는 일과로 구성한다.

교사와의 활동	상호작용
각 영역 소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둘러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어린이집에 왔구나.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어. 어린이집에는 무엇이 있는지 엄마랑 손잡고 둘러볼까? • 보육실 둘러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는 ○○반에서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지낼 거예요. - 엄마랑 교실 한 번 둘러볼까? - ○○가 놀고 싶은 놀이감을 가져와 볼까? • 영역 둘러보고 놀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퍼즐을 맞추고 있구나. 와 잘하네. - 선생님이 책 읽어줄까? ○○가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왔네. - 여기엔 무엇이 있지? ○○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
선생님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의 이름은 ○○○야. • 선생님의 얼굴에는 무엇이 있을까? 너희들처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네. • 선생님은 오늘 머리에 핀을 꽂았어. 무슨 모양이지?
또래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 벽에 선생님이 사진을 붙여놓았는데, 누구의 사진일까? 누구인지 찾아볼까? • ○○야 □□반에 들어와서 반가워. 잘 지내보자.
신체놀이를 통한 긴장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같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움직여볼까? • ○○는 그네타고 싶어서 기다리는구나. • 선생님이 그네를 밀어줄까?

3) 적응을 위한 환경구성

2세아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적응과정을 보여주므로, 영아의 다양성을 반영한 환경구성이 되어야 한다. 특히 영아의 개인적인 공간이 마련되어 영아에게 자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조용히 쉴 수 있는 개별적인 공간
- 조용한 활동/움직임이 활발한 활동을 위한 공간
- 구조화된 움직임을 유도하는 공간/자유로운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공간
- 먹고 씻고 잘 수 있는 일상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공간

4. 신입원아, 수시 입소 신입원아 및 재원아의 적응

3월에 다른 신입원아와 함께 적응과정을 진행해야 하는 신입원아인지, 3월 이후 연중에 단독으로 적응 과정에 참여하는 수시 입소 신입원아인지, 전 연령 반에서 1년간 보육되다가 상위반으로 이동하는 재원아인지에 따라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해당 시기의 보육실 분위기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 **신입원아** : 동시에 많은 영아가 함께 적응하게 되어 함께 적응기간을 거치게 되므로 많은 수의 또래가 나타내는 부적응 행동과 불안정한 보육실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불편해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적응기간 동안은 동일한 시간대에 신입원아가 모두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도록 시간대를 달리하여 여러 집단으로 나누어 최소 일주일에서 4주 정도의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수시 입소 신입원아** : 또래들이 이미 초기 적응기간을 끝내 이전보다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빈도가 낮다. 또한 보다 안정된 보육실 분위기가 유지됨에 따라 비교적 적응이 수월해지므로 최소 일주일을 기준으로 적응기간을 운영한다.
- **재원아** : 이미 동일 어린이집에서 길게는 1년간 생활한 영아이므로 어린이집에 적응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보육실 공간이 바뀌고 교사 대 비율이 증가하며 보육교사가 이전 보육교사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입원아와 마찬가지로 적응 문제를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입원아의 적응기간 동안 신입원아의 보호자가 보육실에 들어오고 신입원아가 울음, 일과 거부 등을 보이는데 따른 불안정한 보육실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재원아 또한 새로운 보육실 공간을 탐색하여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보육교사와 더불어 새로 담당할 보육교사와도 일상생활과 놀이를 해 보는 경험을 갖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재원아가 새로운 보육실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보육교사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이해**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 가정과의 연계
- 지역사회와의 연계

VI.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영아의 가정,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사회는 영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환경으로서 이들은 서로 연계되어 영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돕고,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 지지 및 지원에 따라 운영 전반에 영향을 받게 되고, 어린이집 역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도 신뢰롭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1. 가정과의 연계

가족의 구조가 변해 가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주 어린 시기부터 어린이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영아들이 늘어나고 있다. 영아는 어린이집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긴장과 불안함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낯선 환경으로 인한 영아의 불안감을 줄이고, 영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은 가정과의 협력을 통해 영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더욱 민감하게 영아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각 영아에게 가장 적합한 보육프로그램을 계획·실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들이 편안하게 기관과 교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정과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과의 연계에서 주된 대상은 부모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점차 다양해지는 가족 구조(조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를 고려하여 명칭, 방법 등을 재구성하고, 대상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그들을 위한 개별적인 배려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과 연계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알아두도록 한다.

어린이집에서 실시할 수 있는 가정과의 연계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정과의 연계활동〉

가정과의 상호작용	• 게시판, 일일보고서, 대화수첩, 가정통신문, 전화 및 인터넷 활용, 안내책자, 도서 대여 등의 다양한 정보교환
부모면담	• 정해진 시기에 실시하는 공식적인 1:1 개별면담 • 부모 여러 명과 함께 진행하는 집단면담
부모교육	•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강사초빙 강연회, 워크숍, 부모참여수업 등
기타	• 어린이집 행사관련, 급식 도우미, 교구 제작 및 보수, 책 읽어주기 등의 자원봉사 • 부모 간 교류기회 마련 등

1) 가정과의 상호작용

(1) 게시판

- 출입구에서 가깝고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판을 마련하여 부모를 위한 정보를 안내한다.
- 게시판에는 주로 부모들에게 알려야 할 공지사항이나 행사 관련 정보, 보육계획안, 가정통신문, 자녀양육 정보, 건강·영양·안전에 대한 정보 등을 안내한다. 그 외에도 각 반의 활동에 관련된 사진이나 작품을 전시할 수도 있다.

(2) 일일보고서, 대화수첩

- 매일 부모와 영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이다.
- 영아의 경우에는 수유, 이유, 배변, 수면 등의 상황과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매일 의사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부모는 등원 시 영아가 가정에서 지낸 상황에 대해 기록하여 전달하고, 교사는 영아가 하루 동안 지낸 상황을 기록하여 전달한다.

VI.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영아 일일보고서의 예〉

월 일 요일 날씨(), 출결()		집에서의 소식		원에서의 소식		
원 아 상 태	기분	좋음, 보통, 나쁨(이유:)		기분	좋음, 보통, 나쁨(이유:)	
	건강	좋음, 보통, 나쁨(이유:)		건강	좋음, 보통, 나쁨(이유:)	
	체온	열이 (있음: , 없음)		체온	열이 (있음: , 없음)	
식 사	저녁	식욕	있음, 보통, 없음	간식	식욕	있음, 보통, 없음
	그외	식욕	있음, 보통, 없음	점심	식욕	있음, 보통, 없음
	아침	식욕	있음, 보통, 없음	간식	식욕	있음, 보통, 없음
배 변	저녁	안했음, 했음(딱딱함, 보통, 설사)		아침	안했음, 했음(딱딱함, 보통, 설사)	
	아침	안했음, 했음(딱딱함, 보통, 설사)		점심	안했음, 했음(딱딱함, 보통, 설사)	
수 면	: 부터 : 까지		수 면	: 부터 : 까지		
투 약	투약시간: 증상	약용량 :	투약 증상	투약시간: 증상	약용량 :	
전 달 사 항			전 달 사 항			
준 비 물			수 납			

※ 출처 : 여성가족부(2008). 2세 보육 프로그램.

〈영아 일일보고서의 예〉

이름	도착 시간 및 보호자	아침 식사	배변	심적 상태	귀가예정 시간 및 보호자	반		수유 및 이유식	수면	심적 상태
						배변	수면			
○○○	7:50 모	○	×	○	18:00 할머니	1	3	우유450ml, 주스, 점심, 간식 2회	10:20~ 11:30, 4:00~ 5:30	○
선생님께	출장을 가게 돼서 할머니가 데리러 오실 거예요.									
부모님께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 많이 울어 바깥으로 나가 달려서 들어오니 잘 놀았어요.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	8:40 모	×	○	△	19:00 부	1	4	우유300ml, 주스, 점심, 간식 2회	12:20~ 2:30	△
선생님께	어제 저녁부터 기침을 조금씩 하더니 맑은 콧물이 나오네요.									
부모님께	열은 없었는데 기침을 계속 하네요. 누런 콧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컨디션이 안 좋은지 잘 먹지 않는군요.									

※ 출처 : 김혜경 외(2002). 효과적인 영아 보육을 위한 지침서. 서울 : 다음세대.

(3) 가정통신문

- 가정통신문은 교사와 부모가 서면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수단이다.
- 가정통신문의 내용은 대체로 주간 보육계획안이나 월간 보육계획안 등의 프로그램 안내이며, 행사에 대한 안내, 식단 등에 관한 것이다.
- 가정통신문은 짧고 간결하면서도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부모가 참여해야 할 행사나 활동을 알리는 경우에는 부모가 미리 일정을 조정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안내해야 하며, 적어도 1주일 전에는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정통신문은 영아에게 직접 배부하는 것이 좋으며 부모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부모들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곳에 비치해 두고 가져가도록 준비해준다.

(4) 전화

- 부모와 급한 연락이 있을 때, 영아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영아가 결석했을 때 등 즉각적인 대화가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상담할 내용이 있으나 만나기가 어려울 때 사용한다.
- 전화는 간편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긴 시간 동안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우므로 심각한 내용에 대한 상담은 따로 시간을 내어 개별면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전화통화의 예

- ◎ 영아가 결석했을 때
“○○어머님, 안녕하세요? ○○가 오늘 어린이집에 오지 않아서 걱정되어 전화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 ◎ 영아가 아파서 결석한 후
“안녕하세요? ○○ 담임교사인 ○○○입니다. ○○가 건강한 모습으로 어린이 집에 오게 되어 다행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의 건강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나요?”
- ◎ 영아가 다쳤을 때
“안녕하세요? ○○ 담임교사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 오늘 놀이 시간에 블럭놀이를 하다가 친구와 다툼이 일어나 손등을 물렸습니다. 상처가 심하지는 않아서 양호선생님께서 간단히 치료해 주셨어요. 많이 속상하시죠. 다음부터는 좀 더 주의해서 아이들 놀이를 관찰하겠습니다.”
- ◎ 영아의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안녕하세요? ○○ 담임교사인 ○○○입니다. ○○가 등원 후에 몸이 간지럽다고 하여 살펴보니 배에 두드러기가 나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오전에 집에서 무엇을 먹고 등원했나요?”



(5) 인터넷(홈페이지, e-메일)

- 기관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한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부모와 대화를 교류할 수 있고,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라도 부모와 교사가 개인 e-메일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
- 홈페이지와 e-메일은 어린이집에서 알려야 할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영아들의 활동사진이나 작품을 보여주는 도구로도 사용된다.
-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소통은 매우 편리한 방법이나 간혹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부모는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운영안내책자

- 운영안내책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고 영아가 기관에 다니는 동안 가정에서 참고할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담아 구성한다.
- 운영안내책자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하며, 전문적인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여 작성한다.
- 운영안내책자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철학, 보육목표, 프로그램의 특성, 보육시간 및 보육료, 일과운영 등 어린이집에 대한 소개 및 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들 위주로 구성하며, 이 책자는 부모 오리엔테이션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7) 도서 대여

-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 및 자질 습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서대여의 방법이 있다.
- 부모에게 유용한 교양 도서 및 교육용 책자를 따로 구비해 놓고 대여해준다.
- 도서 대여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도서의 내용 선정에 유의하고 부모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도서를 기간별로 추천해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2) 부모면담

(1) 개별면담

- 개별면담은 교사와 부모가 일대일로 대면하여 영아에 대한 생활과 문제행동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바람직한 지도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이다.
- 면담을 통해 교사는 부모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서로 영아 보육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교사는 부모의 양육방법이나 가정환경을 이해함으로써 영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영아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가능한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
- 개별면담은 어린이집의 연간 계획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실시하는 공식적 면담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등하원 시 만나게 되는 부모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비공식적 면담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 면담을 위한 준비로 각 영아에 대한 관찰 기록이나 영아의 활동 결과물, 신체 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면담을 하고 면담 결과는 정확히 기록하여 보관해둔다. 특히 영아의 경우 부모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였는지와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보육교사는 평소 영아의 적응상태, 생활습관, 배변, 수면상태 등을 잘 정리해두고 면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개별면담은 1년에 2회 정도로 계획하는 곳이 많다. 첫 번째 면담은 주로 학기 초에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영아가 기관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가정에서의 생활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게 된다. 두 번째 면담은 2학기가 시작된 후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교사가 기관에서의 영아의 생활과 변화 등에 대해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 개별면담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도록 계획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준비한다.

 개별면담 진행하기

- ◎ 반갑게 맞이하기
“어서오세요, ○○어머님(아버님). ○○ 담임교사 ○○○입니다. 면담 시간에 맞춰 직장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 ◎ 개별면담의 취지 알리기
“오늘 면담은 ○○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부모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 ○○가 집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 지 알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 ◎ 교사가 관찰한 내용 전달, 궁금한 내용 질문
“○○는 등원해서 부모님과 잘 헤어지고, 간식, 점심도 잘 먹는 편입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적응을 잘 한 것 같아요.”
“○○가 어린이집을 다닌 후, 집에서의 생활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 ◎ 부모가 부탁하거나 하고 싶은 말 있는지 확인 후 이야기를 듣거나, 부모의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
“어린이집에 부탁하실 내용이냐, 바라는 점 있으신가요?”

(2) 집단면담

- 집단면담은 면담의 깊이를 갖기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부모들 간의 교류를 통해 자녀의 문제를 폭 넓게 볼 수 있으며 부모와 교사의 둘만의 긴장된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집단면담에서는 기관 운영이나 보육내용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부모의 의견이나 요구를 듣고 이를 수렴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함께 모인 부모 간에 자녀 양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상호 정보를 얻고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 집단면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가능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부모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미리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단면담 이전에 면담의 주제와 유형, 진행 방식 등에 관해 부모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3) 부모교육

(1) 부모 오리엔테이션

- 오리엔테이션은 가정과 어린이집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주로 학기 초에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영아의 어린이집 생활을 위해 가정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신입원아 또는 재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간에 입소하는 원아 부모에게도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 신입원아를 위한 부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것은 영아들이 입소하기 전에 미리 어린이집을 둘러보고 교사와 만나 어린이집에 대한 낯선 감정을 제거하고 친숙함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어린이집을 처음 이용하는 부모에게는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정보 및 어린이집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안내해야 하므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안내책자가 마련되어 있다면 오리엔테이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강연회

- 강연회는 정해진 주제에 대해 부모가 강연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 강연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영아보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인식을 돕고, 영아 발달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며, 양육의 바른 태도를 함양하는 것에 있다. 또한 부모가 영아 발달의 촉진자로서 필요한 환경 구성, 상호작용 방법, 역할 모델을 습득하도록 돕고, 부모들의 자아실현을 돕는 데 있다.
- 강연회의 내용은 연령별 발달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모-자녀관계 특성, 대화

법, 영아의 문제 행동과 이에 대한 지도, 효과적 학습 환경 조성 및 상호작용 기술에 관련된 것이 포함될 수 있으며, 부모의 요구 및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기초로 정할 수 있다.

- 강연회의 주제뿐 아니라 강사 선정 및 섭외 과정에 부모들이 참여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강연회가 될 수 있고, 가능한 부모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과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강연회의 주제와 강사가 정해지면 각 가정에 강연 제목, 일시, 장소, 주제를 간단히 소개하는 초대장을 보낸다. 강연회가 끝나면 그날 강연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는 다음 강연을 계획할 때 반영하는 것이 좋다.

📢 부모 강연회 준비 tip

- ◎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이나 설문지를 통해 미리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하기
- ◎ 강연회의 주제와 제목은 현실감 있고 흥미가 유발되는 것으로 선정하기
예) ‘아침에 아이 깨우기’, ‘부모가 즐거운 놀이시간’, ‘우리아이를 위한 경제교육’,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 배변훈련 편’ 등
- ◎ 안내문에 ‘부모님께’로 시작하는 것보다 ‘○○ 어머님’ 또는 ‘부모이름’으로 시작되는 편지를 작성하여 특별히 준비된 편지를 받는다는 느낌을 주어 참여율 높이기
- ◎ 강연회동안 영아보육을 담당해주기
- ◎ 자녀 작품이나 활동 과정을 강연회 직전에 보여주어 부모들이 강연회에 늦지 않도록 유도하기
- ◎ (강연회 시작이 지연될 경우) 제 시간에 온 부모를 위한 간단한 게임이나 활동을 계획하기
예) 드라마 주인공 알아맞히기 게임, 어린이집 교사(다른반) 이름 알아맞히기 게임, 물건 값 알아맞히기 게임 등

(3) 워크숍

-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이 하는 놀이 및 활동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모들이 영아와 함께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는 워크숍을 계획할 수 있다.
- 워크숍의 주제는 부모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이 좋고, 활동의 예로는 놀잇감 제작, 영아를 위한 놀이 및 게임 배우기, 손유희 배우기, 소꿉놀이 소품 만들기 등이 있다. 활동은 가능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준비한다.
- 워크숍에서 만든 결과물은 어린이집에 기증하거나, 어린이날 선물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각 가정으로 가져갈 경우 자녀와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활동 방법이나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소개해 준다.

(4) 부모 참여수업

- 부모 참여수업은 자녀와 함께 어린이집의 생활을 직접 경험해 보는 활동이다.
- 부모들은 이러한 경험의 공유를 통하여 보육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자녀의 생활을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가정 및 부모의 상황이나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어머니 참여수업, 아버지 참여수업,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참여수업 중에서 필요한 활동을 선택하여 계획한다. 최근에는 가족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어머니 참여수업이나 아버지 참여수업이 의도하지 않게 상처와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각 영아의 가족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적절한 참여 대상을 선정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 참여수업은 부모들이 시간을 비워둘 수 있도록 최소 3~4주 전에는 날짜를 알리고 참석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영아반에서 실시할 수 있는 참여수업에는 터널통과하기, 풍선놀이, 음악에 맞춰 함께 몸을 움직여보는 신체놀이 및 활동이 있다. 2세의 경우에는 간단한 요리활동과 미술활동도 실시할 수 있다.

4) 기타

(1) 자원봉사

- 부모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 교재교구 제작 및 수리하기
 - 악기연주를 통한 작은 음악회
 - 동화책 읽어주기
 - 급·간식 도우미
 - 야외학습 및 소풍 시 도우미
- 부모들이 자원봉사로 역할 할 때에는 반드시 적절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부모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부모로 하여금 현장에서 자신의 자녀와 다른 영아를 차별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하며 보육에 실제 참여할 때는 사전에 교사와 함께 보육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한다.

(2) 부모 간 교류기회 마련

- 어린이집에서는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영아의 활동 및 발달에 대하여 다른 부모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여러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부모들 간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소그룹 간담회를 실시하거나, 부모만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2. 지역사회와의 연계

어린이집과 지역사회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보완적 관계여야 한다.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다양한 가족구조의 탄생 등으로 인해 양육이 가정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의 영역이 되어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부모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는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를 고려한 지역사회 연계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인적자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러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영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은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영아가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한다. 어린이집에서 일반적으로 실행하는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다음과 같이 인적 자원 활용, 물적 자원 활용, 어린이집 운영 참여자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사회 연계 자원 유형〉

인적 자원 활용	- 지역의 다양한 인적 자원을 자원 봉사자로 활용 - 지역사회 어르신을 영아 보육의 자원 봉사자로 활용하거나, 전래 동화 이야기 선생님, 예절 선생님 등으로 활용
물적 자원 활용	- 어린이집 앞 공터나 놀이터, 공원, 도서관, 관공서, 농장 등
어린이집 운영 참여자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 인사 참여

1) 지역사회 인적 자원 활용

- 어린이집에서는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기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기대나 요구를 기관운영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아의 특성상 외부인이 함께 활동에 참여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 지역사회 어르신이나 구성원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실시하거나, 동화를 읽어주는 활동 등을 계획할 수 있다.
- 이러한 활동은 영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지역사회 구성원을 만날 수 있는 건전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가도록 한다.
-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때는 적절한 교육과 안내를 통해 어린이집 상황에 적합하고 영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 물적 자원 활용

- 어린이집에서는 영아들이 가정과 어린이집 외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원, 도서관, 어린이박물관 등의 가까운 장소를 방문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 때 영아들은 나들이가 쉽지 않으므로 각 연령에 맞는 가까운 거리의 장소를 적절히 선택하여 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책, 놀잇감을 빌려보거나, 영아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책을 빌리는 등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보육관련 단체나 개인에게 어린이집의 참관을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

◎ 0세

- 스스로 걷는 것이 어려우므로, 실외놀이터나 베란다에서 바깥구경을 하거나 유모차를 타고 어린이집 주변을 둘러보는 등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VI.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 1세

- 스스로 걷고 뛰는 것이 가능한 연령이 되면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근처의 공원, 실외놀이터, 산책로 등의 장소를 알아두고 영아들이 일광욕과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2세

- 2세는 실외공간에서 활동적인 체험활동을 좋아하므로 지역사회의 공원, 동물원, 소방서, 어린이용 소극장, 어린이박물관, 영유아플라자 등과 연계하여 영아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학기 초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도서관 등과 연계된 가벼운 활동을 진행하고, 학기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계획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지역사회 활동 시 준비물

- 이름표, 응급약품, (물)휴지, 여벌옷, 돗자리 등

3) 어린이집 운영 참여자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서는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 관계를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한다.

📅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연간주제

- 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서는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주제와 연관하여 주제별로 1개씩 수립하여 제시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각 연령별로 다양한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실천하도록 한다.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 2세〉

번호	연간주제	가정과의 연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1	어린이집이 좋아요 (7주)	가족과 어린이집에서 한 일 이야기해보기	지역 대학의 관련학과 학생 자원봉사 (보조교사)로 활용하기
2	봄나들이 가요 (5주)	가족과 집 주변 산책하기	선생님과 꽃과 벌레를 관찰할 수 있는 공원이나 뒷동산, 농원 등 산책하기
3	나는요 (5주)	가족과 함께 목욕하며 서로의 몸에 관심 갖고 자연스럽게 탐색해보기	선생님과 함께 가까운 보건소 방문하여 신체와 건강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기
4	재미있는 여름이에요 (7주)	가족과 집에서 목욕하거나 수영장에 가서 물놀이 하기	기관으로 치과 의사 선생님 초대하여 치아검진 받기
5	나는 가족이 있어요 (5주)	가족과 '가족사진' 함께 보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린이집으로 초청하여 함께 놀이하기
6	동물놀이해요 (6주)	가족과 함께 동물원 나들이 해보기	동물병원 견학하기
7	알록달록 가을이에요 (6주)	가족과 함께 공원 나들이 해보기	공원으로 산책가기(어린이집에서 가까운 근린공원으로 산책가기)
8	겨울과 모양을 즐겨요 (5주)	가족과 '내 몸', '가족의 몸'에 있는 '모양' 찾아보기	선생님과 주변의 가게(군고구마, 호빵 등)에 방문하여 '겨울 음식' 살펴보기
9	나는 친구가 있어요 (6주)	가족과 함께 선생님, 친구의 사진을 보며 이름 말하기	선생님과 노인정, 양로원 등 어르신이 계시는 곳을 방문하여 새해인사 드리기

⚙️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관련된 참고 기관

- ◎ 중앙 및 각 시·도,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한국부모교육센터
- ◎ 한국가족상담연구소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위드맘(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홈페이지)
- ◎ 한국유아교육센터
-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이해



부록

- 영아 부모를 위한
월령별 발달 정보 요약표
- 영아반 교사가 알아야 할 Q&A
-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일별)
-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월별)
- 참고문헌

[부록1] 영아 부모를 위한 월령별 발달 정보 요약표

0~36개월 영아를 둔 초보 부모님들은 영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아 부모를 위해 월령별 발달 정보와 육아 노하우를 가정통신문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영아 부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아반 초임교사도 알아두면 매우 유용한 발달 정보입니다.

다음에 제시한 영아 부모를 위한 월령별 발달 정보 요약표는 강남구육아지원센터(2009)에서 발행한 ‘첫째가는 사랑-우리 아기 포토 & 육아 스토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0~3개월

발달 정보	육아 노하우
엄마랑 눈 맞추며 이야기해요	엎어놓으면 머리를 들어 올리려고 한다. 눈앞의 사물이 이동하는 것에 따라 시선이 따라간다. 목 울림소리나 자음(예: 그, 크, 흐)또는 모음소리(예: 아, 우)를 낸다. 엄마의 얼굴을 한참동안 쳐다보며 눈을 맞춘다. 만족스럽거나 불편한 것을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한다.
눈을 맞추고 말해요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목욕을 시켜줄 때, 끊임없이 아기에게 말을 걸고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세요. 아기가 좋은 기분을 경험하게 되고 신뢰감 형성을 돕습니다. “우리 ○○이 기저귀에 쉬 했네.” “축축해서 기분이 나빴겠다.” “엄마가 기저귀 갈아줄게.”
목가누기는 언제 하나요?	얹혀 놓았을 때 영아가 스스로 목을 가누는 시기는 빠르면 생후 1.7개월, 평균 생후 2~3개월 정도입니다. 생후 3개월이면 영아를 엎어 놓았을 때 고개를 거의 90도 정도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생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안았을 때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생후 5개월이 되도록 목을 가누지 못한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 놀잇감	모빌과 딸랑이로 놀아주세요.

4~6개월

발달 정보	육아 노하우
오감각으로 주위 환경을 탐색해요	머리를 가늠다. 관심 있는 물건을 보면 손을 뻗는다. 배밀이를 시작한다. 도움을 받아서 앉을 수 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마마’, ‘아구’ 같은 웅얼이를 한다. 소리 내어 웃고 기분 좋으면 소리를 지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웃거나 웅얼거린다. 울음으로 감정표현을 한다. 엄마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거울이 신기해요	아기가 안전하게 거울을 볼 수 있도록 앉히고, 거울에 다가가 만져 탐색해보도록 해주세요. “우리 ○○이 거울 앞에 앉아 볼까?” “우와, 이게 누구야? ○○ 얼굴에 코도 있고, 눈도 있네.” “거울 속에 엄마도 있네. 엄마가 눈을 크게 뜨고 있네.”
웅얼이는 언제 하나요?	웅얼이는 영아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입니다. 평균 생후 4~5개월경에는 웅얼이를 하는데 생후 6개월이 지나도 소리를 내지 않거나 엄마가 열려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청각이나 발성기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놀잇감	소리 나는 놀잇감과 촉감 놀잇감으로 놀아주세요.

7~9개월

발달 정보	육아 노하우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요	엄마가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면 다리에 힘을 준다. 혼자 앉을 수 있다. 혼자서 과자를 먹는다. 말귀를 알아듣는다. 엄마가 ‘젼젼’ 이라는 말을 하면 아이도 따라 한다. 낯선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엄마에게 강한 애착을 보인다. 놀잇감을 수건으로 덮으면 찾을 수 있다.

부록 1

발달 정보	육아 노하우
두 손을 많이 움직여주세요	물건을 집어 올리거나 두드리기, 종이를 구기거나 찢으면서 놀아주세요. “우리 북을 신나게 두드려 볼까?” “어떤 소리가 나지?” “두 손에 힘을 주고 종이를 찢어 볼까?”
낮가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생후 6개월부터 생기는 낮가림은 이 무렵 더욱 심해져서 낮선 사람을 보 기만 해도 울거나 엄마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이는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없어 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리불안은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며 자라면서 현상이 사라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 놀잇감	단추를 누르면 튀어나오는 놀잇감, 소리 나는 공(뽁뽁), 북으로 놀아주세요.

10~12개월

발달 정보	육아 노하우
의존과 독립성이 공존해요	사람이나 벽, 의자, 소파 등을 잡고 일어선다. 손가락을 이용해 작은 물건도 집어 올릴 수 있다. ‘맘마’ 나 ‘엄마’, ‘어부바’ 같은 소리를 낸다. 독립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안돼’ 라는 금지의 말을 이해한다.
까꿍놀이를 해요	엄마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보였다 하면서 까꿍놀이를 한다. “우리 ○○이 어디 있니? 까꿍!” “엄마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까꿍!”
젖은 언제 땄까요?	모유에는 필수적인 영양분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한 살이 넘는 영아에게 모유 를 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가 나는 시기에 모유나 우유를 빨면 입 속에 계 속 젖이 고여 있어 이가 상할 수 있으므로 치아 건강을 위해서도 젖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 놀잇감	블록퍼즐, 장난감 전화기, 실로폰으로 놀아주세요.

13~18개월

발달 정보	육아 노하우
새로운 것은 다 해보고 싶어요	걸음마가 능숙하다. 손가락을 혼자 쥐고 먹는다. ‘응아’, ‘까까’, ‘어부바’ 등의 유아어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눈’, ‘코’, ‘입’을 가리킬 수 있다. 사물의 이름을 말하면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좋아하는 사람, 물건에 애착이 생긴다.
눈, 코, 입을 가리켜 보여요	눈, 코, 입이 어디 있는지 아이에게 질문하고, 눈, 코, 입을 스스로 가리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이 눈(코, 입) 어디 있니?” “여기 있네.” “이번에는 우리 ○○가 가리켜볼까?”
식습관은 어떻게 배울까요?	이유식에서 유아식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가락 사용에 익숙하도록 지도해 주는 것 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 놀잇감	소형자동차, 컵 쌓기, 탬버린으로 놀아주세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모자 벗기, 양말 벗기

19~24개월

발달 정보	육아 노하우
나 밖에 몰라요	난간을 잡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거나, 한 층에 두 발을 차례로 놓으면서 도움 을 받지 않고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 손 조작 능력이 정교해진다. 두 단어로 된 문장을 말할 수 있다. (예 : 우유 쥐) 몸짓 대신 말로 의사표시를 한다. 주변의 사물 이름을 많이 알고 있다. 혼자하겠다고 떼를 쓴다. 소유개념이 생긴다.

부록 1

발달 정보	육아 노하우
통 속에 물건을 넣고 꺼내 보아요	아기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물건들을 준비해서 아기가 혼자 꺼내고 넣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이 통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꺼내 볼까?” “이건 공이네.” “이건 인형!” “다시 통에 넣어 볼까?”
대소변 가리기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18~24개월 사이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소변을 가리려면 번의를 인식하고 대소변을 조절하는 근육이 발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이의 상황에 맞추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 놀잇감	간단한 꼭지퍼즐, 실 꿰기로 놀아주세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점퍼 벗기, 바지 벗기, 도움 받아 지퍼 내리기, 배변훈련하기

25~30개월

발달 정보	육아 노하우
미운 세 살 이라고요? 자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블록 6~8개를 쌓아 올린다. 공을 앞으로 던질 수 있다. ‘안돼’, ‘아니야’ 등의 부정어를 사용한다. 자기주장이 강해지며, ‘싫어, 내가 할 거야’라는 말을 자주 한다. 자기 물건에 대한 소유가 강하다. 역할놀이가 가능하다.
역할놀이를 함께 해주세요	동물 흉내 내기, 병원놀이 등의 놀이를 하고 있는 아기를 잘 지켜보다가 상상 놀이가 시작되었을 때 놀이의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엄마는 사자할까?” “OO는 어떤 동물이 되고 싶어?” “난 고양이야. 야옹 야옹!”

발달 정보	육아 노하우
고집부리고 떼쓰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시기는 자기의 주장이 강해지고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엄마의 손을 밀어내고 자기 손으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이러한 반항적인 행동과 고집은 아이 마음에 자아가 싹트고 있다는 증거이며, 독립을 위한 첫 발을 내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모들은 이런 행동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아이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 놀잇감	나무토막과 그림책, 블록으로 놀아주세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도움 받아 화장실가기, 손 씻기, 이 닦기, 얼굴 닦기, 도움 받아 지퍼내리기

31~36개월

발달 정보	육아 노하우
상상놀이가 너무 재미있어요	평균대 위를 혼자서 걸을 수 있다. 끈 없는 신발을 신는다.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엄마가 하는 세 가지 지시 중 두 가지는 따를 수 있다. 또래와 함께 놀이할 수 있다. 상황에 맞는 감정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가상놀이가 가능하다. 성별 구분이 가능하다.
나는 요리사	엄마의 앞치마를 입고 요리사가 되어 음식 만드는 놀이를 해 보세요. “무엇을 만들고 있나요?” “달걀이요.” “달걀로 무엇을 만들죠?” “달걀 밥 만들어요.”
아이의 자기표현을 어떻게 도와까요?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지 못할 때 아이는 화를 내거나 크게 울 수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네게 웃는 것을 보니 행복한 것 같구나.”, “얼굴을 찡그린 것을 보니 화가 난 것 같구나.” 라는 대화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우리 아이 놀잇감	찰흙놀이, 모래놀이, 그림자놀이를 놀아주세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단추 채우기, 혼자서 옷 입기

[부록2] 영아반 교사가 알아야 할 Q&A

0~2세 영아반 교사는 영아마다 각 연령 시기에 따라 보이는 반응과 행동들에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초임 영아반 교사의 경우에는 영아가 보이는 다양한 행동들과 그에 따른 교사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갖게 됩니다.

다음에 제시한 영아반 교사가 알아야 할 Q&A는 여성부(2002)에서 발행한 ‘영아보육모형’과 인터넷 등에서 발췌하여 편집한 내용입니다.

0~3개월

Q. 아기랑 쉽게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눈을 자주 맞춥니다.

아기는 태어나 일주일만 지나도 본능적으로 눈을 맞추면서 상대방과 유대감을 갖으려 합니다. 아기에게 밀착된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젖병을 물릴 때나 안아줄 때, 마사지 할 때, 함께 놀 때, 기저귀를 갈아줄 때 등 아기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눈을 맞춰 주도록 합니다.

2.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아기는 꼭 껴안아 줄 때 상대방의 마음을 더 확실히 느낍니다. 어른들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아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으면서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영아기에 스킨십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3.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아기를 대할 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마음과 행동입니다. 어느 때는 잘 해주다가 갑자기 냉정하게 대한다면 아기는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혼란스러워 하며 신뢰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4. 세상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영아기에는 유난히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치를 감정을 통해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감정으로 받아들인 느낌은 아기 마음속에 잠재되는데, 이런 경험들이 아기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사랑의 감정을 아기에게 고스란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6개월

Q. 아기에게 딸랑이 등 소리를 통한 교육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1. 소리 감각으로 주위를 판단하고 이해하는 첫 시기가 신생아 때입니다.

양육하는 사람의 목소리나 숨결은 아기의 청각을 통해 신경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곧바로 뇌세포로 전달됩니다. 아기는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배우고 스스로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2. 소리는 아기의 언어 구사능력과 대뇌의 고른 발달 및 신경 장애에 영향을 줍니다.

영아기에 자연스럽게 엄마 목소리나 텔레비전, 청소기, 딸랑이 소리 등을 접하게 하여 아기의 생체 리듬을 자극시켜 잠재되어 있는 뇌세포를 깨워 주도록 합니다.

3. 여러 소리들을 체험하면서 사고의 폭을 넓혀줍니다.

다양한 소리로 아기의 두뇌를 자극시켜 주세요.

Q. 이유식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1. 이유식은 숟가락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기에게 젖병도 숟가락도 모두 처음 접하는 식사 도구들입니다. 젖병을 자주 빨면서 익숙해지는 것처럼 숟가락 사용을 꾸준히 시도해야 잘 받아먹게 됩니다.

2. 아기가 씹어 먹는 훈련은 두뇌 발달과 치아 발육을 촉진합니다.

이유식은 말 그대로 딱딱한 고형식을 먹을 수 있는 중간 단계입니다. 이유식 초기부터 숟가락으로 떠 넣어 주어 씹어 먹는 훈련을 해야 어느 정도 성장하여도 별 무리 없이 음식물을 받아먹게 되며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됩니다.

3. 숟가락으로 잘 받아먹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 이유식을 처음 시작할 때 보리차나 과즙을 숟가락으로 떠먹입니다.
- 식욕이 있고 기분이 좋을 때 이유식을 줍니다.
- 이유식 전용스푼을 사용합니다. 아기의 연한 입 속에 어른들이 먹는 커다랗고 폭 파인 숟가락이 들어가면 이쁠 수 있으므로 숟가락의 깊이가 얇고 크기가 작은 스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술에 음식을 묻혀 맛과 질감을 느끼게 해 줍니다. 원래부터 아기들은 잘 삼키지 못하고 자주 뱉는 등 이물질에 대한 저항감이 강한 편입니다. 몇 번 떠먹이다 그만 두지 말고 양이 적더라도 입술 부분에 음식을 묻혀주어 자연스럽게 음식의 맛과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Q. 아기에게 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경련은 왜 일어날까요?

경련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육이 갑자기 수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개 경련이라고 하면 몸을 뒤틀면서 떠는 것을 상상하기 쉬운데, 몸이 경직되는 것도 경련입니다. 몸이 뒤틀리고 떠는 것은 길항근(서로 늘어나거나 오므리는 작용하는 하는 근육)이 서로 수축되어 일어나는 것이고, 경직되는 경련은 근육이 한꺼번에 수축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2. 어린 아기에게는 경련이 일어나기 쉬워요.

아기의 뇌는 아직 미숙해서 아주 경미한 자극에도 흥분하여 경련성 전파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를 컨트롤하는 능력도 미숙합니다. 게다가 온 몸의 장기 발달도 미숙하여 어느 부분에 나쁜 기운이 있으면 온몸에 영향을 끼쳐, 그 결과 경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머리를 벽에 심하게 부딪혔거나 충격이 가해졌을 때도 경련이 일어납니다. 머리를 부딪친 직후 또는 하루 이를 지나서 경련이 일어납니다. 구토를 하거나 의식을 잃으면서 경련이 함께 나타나면 영아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의사에게 데려가도록 합니다.

3. 침착해야 합니다.

잘 자던 아기가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면서 눈이 돌아가고, 떨며, 부르거나 흔들어도 별 반응이 없으면 어른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이미 경련은 끝났을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아기의 경련은 흔한 일이며 언제나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명심할 것은 침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손가락을 빨지 못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1. 아기가 손가락을 빠는 이유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생후 6개월 이전의 아기가 손가락을 빠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이때는 빠는 것도 하나의 놀이이고 교육입니다. 대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손가락 빨기를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생후 6개월이 넘은 아기가 손가락을 빠는 것은 무료함을 달래거나 위안을 얻기 위해서일 수 있고 이전과는 달리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2. 영구치가 나는 6세 전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기가 손가락을 오래 빨게 되면 유치가 변형되거나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구치가 나기 전까지만 손가락 빨기를 그칠 수 있다면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구치는 변형되지 않으니까요. 손가락을 빠는다고 야단을 치거나 강제로 손가락을 빼게 하는 것은 아기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입니다. 화목한 가정 분위기도 아기가 손가락 빠는 것을 줄게 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심심하지 않도록 손을 사용하는 놀잇감 등 다양한 놀잇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손에 쓴 약을 발라주거나, 반창고를 붙여두거나, 장갑이나 양말을 씌우거나, 손에 아예 나무를 대어서 아기의 손가락이 입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아기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쳐 도리어 역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7~9개월

Q. 보행기를 태울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1. 보행기를 태우는 문제는 신경계의 성숙과 관련이 깊습니다.

- 신경계가 발달해야만 그 명령을 받아서 근육이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행기를 일찍 태운다고 운동신경과 근육발달이 촉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기는 아기의 발육 정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시기의 아기들은 몸이 한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보행기를 타게 되므로 체형이 비뚤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행기를 사용하면 걷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기가 자신의 다리를 보지 못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보행기를 사용할 때는 타는 보행기보다 밀고 다니는 보행기가 더 좋습니다.

2. 보행기 사용 시 주의할 점입니다.

- 보행기는 생후 6~8개월 정도로 하리를 가눌 수 있을 때 태우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보행기를 밀고 다닐 정도로 다리에 힘이 생기는 시기는 생후 8~9개월입니다.
- 보행기를 타고 있는 시간은 한번에 30분 정도가 좋으며, 하루 2시간 이내로 태우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타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됩니다. 또 아기는 일정한 시간 바닥에서 놀아야 기어다니는데 도움이 되고, 배를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Q. 잠투정, 줄일 수 없을까요?

1. 도대체 왜 잠투정을 하는 걸까요?

- 생후 3~4개월 미만일 때에는 주위 환경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서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4~12개월의 아기들은 서서히 자율성과 독립성을 익히게 되면서 자는 시간을 인식하고 스스로 결정하려는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일부러 잠투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성인과 헤어지기 싫은 분리불안, 시끄러운 소리나 밝은 불빛, 잠자리 등 아기가 편안히 자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서 잠투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잠투정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 아기가 아직 잠이 오지 않은 상태라면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아기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누워서 토닥여 주거나 자장가를 들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잠투정을 한다고 해서 억지로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Q. 자면서 땀을 많이 흘려요.

1. 심각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 결핵이나 다른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는 아기가 땀 흘리는 것은 체질로 보아 심각한 증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2. 체질적인 문제일까요?

땀을 흘린다는 것은 아기의 신경이 늘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아기 몸 전체의 건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의 진찰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옷을 너무 두껍게 입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므로 옷 입힌 것을 한번 살펴보고 얇은 옷으로 갈아입히도록 합니다.

10~12개월

Q. 뽀족뽀족 솟은 이, 어떻게 관리해 주어야 할까요?

1. 이가 나기 전에는 어떻게 관리해 줄까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와 있는 선천치, 신생치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갓난아기는 이가 없습니다. 세수, 목욕시킬 때마다 화장 지우는 솜을 손가락에 골무처럼 끼우고 끓인 물을 적셔 입안을 마사지하듯이 닦아주도록 합니다.

2. 이가 나기 시작해요.

대부분 7~9개월에 아랫니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 윗니가 나옵니다. 이가 빨리 나온다고 해서 신체 성장이 빠르거나 지능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늦게 날수록 충치가 생길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가 날 때 별다른 변화 없이 순하게 이가 나오는 아기도 있고, 이가 나기 3~4개월 전부터 무엇든 씹으려 하고 침을 많이 흘리며 짜증을 내는 아기도 있습니다. 윗 앞니가 생겼을 때 졸려 하거나 잘 때 수유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Q. 닥치는 대로 깨우는 아이가 있어요.

1. 아기가 깨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일종의 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감각을 익히는 경험이며 놀이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물을 한 번씩 깨물어보면서 새로운 대상에 대한 존재와 재질을 느껴보려 하는 것입니다.
-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 못하는 아기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엄마와 아빠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물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을 잘 하게 되면 자연스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 스트레스의 영향입니다. 아기도 자신을 방어하고 싶거나 기분이 나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엄마와 아기의 감정은 전염성이 무척 강해서 엄마의 스트레스와 흥분이 바로 아기에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2. 깨우는 버릇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씹을 수 있는 대체물을 주세요. 이가 한참 날 때 잇몸이 간지러워서 물 수도 있으므로 무조건 물지 못하게 하기보다 냉장고에 치아발육기를 차갑게 넣어 두었다가 씹도록 하거나 고무 놀잇감, 부드러운 형견인형, 사과나 식빵을 물고 놀 수 있도록 합니다.
- 아기에게 '안된다'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눈빛과 표정으로 단호하게 "그만" "안돼" 하면 아기는 엄마의 반응을 보면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하면 오히려 재미있어 하며 무는 행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무는 행동의 결과를 느끼게 해줍니다. 물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기가 물었을 때 "호호 해줘" 라고 하면서 몹시 아프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 관심이나 흥미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심심할 때 무는 행동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활동이나 놀이를 통해 관심이나 흥미를 다른 곳으로 돌려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줍니다. 아기가 물을 먹고 싶을 때, 밖에 나가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표현의 차이가 있는지 세밀하게 관찰하여 아기의 의사를 좀 더 정확히 읽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들의 특징을 사용하여 아기에게 손짓 발짓으로 물어보며 해결해 준다면 아기의 욕구는 해결되고 깨우는 것과 같은 공격적이고 불안한 신체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Q. 유난히 침을 많이 흘려요.

1.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침을 닦아주고 턱받이도 몇 개씩 갈아주어야 할 정도로 유난히 침을 많이 흘리는 아기가 있습니다. 침을 많이 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생후 7~8개월쯤 젖니가 날 때 잇몸이 아프고 가려워 자꾸 잇몸을 부딪치거나 무엇인가를 깨물려 하면서 침이 흐릅니다.
-  구내염, 수족구, 인후염 등 심할 때 통증으로 인해 침을 쉽게 삼키지 못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침을 흘리기도 합니다. 돌 이후에도 계속 침을 흘리고 다른 신체 발달 영역에서도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면 뇌성마비나 정신지체일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하게 관찰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합니다.
-  소화기관에 문제 있을 때 침을 많이 흘릴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여 자극을 줄이도록 합니다.
-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여 불안한 심리가 침을 흘리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Q. 땀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땀띠란?

-  아기가 땀을 많이 흘릴 때 땀샘의 구멍이 막히면서 땀이 제대로 나오지 못해 물집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기들은 열이 많고 피부의 조절기능이 미숙해 땀띠가 잘 생기는데, 주로 이마와 목 주위, 사타구니와 같이 땀이 많이 차는 부위에 잘 생깁니다.

2. 이럴 때도 생겨요.

-  습도가 너무 높은 장마철이나 겨울철에 옷을 너무 많이 입혔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로 너무 깨끗이 씻어도 땀구멍이 막혀서 땀띠가 생기기도 하며, 위장이 약해져도 땀띠가 생깁니다. 과도한 비누 사용과 잦은 목욕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땀띠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  미지근한 물로 씻어준 후 땀 흡수가 잘 되는 면으로 된 수건을 사용합니다. 간혹 땀을 흡수한다고 살이 접히는 것에 손수건을 감아두기도 하는 데 젖은 수건으로 인해 아기의 피부가 더 나빠져 빨갛게 변할 수 있으므로 수건 같은 것을 감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늘하게 해주는 것이 땀띠 치료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땀이 많으면 목욕을 자주 시키고 잘 말려주도록 합니다.

4. 파우더 사용은 적당히 합니다.

-  땀띠가 생긴 곳에 파우더를 듬뿍 바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땀띠 치료 연고나 오일, 로션을 바른 후에 그 위에 바로 파우더를 뿌리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끈적끈적하게 딱처럼 달라붙어서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됩니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기저귀 발진 등이 있을 때는 파우더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5. 파우더, 잘 알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  탈크(활석)로 만들어진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검출되어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석면은 폐암, 호흡기질환 등의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서, 베이비 파우더 제품 중 탈크(활석)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베이비파우더를 고를 때는 뒷면의 함유성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천연식물성 성분으로 만들어진 베이비파우더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Q. 기저귀를 갈 때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타구니에 아픈 곳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돌이 지나면 아기는 기저귀 때문에 사타구니가 아프고 걷는 데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저귀 갈려는 것을 눈치 채는 순간 몸을 움직이며 저항하는 것입니다.

2.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  관심을 보이는 것을 손에 쥐어 주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노래를 불러 줍니다.

3. 아기의 자세를 바꿉니다.

-  눕는 것이 싫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워있는 몸의 형태를 바로잡아 줍니다.

4. 아기가 놀라지 않게 합니다.

-  무엇에 열중하고 있는 아기를 갑자기 눕히거나 재미있게 갖고 놀던 놀잇감을 빼앗은 후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13~15개월

Q. 어떻게 놀아줄까요?

1. 여러 가지 운동능력을 높여줍니다.

-  신체발달 상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자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위를 올려다 본 채 상체를 일으키거나 도와주면 물구나무서기가 가능한 아이도 있고, 앉은 채 손을 뻗어서 물건을 집는 아이도 있습니다. 특히 전신의 움직임이 가능해지므로 걷기, 달리기, 미끄럼타기, 흔들기, 뛰어오르기, 내리기, 던지기, 차기, 밀기, 당기기 등 여러 가지 운동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신운동은 발이나 허리 근육을 강하게 해서 걷는 것을 확실히 배우는 기초가 됩니다.

2.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을 유도합니다.

아이는 성인이 도와주면서 적극적으로 놀아주면 매우 좋아합니다. “공을 가지고 오세요.” 하고 부탁하면 아이는 몹시 기뻐하며 놀이에 참여할 것입니다. 또 아이는 사물 흉내 내기도 좋아하며, 어른의 행동에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3. 배변훈련을 서서히 시작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오줌이 나오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하므로 아이의 표정이나 태도를 읽고 화장실이나 변기로 데리고 갑니다. 또 마시거나 먹은 후에는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예측해봅니다. 다만, 실패했다고 초조해 하지 말고 천천히 대비하고 꾸짖지 않습니다. 무리한 화장실 연습으로 인해 오히려 기저귀 떼기가 늦어지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Q. 생우유 제대로 먹이기

1. 생우유 먹이는 시기는 돌 이후가 좋습니다.

적절한 식사와 병행해서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이에게 생우유를 너무 일찍 먹이면 구토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혈이나 알레르기가 생기기 쉽습니다. 부작용이 보인다면 조금 더 분유를 먹이다가 서서히 생우유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돌 즈음에는 분유나 모유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2. 생우유의 적당한 섭취량은 하루 400~500cc가 적합합니다.

하루 2컵이나 3컵 정도가 적합합니다. 많아도 700cc 이상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돌이 지나고 난 아이들은 밥이 주식이 되고, 자연식품에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우유만 너무 많이 먹으면 다른 음식을 잘 먹지 않아서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3. 생우유를 먹일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생우유는 아이 성장에 필요한 철분, 비타민, 섬유소가 부족합니다. 생우유만으로는 빈혈이나 변비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아이의 주식으로는 밥을 주고 생우유는 보조식품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유는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먹는 것보다는 꺼낸 다음 10분 정도 두었다가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16~18개월

Q. 충치 없는 치아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유치관리는 중요합니다.

신생아 때부터 유치관리를 소홀히 하면 튼튼한 영구치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유치는 영구치의 자리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2. 이의 색깔을 자주 살핍니다.

건강한 이는 전체적으로 색깔이 같습니다. 아이의 이에 얼룩이 있다면 부모님께 전달하여 전문의에게 데려가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3.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이를 닦게 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칫솔질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7세 정도까지는 부모가 다시 한 번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4. 이를 닦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면 음식 속의 당분이 분해되고 치아 표면에 만들어진 산을 씻어냅니다.

5. 입 주위를 톡톡 두드려 줍니다.

손끝으로 입 주변과 턱, 볼을 톡톡 두드립니다. 이곳은 치아의 위생을 유지하는 경혈로 두드리면 침이 자꾸 나옵니다. 침에는 파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 소화를 돕고 치아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6. 자주 맹물 양치질을 합니다.

단 것을 못 먹게 하기 어렵고, 또 먹을 때마다 양치하기가 어려우므로 맹물로 양치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7. 간식을 줄입니다.

간식은 충치의 원인이므로 횟수를 줄입니다. 특히 저녁식사 후 먹는 간식은 이 닦기를 안했을 경우 치명적입니다.

8. '아에이오우' 소리를 내며 입을 크게 벌려 운동을 합니다.

치아가 나뉘수록 턱 근육이 약해지므로 입을 크게 벌리는 훈련을 통해 씹는 힘을 강하게 합니다.

부록 2

9. 어금니는 평생 써야 할 영구치입니다.

6세에 나오는 어금니는 철저한 보존,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0. 충치를 예방하는 식생활을 합니다.

섬유질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먹도록 합니다. 야채와 과일은 이 사이의 찌꺼기를 닦아주며, 음식을 씹는 활동 역시 치아와 턱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11. 충치는 성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유치관리가 소홀해 충치가 생길 경우 아이의 건강은 물론 성격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치과 진료는 보통 생후 24개월쯤이 적당합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말할 정도면 이미 충치 치료의 좋은 시기를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의 신경치료를 동반해야 합니다. 신경은 일단 제거하면 재생이 되지 않고 치아는 치료하고 나서도 잘 깨집니다.

19~21개월

Q. 뭐든지 닦치는 대로 얹거나 꺼내는 아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1.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아이의 운동기능 발달 측면에서 볼 때 무척 중요하므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있는 서랍이나 상자는 잠가 두거나 손에 안 닿는 곳에 보관합니다.

2. 허용할 것은 허용하세요.

아이는 물건을 꺼낼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알록달록한 옷감과 실, 리본이 들어있는 통이나 나무 주걱, 계량컵 등이 들어있는 서랍 등은 만질 수 있게 해 줍니다. 넣기 게임을 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이 물건들 때문에 앉을 수가 없네.” “뺏아서 깨지면 다칠 수 있어.” “이렇게 꺼내 놓으면 친구들이 다니기 어렵겠지?” 등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22~24개월

Q. 성장을 방해하는 생활습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밀면 성장판에 무리가 갑니다.

만약 성장 중인 아이가 자신의 체중보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밀게 되면 과도한 무게가 뼈를 자라게 하는 성장판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아이가 너무 무거운 것을 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뼈에 무리가 갑니다.

책상다리 같은 자세를 1시간 이상 오랜 시간 계속하고 있으면 뼈에 무리를 주어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또한 앉아서 주로 생활하게 되면 다리로 가는 혈액의 순환을 방해하고 다리뼈를 휘게 하므로 오랜 시간 앉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25~36개월

Q. 독립심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작은 성공을 자주 맛보게 하세요.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시키면 아이는 무력감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의 능력을 고려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작은 성공'들을 자주 맛 볼 수 있게 해줍니다.

2. 행동을 한 다음에는 바로 칭찬과 인정을 해주세요.

무언가를 이루어 냈을 때는 곧바로 칭찬해 주고 인정을 해 주어 자신감을 갖고 다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칭찬은 구체적으로 되도록 많이, 자주 해서 자신감을 길러 주고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그린 아이에게 “잘 그렸구나.” 라는 추상적인 칭찬보다는 “야, 멋진 차다. 이 안에 누구를 태울 거니?”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칭찬이나 인정과 같은 정신적 보상이 바람직합니다. 아이를 안아 주면서 “와! 우리 ㅇㅇ이 이걸 해 냈다니 무척 기쁘다.”라고 해줍니다.

부록 2

3. 참을성을 길러 주세요.

- 어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실망하는 아이에게 지금은 못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블록으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되어 실망하는 아이에게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구나. 점점 자동차와 비슷해져 가고 있는데, 자꾸 만들다 보면 멋진 자동차가 될 거야.” 라고 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4. 새로운 방법으로 유도하세요.

- 아이가 일을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해 보도록 유도하세요. 이 때 직접 다른 방법을 알려 주기보다는 유도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아이가 스스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게 합니다.

Q. 흉터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염증이 생기지 않게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관리를 잘 못해 염증이 생길 때는 작은 상처라도 흉터가 생기기 쉽습니다. 딱지가 생긴 뒤에는 바람이 통하도록 해줍니다.

2. 실리콘겔 시트를 바르세요.

-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테이프 모양의 실리콘겔 시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흉터에 붙이고 18시간 이상 2개월 정도 치료하면 흉터의 색깔이 옅어지고 피부 상태를 부드럽게 해 줍니다.

부록 3

[부록3]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일별)

20 년 월 주 점검자:

(점검상태 : 양호○, 보통△, 불량×)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	/	/	/	/	/	
		월	화	수	목	금	토	
실외 환경	- 어린이집 보호벽 및 주변의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 실외놀이 공간 주변의 돌, 유리조각, 요철, 녹이 스른 부분, 벗겨진 페인트, 돌출된 모서리가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확인되지 않는 식물이나 잡초는 모두 제거하였는가?							
	- 놀이터 바닥에 오물, 방치된 물 웅덩이가 없는가?							
실내 환경	- 문과 창문 등의 추락 위험은 없는가?							
	- 바닥에는 다칠 수 있거나 미끄러운 곳이 없는가?							
	- 복도, 계단, 비상계단, 미끄럼대 등에 방치된 물건이 없어 피난계단, 미끄럼대 등을 사용하기에 양호한가?							
	- 모든 보육용품과 비품이 제자리에 있는가? - 보육용품이나 비품 유리창 등에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는가?							
놀잇감 및 놀이 기구	- 망가져 날카롭고 위험한 것은 없는가?							
	- 유해 색소가 칠해진 놀잇감은 없는가?							
	- 영유아가 삼킬 만한 작은(3.5cm이하) 놀잇감이나 부품은 없는가?							
	- 부품이 빠지거나 작은 볼트 등이 빠진 것은 없는가? - 놀잇감 및 놀이기구의 수납 상태가 양호한가?							
화장실 · 세면대	- 화장실내 세제나 락스 등 위험한 물건이 영유아들의 손이 닿는 곳에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전기 · 화기 · 위험물	- 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보호되어 있는가?							
	- 전선이 늘어져 있지 않는가?							
	- 화기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가?							
	- 위험물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가? - 가스밸브와 가스중간밸브 잠금은 양호한가?							
차량 안전	- 차량 내 소화기·비상약품 비치여부 및 비치상태가 양호한가?							
	- 차량 내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의 상태는 양호하며 영유아와 보호자는 차량 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가?							
	- 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보육교사 등)이 탑승하는가?							
기타	- 응급전화번호 및 비상연락망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 출처 : 중앙보육정보센터(2012). 2012 어린이집 운영서식 및 문서 자료집.

부록 4

[부록4]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월별)

20 년 월 주 점검자:

(점검상태 : 양호○, 보통△, 불량×)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월	
안전관리	- 안전관리의 책임 및 위기관리 체계가 적합한가?		
	- 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가?		
실외환경	- 어린이집 주변에 감전 위험은 없는가?		
	- 위험한 적치물, 축대 붕괴, 맨홀 등에 대한 위험은 없는가?		
실내 환경	- 모든 설비는 움직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벽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		
	- 창문, 방충망의 상태는 안전한가?		
	- 어린이집 내 비품 및 보육용품에 풀린 나사나 못은 없는가?		
현관 · 통로 · 계단 · 비상구	- 출입문, 현관문 등의 안전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 계단, 통로부분에 미끄럼 방지처리가 되어있는가?		
화장실 · 세면대	- 화장실 내 전기 콘센트 등 전기용품은 안전한가?		
	- 세면대의 고정 상태는 안전한가?		
조리실 · 식당	- 환기가 잘되고 있는가?		
	- 조리용 칼이나 기타 위험한 주방기구는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 영유아의 출입이 잘 통제되고 있는가?		
	- 급식담당직원의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비상대피 시설관리	- 배수가 잘되고 배수구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 등이 화재 등 유사시 사용이 가능한가?		
	- 피난유도등 유도표지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는가?		
차량 안전관리	- 건물 내 대피경로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없는가?		
	- 차량은 점검기준에 의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월	
실외놀이 기구 및 공간	- 모든 놀이기구가 바닥에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 놀이 시설물의 상태(틈새나 간격)가 영유아의 몸에 끼이지 않는 넓이 인가?		
	- 기초대, 지지대 등 매설부분이 노출되지 않았는가?		
	- 모든 놀이기구 아래와 주위(안전지대)의 충격흡수재 성능은 양호한가?		
	- 보수가 필요한 놀잇감 및 놀이 기구가 방치되어 있는가?		
	- 놀이기구의 높이가 영유아에게 적합한가?		
전기· 가스· 위험물 안전관리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인가?		
	- 전선, 콘센트, 플러그 등 손상된 부분은 없는가?		
	- 한 개의 콘센트에 용량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 전기기구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있는가?		
	- 각종 전기기구의 접속 상태가 노후, 파손된 곳은 없는가?		
	- 분배전반 및 각종 전기기구의 노후 및 파손된 것은 없는가?		
소방시설 관리	- 가스경보기의 설치상태가 양호한가?		
	- 대피를 위한 대피도가 잘 관리되어 있는가?		
	-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장비의 작동 및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설치상태가 양호한가?		
비상대피 시설관리	- 옥내소화전의 관리 및 작동이 양호한가?		
	-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 등이 화재 등 유사시 사용이 가능한가?		
	- 피난유도등 유도표지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는가?		
차량 안전관리	- 건물 내 대피경로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없는가?		
	- 차량은 점검기준에 의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 출처 : 중앙보육정보센터(2012), 2012 어린이집 운영서식 및 문서 자료집

강남구 육아지원센터(2009). 첫째가는 사랑-우리 아기 포토 & 육아 스토리.

강옥경 · 김명순(2005). **영아 언어의 이해**. 서울: 학지사.

김금주 · 유윤영(2005). **부모,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부모참여**. 서울: 정민사.

김의향 · 김명순(2006). 7~2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적 몸짓과 어휘 습득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217-234.

김혜경 · 김홍은 · 문혁준 · 박은혜 · 유애열 · 임혜영 · 장영희 · 조혜진(2002). **효과적인 영아보육을 위한 지침서 제 2권: 영아반 운영의 실제**. 서울: 다음세대.

박찬옥 · 구수연 · 이옥임(2010).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이론과 실제**. 서울: 정민사.

보건복지부(1999). **영아교육프로그램 1**.

여성가족부(2008). **0세 보육 프로그램**.

여성가족부(2008). **1세 보육 프로그램**.

여성가족부(2008). **2세 보육 프로그램**.

보건복지부(2011). **어린이집 건강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2011). **안전 · 급식위생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2). **201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식약청(2012). **어린이 급식관리 지침서**.

여성부(2002). **영아보육모형**.

이영 외(2010). **영유아 발달 특성 이해**. 서울: 학지사.

정옥분(2012). **영아발달**. 서울: 학지사.

임미혜 · 채혜선(2011). **영유아건강교육**. 서울: 양서원.

중앙보육정보센터(2009). **평가인증 조력 프로그램**.

중앙보육정보센터(2012). **2012 어린이집 운영서식 및 문서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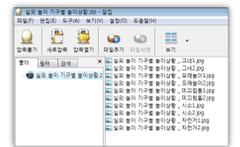
Crais, E., Douglas, D., & Campbell, C. C. (2004). The intersection of the development of gestures and intentionalit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 678-694.

• DVD 활용방법

- 1 활동자료를 검색해 보세요
- 2 각 연령을 클릭하세요



- 1 홈과 각 연령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 2 DVD 목록표와 주제별 연간보육 계획안을 다운 받을 수 있어요.
- 3 DVD 사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 4 활동자료는 음원, 악보, 삽화, PPT로 구성되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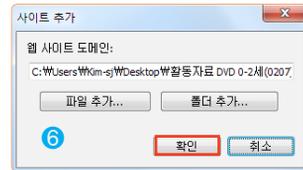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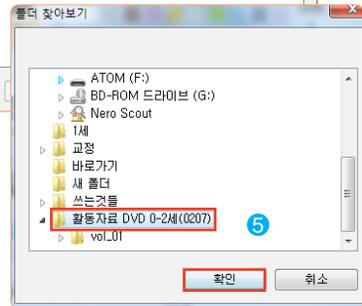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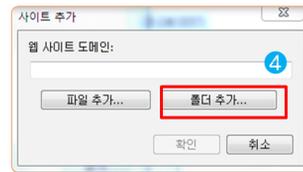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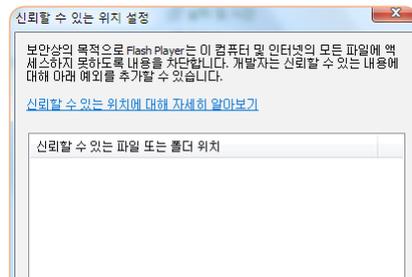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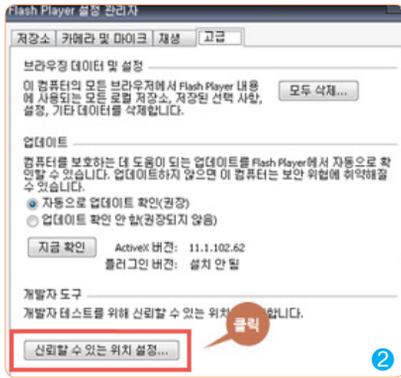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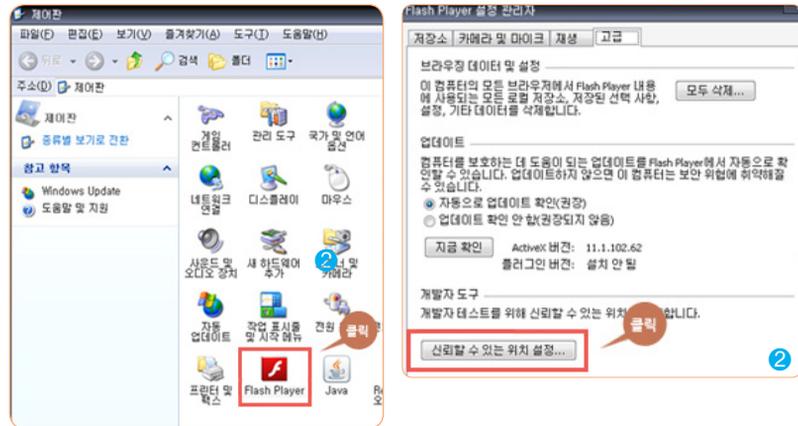
- 1 활동자료는 압축파일로 다운로드됩니다



- 1 이미지는 다운 받기 전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 2 음원은 미리 듣기가 가능하며 ESC키로 중지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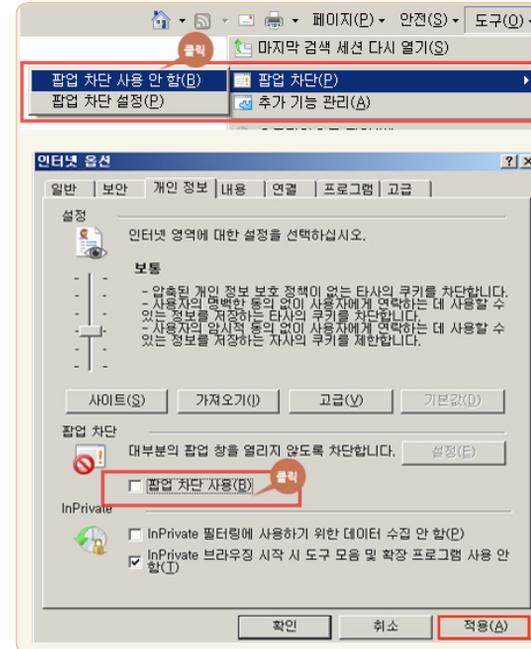
• DVD 클릭해도 실행되지 않을 때

1 시작 -
제어판으로
가세요



5 DVD가 있는 폴더 위치를
클릭해 주세요

• DVD가 열리다가 바로 닫힐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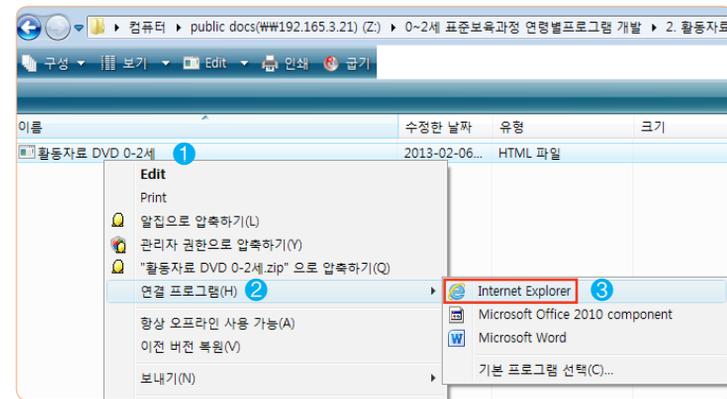


팝업차단 해제 및 툴바를
제거 하세요

툴바(Toolbar) 제거 방법

시작 -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제거
(프로그램기능) - 네이버, 다음, 파란,
구글 툴바 제거

• 브라우저 설정(Internet Explorer)



DVD는 Internet
Explorer가
연결프로그램입니다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이해 |

연구진	이름	소속 및 직위
총 책임연구원	김명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김의향	(재)한국보육진흥원 국장
	이삼범	(전)중앙보육정보센터장
	박초아	울산광역시보육정보센터장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한영	연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미정	여주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이윤선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이완정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교수
	마미정	인천광역시보육정보센터장
	김보라	(재)한국보육진흥원

자문진	이름	소속
	임양미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이해

발행일 | 2013년 2월 초판 1쇄 발행

발행인 | 보건복지부 장관

발행처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편집·디자인 | 경성문화사

인쇄처 | 경성문화사 전화 02. 786. 2999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52000-000865-01
사전 승인 없이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운영의이해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ISBN 978-89-97333-42-4

제작·보급 협력기관  Central Child Care Information Center
중앙보육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층
전화 02. 701. 0431(代) 팩스 02. 6901. 0221

